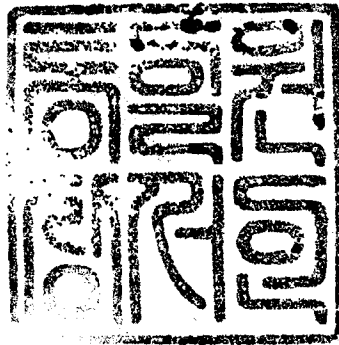


2048

김일성전기 비교연구

大陸研究所 研究委員

許 東 燦



Y. 20
(2005. 10)
2005. 10. 10

2005

統一院

冊을 내면서

이 책자는 北韓의 金日成이 解放後 40여년 동안 歷史를 날조하고 操作한데 대하여 그 虛像을 바로잡고 歷史의 眞實을 복원하기 위한 一環으로 發刊하는 것입니다.

研究者는 北韓에서 住民生活의 規範이 되어왔던 金日成 傳記類 中 代表的인 原典 3篇을 選定하여 相互比較·考察함으로써 『金日成 神話』가 왜곡·날조되어 오는 過程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北韓社會 및 그 統治者 金日成을 理解하고 研究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本文의 內容이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을 添言합니다.

1990. 12

調查研究室

凡 例

略傳 52—「김일성 장군의 략전」, 1952. 4. 15. 勞動新聞 別刷

略歷 69—「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략력」 1969. 8. 30. 朝鮮勞動黨
出版社刊

同志 82—「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百科全書 1, 1982. 10. 10.
科學百科事典出版社刊.

引用文에서는 出處를 간략하게 밝혔다.

拙著 金日成評傳, 金日成評傳(續)에 대해서는 각각 評傳, 評傳(續)이라고 略稱한다. 引用페이지數는 대체로 上記 서적의 章節에 해당되는 페이지數를 밝혔다지만 꼭 필요할 때는 해당 페이지를 明示하였다.

目 次

● 머릿말	3
-------------	---

〈第 1 篇〉

1. 原典들의 序文	13
2. 金日成의 家庭	18
3. 1920年代와 그 思潮	25
4. 金日成의 「初期革命活動」	30
5. 9. 18 滿洲事變前後	41
6. 金日成이 한 抗日武裝鬪爭 「構想」	50
7. 「抗日遊擊隊」組織	54
8. 遊擊根據地	60
9. 遊擊鬪爭—1930年代 前半	66
10. 祖國光復會	75
11. 普天堡襲擊	84
12. 遊擊鬪爭—1930年代 後半	88
13. 抗日武裝鬪爭의 歷史的 意義	95
14. 1940年代 前半의 金日成	105

〈第 2 篇〉

15. 解放—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111
16. 土地改革 등	119
1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127

〈第 3 篇〉

18. 韓國戰爭	135
19. 黨會議 등	142
20. 中蘇와의 關係	148

머릿말 : 「原典으로 본 金日成傳記」 그 比較分析에 대하여

북한 김일성에 대한 傳記類는 그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다만 그 大略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1. 해방직후부터 6. 25까지

1945年 10月 14日 김일성은 대중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가 소련 「民政」의 도움으로 북한의 最高指導者가 된 것을 과시하였다. 그 후 북한에서는 여러가지의 김일성 傳記가 發刊되었다.

그 중 公式的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김일성 장군」(1946年, 北朝鮮 5. 1 節紀念事業準備委員會編. 總28面, 4×6版)이다.

이 冊이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1963년에 발간한 북한의 圖書目錄에는 실려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그 어떤 公式性을 띤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冊은 지금 남아 있는지 어떤지조차 알기 어렵다.

그 다음 宣傳을 위한 책자나 個人이 집필한 傳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現存하고 있다.

「우리의 太陽」, 1946年, 北朝鮮藝術總聯盟編

「英雄 金日成將軍」, 1946年, 韓雪野著

「人間 金日成將軍」, 1946年, 韓雪野著

「金日成將軍凱旋記」, 1947年, 韓載德著

이 중 「우리의 太陽」은 金日成 自身이 口述한 것이다. 또 韓雪野, 韓載德 두 사람은 해방직후부터 김일성과 가장 가까이 지낸 문인, 문필가이므로 그들이

쓴 위의 책들은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많다.

그들은 김일성의 가족, 친척, 친지들 나아가서는 김일성과 같이 抗日武裝鬪爭을 한 빨찌산隊員들과 만나 그들의 口述을 成文化하였다. 偶像化를 위한 지나친 讚揚과 曲筆을 제외하면 김일성에 관한 상당한 情報를 收錄한 책들이다.

다만 韓雪野, 韓載德은 김일성의 抗日武裝鬪爭이나 滿洲에서 벌어졌던 中共 遊擊隊의 투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집필하였다. 또 情報를 제공하는 측도 자기들의 투쟁을 옳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口述하였다.

이상의 책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긴 것이므로 史實이 不正確하다. 金日成이 하지 않은 일들을 김일성이 한 것이라고 혼동하고 있으며 史觀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2. 6. 25부터 7. 27까지

韓國戰爭시기는 김일성의 戰爭挑發責任을 묻는 풍조가 북한에 생겨 김일성은 자신을 해명하여야 할 입장에 놓였었다. 그리고 그가 집권을 유지하려면 政敵을 宗派로 몰아 肅清할 필요도 생겼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김일성이 스스로 나서서 第1次的으로 經歷을 완성한 것이 最初의 公式傳記인 「김일성 장군의 략전」(1952年 4月 15日. 로동신문 別刷)이다.

이 略傳은 52년에 朝鮮勞動黨出版社에서 4×6版, 總68面の 소책자로 엮어져 10萬部가 인쇄되었다. 이리하여 「로동신문」의 別刷와 이 소책자는 勞動黨員 전원의 手中에 들어갔다.

南勞黨肅清은 1952年 12월에 있었던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第5次 全員會議에 관한 文獻檢討事業과 이 「김일성장군의 략전」 학습을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南勞黨員들은 김일성의 僞造된 경력을 학습하면서 肅清되어 간 것이다.

이 傳記는 해방전 滿洲에서 진행된 中共系 抗日武裝鬪爭을 마치 김일성이 영도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또 그가 해방후의 民主改革으로 북한을 옹기 영도하였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略傳은 戰爭責任을 ‘美帝와 李承晩이 挑發’한 것이라고 轉嫁하였다.

이 最初의 公式傳記는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려주는데 좋은 참고가 된다. 여기에서 특히 解放前의 그의 경력 날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政治家의 傳記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의 행적들이다. 이 점을 알아야 집권한 후의 그 정치가의 思想과 實踐의 眞實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執權以前의 그의 正體를 이 略傳으로 완전히 은폐하였다. 그가 正體를 은폐한 결과 독자들은 그 이후 김일성이 추진하는 個人獨裁의 性格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1960年代 後半에 그 전모가 나타난 金日成獨裁의 本質을 북한의 黨員이나 민중들이 52年の 略傳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北韓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한편 黨은 歷史家들에게 이 公式傳記에 따라 諸般歷史를 서술하도록 強要하였다.

3. 7. 27부터 1958년까지

韓國戰爭後 1958년까지의 북한은 南勞黨派, 延安派, 蘇聯派가 모두 肅清되어 가는 처참한 생지옥이었다. 勞動者는 千里馬運動으로 剩餘勞動을 착취당하였으며 農民들은 解放直後에 분배받은 땅을 도로 국가에 빼앗겨, 全員 國營農場이나 協同農場의 農場員으로 전락하였다.

북한의 전주민에게는 한사람 빠짐없이 「出身成分」이 매겨졌다. 「社會主義下

의 階級鬭爭」을 진행할 수 있는 階層分類가 이루어져 나간 것이다.

이 기간에 김일성의 傳記類는 한편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傳記의 査목은 중요하다. 김일성의 경력날조가 이 期間동안 암암리에 더욱 본격적으로 推進되어 갔다는 사실을 暗示하기 때문이다.

4. 1958년부터 1968년까지

김일성의 經歷捏造가 第2次的으로 公表된 것은 傳記形式이 아니라 「回想記」形式으로서 였다.

1959년에는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1), (2)가 각각 50萬部씩 出版되었고 60년에는 (3), (4)가 40萬部씩, 61년에는 (5), (6)이 각각 비슷한 量으로 出版되었다.

이 책들에는 南滿과 北滿의 빨찌산 대원들 처럼 김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回想記를 쓴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김일성에 관한 회상이 가장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외에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1), (2)도 1962년에 각각 出版되었다.

52년의 略傳에 토대한 歷史敘述로는 58년에 李攀英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가, 그리고 61년에 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가 出刊되었다. 黨史로서는 「조선로동당투쟁사」가 58년에, 「조선로동당력사교재」가 64년에 각각 나왔다. 1958년에 발간된 「조선통사」도, 그 하권은 52년 略傳을 토대로한 史술이 되고 있다.

傳記形式으로는 朴尙赫이 「朝鮮民族의 偉大한 領導者」란 제목으로 64년에 革新社에서 펴낸 것이 있다. 總 407面の 방대한 傳記인데 基本 줄거리는 52년의 公式傳記를 대체로 따랐고, 細部內容은 58년 이후의 回想記나 歷史敘述로

서 풍부화시키고 있다.

1958년부터 68년까지의 기간은 朴尙赫의 金日成傳記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2년의 公式傳記를 뒷받침하는 回想記類의 發刊이 중요하다. 이 回想記들은 진실을 그대로 回想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의 요구에 따라 回想記作家들이 歷史的 事實을 歪曲한데 그 특징이 있다.

5. 1968년부터 70年代前半까지

김일성의 個人獨裁가 완성된 1960年代後半부터는 52년에 發表된 公式傳記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전혀 새로운 김일성像을 만들어내는 第3次 經歷捏造作業이 진행되어 갔다.

김일성은 이를 위하여 1967年 당면하게 가장 큰 장애로 가로놓여 있었던 李孝淳, 朴金喆등 甲山派를 말끔히 肅清하여 버렸다. 甲山派는 1937年 6月 4日에 普天堡를 襲擊한 김일성이 현재 북한에 있는 김일성(당시의 人名 漢字는 金一星)이 아닌 다른 金日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루옴이었다. 가짜 김일성이 진짜 김일성을 알고있는 甲山派를 肅清하는데는 해방후 무려 20年 이상이나 걸렸던 것이다.

67년에 김일성이 「黨의 唯一思想體系」 확립책동을 벌여 당원들과 대중들을 「김일성이 생각하는대로 생각하고 그가 하라는대로 하는」 로봇트로 만들어 버린 것도 김일성의 가짜경력을 강요하는 절대적인 수단이었다. 이 이후 北韓에서는 김일성의 그 어떤 말도 거역할 수 없는 공포사회로 바뀌어져 나갔다.

黨內에서 김일성을 반대할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甲山派를 肅清하고 黨員들과 大衆들이 김일성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국내환경을 만든 후에 그는 傳記作家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傳記들을 出版하게 하였다.

「民族의 태양 金日成將軍」白峰著, 1968年, 平壤, 人文科學社刊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1969年, 朝鮮勞動黨出版社刊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

1970年, 哲學辭典收錄, 社會科學出版社刊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71年, 歷史辭典(1) 收錄, 社會科學出版社刊

「김일성동지 략전」, 1972年, 朝鮮勞動黨出版社刊

「人民解放의 救星 金日成元帥」白峰著, 1972年, 人文科學社刊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73年, 政治辭典收錄, 社會科學出版社刊

이상은 傳記類에서 중요한 것 만을 뽑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傳記들의 源流는 마치 小說과 같은 허구와 허위로 메운 68年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이다. 이 책은 해방전을 412面, 해방후 67年까지를 920面으로 서술한 것인데, 52年의 公式傳記를 完全히 바꾸어 놓았다. 白峰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을 朝鮮勞動黨이 간추려서 公認한 것이 69年의 略歷이며 더 풍부화시킨 것은 72年의 公式傳記 「김일성동지 략전」이다.

1968년부터 1970年代前半에 이르는 기간에 김일성의 위조된 經歷의 細部는 끊임없이 구체화되고 다양화되어 갔다. 또 이러한 敘述을 뒷받침하는 回想記錄도 끊임없이 改編되어 갔다.

우선 1967년부터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의 (7)권부터 (12)권까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12)권은 1969년에 나와 이것으로 회상기가 完結되었는데 (6)권부터 (12)권까지는 대부분 그 이전에 나온 여러 回想들의 文章

과 細部를 대폭적으로 고쳐서 收錄한 것들이다.

한편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6)권도 1967년부터 그 文章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 갔으며 새로운 傳記들에 저축되는 표현들은 한층 더 애매하게 고쳐졌다.

이 회상기들 중에서 김일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回想들은 1970년부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2)권~(4)권에 收錄되었고, 1977년에는 회상기들에 나오지 않은 靑少年時節의 回想들을 모아 (1)권을 만들어 출판하였다.

이 기간 歷史敍述도 이상의 날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였지만 52年 傳記와 68年 傳記가 완전히 탄 인물같이 김일성을 서술한 탓으로 「날조된 史實」에 미쳐 「研究」를 따라 세우지 못하게 된 학자들은 北韓의 通史조차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6.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金正日是 73年 9月の 黨中央委員會 第5期 第7次 全員會議에서 黨中央委員會 秘書가 되고 74年 2月の 第8次 全員會議에서 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 委員으로 되었다. 그는 2月 9日 全國黨思想事業部門 일꾼대회에서 「은 社會를 金日成主義化하기 위한 黨思想事業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란 演說을 하고 난 후 黨의 思想部門, 宣傳煽動部門을 틀어쥐고 김일성 자신이 뜻하는 모양대로 北韓을 만들어 나갔다.

한편 金日成은 73年 2月 黨중앙위원회 政治委員會擴大會議를 소집하고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小組를 결성하게 하였다. 黨核心들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 小組의 실질적인 지도를 김일성은 金正日에게 맡게 하였다. 1970年代

中盤부터 북한은 思想改造, 技術改造, 文化改造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들게 된 것이다.

김일성의 傳記들도 이에 따라 다시 그 細部를 변경하는 第4次 經歷捏造가 進行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출현한 傳記들은 다음과 같다.

「은혜로운 태양」 吳泰石, 白峰, 李相奎著, 1975年, 人文科學社刊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전기」(1)~(3), 1982年, 朝鮮勞動黨出版社刊.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2年, 百科全書1 收錄, 科學百科事典出版社刊.

이들 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전기」는 朝鮮勞動黨이 내놓았으며, 또 발간년도가 82年인 것으로 보아 가장 「권위」 있는 最終的인 決定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이후도 傳記들이 나오고 있으나 대체로 이 傳記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傳記들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回想記중에는 1971년에 (5)권이 나온 후 17년이 지나서 발간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6)」와 같은 것이 있다. 이 冊은 1988년에 발간 되었다.

이 시기는 또 1968年이후의 傳記 大改造事業에 그 「研究」를 따라 세우게 된 북한학자들이 많은 歷史敍述을 하게 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冊이다.

「조선통사 상·하」 1977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 1979年,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전사」 1권~33권, 1979~82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1982年,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통사 상·하」 1987年, 사회과학출판사

이러한 歷史敍述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이래의 김일성전기의 虛像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歷史的 事實과 동떨어진 虛構와 虛僞부성이다. 북한의 당원들과 민중들은 이러한 僞造를 무조건 받아들여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을 것이다.

研究者는 解放直後부터 現在까지를 편의상 이상과 같이 6期間으로 區分하여 金日成傳記와 이로 말미암아 빚어진 北韓歷史의 虛構化過程을 살펴 보았다.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第1 段階：解放直後부터 1952年까지.

이 기간은 많은 김일성傳記들이 出刊됨으로써 김일성의 행적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 그 태반은 거짓이었으나 北韓歷史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立場에서 서술되었을 뿐 歷史事實 自體가 김일성의 傳記 탓으로 歪曲된 일은 적었다.

第2 段階：1952년부터 1968년까지.

解放後부터의 김일성傳記들은 1952年 4月 朝鮮勞動黨에 의하여 일단 정리되고 戰爭放火者 김일성의 正當化 作業의 一環으로 勞動新聞에 그의 傳記 「김일성장군의 략전」이 公式적으로 發表되었다.

1958년부터는 이 公式傳記를 뒷받침하는 回想記들이 나오고 52年傳記를 그냥 받아들인 歷史書籍들이 發刊되었다.

第3 段階：1968년부터 현재까지.

52年傳記와는 그 內容이 아주 달라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이 나오고 1969年 이를 公認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략전」이 나오자 70年代에 들어 서서 이러한 傳記類에 따라 서술된 歷史書籍이 나오게 되었다. 北韓歷史는 바야흐로 「主體思想」의 立場에서 小說化된 것이다.

이번 研究에서는 이러한 傳記들 속에서 1952年の 「김일성장군의 략전」, 1969年の 「김일성동지 혁명활동 략력」 그리고 1982年の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등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傳記를 추출하여 그 내용들을 比較分析하고자 한다.

다만 그 기간은 韓國戰爭이 停戰할 때까지 즉 1953년까지로 끝맺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략전」(略傳 52)은 그 서술이 53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김일성동지 혁명활동 략력」(略歷 69)은 68년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同志 82)는 82년까지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들 3傳記에서 共通으로 서술하고 있는 韓國戰爭까지로 일단 分析을 끝맺기로 한 것이다.

傳記의 本文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느 정도 漢字化하였다. 그리고 3傳記 중에서 ‘略傳 52’는 全文을 掲載하였으나 ‘略傳 69’와 ‘同志 82’는 때에 따라서 省略하였다. 偶像化 文章이나 이데올로기 表現은 그냥 放置하였다.

註釋과 解説은 最小限으로 하였는데 김일성의 正體와 行蹟이 어렴풋이나마 드러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 1 篇〉

1. 原典들의 序文

略傳 52

조선인민들은 열렬한 사랑과 존경과 무한한 신뢰감을 가지고,¹⁾ 자기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들은 민족적 탄압과 압박이 극심하던 일제 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거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항일 빨찌산투쟁의 전설적 영웅²⁾으로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불렀으며 위대한 쏘베트 군대³⁾의 위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일제의 통치에서 解放된 이후에는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과 민주개혁의 실시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령도자로, 수령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으며, 美帝의 武力 侵犯者들과 그 走狗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는 祖國 解放 戰爭時期에 있어서는 승리의 조직자로, 고무자로, 영웅적 조선인민과 그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首領으로, 靈將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것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가 걸어 온 영광스러운 력사가 말하여 주고 있다.

1) 1952年 무렵의 김일성 찬양규정

2) 19세기말부터 韓民族에게는 「김일성장군」이란 영웅에 관한 전설(傳說)이 유통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항일빨찌산투쟁」이라는 표현을 「전설적영웅」 앞에 붙임으로서 현재 北韓의 김일성만을 傳說的英雄으로 떠받들도록 문장을 꾸미고 있다.

3) 北韓의 解放이 소련군에 의한 것이라고 明記하고 있다.

略歷 69.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⁴⁾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革命鬪爭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동안⁵⁾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⁶⁾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시어 우리나라 력사의 그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는 조국의 독립과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의 해방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력사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그이의 혁명력사는 또한 조선인민의 民族解放鬪爭과 朝鮮共產主義運動의 승리의 력사이며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온 력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서 주체⁷⁾를 철저히 세우시어 조선공산주의 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우리

4) 1969年 무렵의 장황한 김일성 잔양¹⁾정

5) 김일성의 투쟁역사가 사상적으로 민족적으로 一貫性이 있었다는 主張이지만 완전한 虛構임을 이 傳記가 분석되어감에 따라 밝혀질 것이다.

6) 조선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김일성에게 맡긴 일이 없다.

7) 김일성은 해방전 朝鮮共產主義運動이 아니라 中國共產主義運動의 運動員으로 활동하였던 非主體的人物이다.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였으며⁸⁾ 조선인민을 世紀的인 變革과 繁榮의 길로⁹⁾ 정확히 인도하여 오시였으며 또 인도하고 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 역사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과 결부¹⁰⁾시켜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시였으며 정확하고도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즐기치게 이끌어 오시였다.

조선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찬란한 업적과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는 그 어느것이나 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기간 가장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시였으며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深奧하고도 獨創的인 리론실천적활동¹¹⁾을 통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民族解放鬪爭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시였고 卓越한 領導力¹²⁾과 높은 德

8) 生死存亡의 위기에 있을 때 김일성이 우리민족을 건져준 일은 없다. 그러나 그는 韓國 戰爭을 도발하여 우리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뜨리도록 한 일은 있다.

9) 지금 북한은 세기적인 沈滯와 貧困속에 허덕이고 있다.

10) 지금 북한은 「主體」를 내세워 마르크스·레닌주의 理論과 인연을 끊고 있다.

11) 김일성 자신이 펼친 理論實踐의 활동은 국제공산주의운동, 노동운동, 민족해방운동 그리고 세계의 추세에서 북한을 고립하게 만들어 왔다.

12) 김일성의 領導力이란 그와 김정일 밖에 조선노동당을 지도할 수 없다는 강제력을 黨員들에게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成을 지니시였으며 장구한 기간 혁명의 폭풍을 헤치시고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우며 그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의 충직한 戰士로서 살며 싸우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이다.

同志 82

우리 인민이 수천年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근로인민대중의 自主性を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유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시고 세계혁명을 다그치는데서 거대한 공헌을 하심으로써 조국청사와 인류해방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不滅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主體思想을 창시하시여 인류력사발전의 새로운 시대, 主體時代¹³⁾를 개척하시였으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승리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적지위를 근본적으로 전변시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현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기나긴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 오시였다.

13) 主體時代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25年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0年代 후반부터 형성되어 나간 김일성의 唯一獨裁時代를 말한다.

解説

略傳 52는 해방전의 일제 식민지시기를 「민족적 탄압과 압박이 극심하던 암담한 시기」라고 하여 그나마 서술하는데 일정한 客觀性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略傳 69에서는 이러한 객관성은 희박해지고 「김일성이 투쟁에 나선 때」부터 김일성이 혼자만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투쟁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略歷은 또 그들 「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國際共產主義運動과 勞動運動의 탁월한 領導者의 한분」이라 규정하여 보기에 따라서는 김일성을 中蘇의 지도자들보다 「偉大」한 수령으로 格上시켰다.

同志 82에서는 이것이 다시 「世界革命運動」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으로 格上된다. 偶像化의 궁극적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略傳 52에서 「위대한 쏘베트軍隊의 威力에 의하여」北韓이 해방되었다고 서술되었던 것이 同志 82에서는 「세계인민의 해방」에까지 金日成이 공헌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점이다. 解放後 「스탈린의 弟子」라고 자처하던 金日成은 나중에는 「世界的指導者」로 까지 偶像化되었다.

戰爭挑發者 김일성은 韓國戰爭에서 대해서는 賊反荷杖格으로 전쟁책임을 일관되게 韓國에 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은 해방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받드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가 略歷 69에서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를 創造的으로 발전」시켰다고 그 자세를 바꾸었으며 同志 82에 와서는 「主體思想」으로 자신의 인생이 일관되었던 것처럼 경력을 변조하여 버렸다.

2. 金日成의 家庭

略傳 52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¹⁾ 장군은 1912年 4月 15일²⁾ 平安南道 大同郡 萬景臺³⁾에서 탄생하였다.

장군의 아버지인 金亨稷선생은 민농가의 출신⁴⁾으로 일찍부터 日帝를 반대하는 民族解放鬭爭에 참가하였다.

로씨야에서 일어난 위대한 社會主義 10月革命의 직접적인 영향하⁵⁾에 우리나라에서 3. 1運動이 일어나자 선생은 이 운동에 참가하여 反日示威運動을 조직하다가 적에게 체포되어 감옥생활⁶⁾을 하게 되었다.

적의 감옥에서 刑期를 마치고 나온 金亨稷선생은 조금도 굴함이 없이 民族解放運動을 계속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하여지는 악독한 日帝의 탄압

1) 김일성의 이름은 본래 金成柱나 金聖柱이다. 1930年 무렵 그는 金成柱라고 改名한 일이 있다. 또 1930年부터 그는 金一星이란 이름을 썼다. 一星은 그의 별호이다. 그가 金日成을 濫稱하게 된 것은 1936, 7年 무렵부터로 생각된다.(評傳 22面以上, 評傳(續)381面以下)

2) 그의 生年이 1914年이라고 추측되는 발언을 北韓의 前副主席 林春秋가 한 바 있다.(評傳 22面 以上)

3) 1950年代 후반부터 60年代전반까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平南 龍山面 下星 鎭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었다.(評傳 19面以上)

4) 金亨稷은 장기간 후는 부유하였다(評傳 33面以下). 따라서 김일성의 출신성분은 貧農이 아니라 藥種商(小商人)이다.

5) 3. 1운동은 1917年의 러시아 社會主義 10月革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18年 1月 미국 윌슨大統領의 第1次世界大戰 講和14個條原則이 한반도에 傳播됨으로써 일어났다.

6) 金亨稷이 1919年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略傳 69에서 否定되고 있다.

과 박해도 그의 혁명적 투지를 꺾지 못하였다.

선생은 일제의 추궁과 박해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中國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東北 臨江, 長白縣八道溝, 遼東省무순현(撫松縣의 誤謬-번역자)등지에서 日帝를 반대하는 民族解放運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옥 생활에서 받은 상처와 오랫동안 民族解放鬪爭에서 얻은 피로로 인하여 선생은 1928년에 36세를⁷⁾ 일기로 일제에 대한 천추의 원한을 품은채 서거하였다.

장군의 어머니이신 康氏⁸⁾도 역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중첩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는 金亨稷선생의 혁명투쟁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애국주의 정신으로 자기의 자제들을 항상 교양하였다. 장군의 어머니도 장군이 20세되던 1932년에 일제의 박해와 기아와 빈궁에 의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군의 숙부 金亨權⁹⁾선생도 열렬한 反日鬪士로 혁명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제의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악독한 고문과 15년의 체형을 받고 옥중에서 신음하다가 불행히 獄死하였다.

이러한 혁명적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교양받은 장군에게는 벌써 少年時期부터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반발심이 움트지 않을 수 없었다.

略歷 69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92年 4月 15일 평양시 만경

7) 1928년에 76세로 죽었다는 것도 略歷에서 부정되었다.

8) 모친의 이름은 康盤石이다. 盤石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康盤石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또한 부잣집 딸이기도 하였다.

9) 金亨權의 「愛國鬪爭」은 客觀的으로 證明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運動을 한 흔적은 엿보인다.(略傳 330面以下).

대(당시의 平安南道 大同郡 古平面 南里)의 한 貧農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一家는 대대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다.

증조할아버님이신 金膺禹¹⁰⁾선생께서는 1866年 미국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척후대로 파견한 海賊船 《사만호》를 격침시키는 싸움의 선두에서 시였던 애국자이시였다.

할아버님이신 金輔鉉선생과 할머니이신 李寶益녀사 역시 자손들의 혁명투쟁을 뒤받침하여 주시면서 일제의 모진 탄압과 박해에 굴함없이 민족적 절개를 굳건히 지키셨으며 침략자에 항거하여 강의하게 싸우신 애국자이시였다.

아버님이신 金亨稷선생께서는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先覺者이시였으며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선생께서는 반일애국사상이 강하시였고 남달리 뛰어난 재능과 고결한 품성을 지닌분이시였다.

《원대한 뜻(지원-志遠)》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나서신 선생께서는 일찌기 중학시절부터 반일투쟁을 지도하시였으며 1917年 3月에는 朝鮮國民會¹²⁾를 결성하시였다.

선생께서는 1917年 가을 100여명의 朝鮮國民會 관계자들과 함께 일제경찰에 검거되시였다.

일제 경찰은 그 어떤 야수적 고문과 회유로써도 조국광복에 대한 선생의 고

10) 當祖 金膺禹의 사적은 순전한 날조이다.(李命英, 權力の 歷史, 215面 以下).

11) 祖父母는 평범한 농민에 불과하였다.

12) 朝鮮國民會는 張日煥이 결성하였는데 金亨稷은 여기에 平會員으로 들었다. 國民會는 安昌浩의 指導下에 있던 기독교단체이다(評傳 166面以下)

결한 혁명적절개와 열렬한 혁명사상을 굽힐 수 없었다.

선생께서는 감옥에서 나오시자 우리나라 北部國境地帶¹³⁾와 中國東北地方으로 투쟁무대를 옮기시고 국내외의 反日運動의 指導的中心에 서시어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시였다.

선생께서는 항상 자제분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로씨야의 사회주의 10月혁명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事變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시였다.

어머님이신 康盤石녀사 역시 뛰어난 재질과 인자하고 강의한 성품을 지니신 분으로서 원수들과는 역세계 싸우신 반일혁명투사이시였다.

녀사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撫松一帶의 공산주의자들을 결속하여 조직하신 秘密革命小組의 성원으로로서 반일부녀단체를 무으시고¹⁴⁾ 그 조직을 도처에 확대하시면서 조국의 독립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조직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삼촌이신 金亨權선생께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찍부터 혁명투쟁에 나서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였으며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시였다.¹⁵⁾

선생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직하신 朝鮮革命軍에 참가하시였으며 1930年 여름에는 그 한 小組를 인솔하시고 북부조선일대에서 무장활동을 과감히 전개하시어 일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선생께서는 日帝警察에 체포되시어 15年の 長期刑을 받고 囹圄生活을 하시

13) 金亨稷이 감옥생활을 한 일은 없었다.(評傳 56面以下).

14) 康盤石이 反日婦女團體를 건성한 일은 없었다.(評傳 90面以下)

15) 金亨權이 공산주의자였던 일은 없었다. 만일 북한 문건에 사진판으로 나오는 「金亨權」이 김형권 같으면 그는 일종의 폭력적 민족주의자였다.(評傳 330面).

였다. 선생께서는 적들의 야수적인 고문과 그 어떠한 회유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옥중에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불굴의 의지로 싸우시다가 서거하시었다.

첫째 동생이신 金哲柱동지는¹⁶⁾ 共靑地方組織의 책임자로서 대중속에서 정치공작을 정력적으로 조직전개하시었고 共靑組織에서 육성된 우수한 청년들을 수많이 抗日遊擊隊에 입대시키시었으며 자신이 직접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시다가 1935년에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신 불굴의 혁명투사이시었다.

사촌동생이신 金元柱동지¹⁷⁾ 또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호응하여 공장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 속에 지하혁명조직을 무으시고 일제를 반대하여 적극투쟁하신 견결한 반일혁명투사이시었다.

김일성동지의 외할아버님이신 康敦煜선생과¹⁸⁾ 외삼촌이신 康普錫선생¹⁹⁾께서도 祖國光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신 反日鬪士이시었다.

이처럼 조선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일가와 친척들은 증조할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삼촌, 동생들 그리고 외할아버님, 외삼촌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내

16) 金日成의 아우 金哲柱에 대한 客觀的資料는 없다. 다만 林春秋가 펴낸 個人偶像化用인 傳記는 있다.(評傳 20面).

17) 金元柱 역시 그의 활동을 증명하는 客觀적 資料가 없다. 다만 平壤의 어떤 독립단체의 발단조직에 있었던 것 같은 敘述은 있다.(韓雪野, 수령을 따라 배우자. 1962年 민청출판사刊 「인간 김일성장군」).

18) 康敦煜은 長老敎의 長老로서 篤실한 기독교신자였다.(評傳 52面以下).

19) 康普錫은 1925年무렵 金亨稷과 같이 滿洲長白縣에서 白山武士團이란 右翼民族主義團體에 속했던 일이 있다.(評傳 85面).

려오면서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시었다.²⁰⁾

同志 82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12年 4月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증조할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삼촌, 동생 그리고 외할아버님과 외삼촌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워온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다.

력사에 유례없는²¹⁾ 가장 위대한 혁명적 가정에서 탄생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모님의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²²⁾ 그리고 꾸준한 탐구와 모순에 찬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뼈저린 체험,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解説

김일성은 1912年 4月 15일 平南 大同郡 龍山面 下屋칠골의 외갓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의 幼少年時期는 자못 복잡하다. 어릴 때는 萬景臺에서 자라났으나 5세때 아버지를 따라 平南 江原郡 高邑面 東三里 내동부락에 갔었고 6세때 다시 萬景臺로 돌아왔다.

20) 김일성의 가정 속에서는 非共產主義系統의 民族主義團體에 소속하여 일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한 몇몇 인사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정도는 植民地時代 어느 家庭에나 있었던 일이었다.

21) 김일성의 가정은 歷史에 類例없다고 과장하기에는 너무나 보잘 것이 없다.

22) 김일성은 부모로부터 共產主義영향이란 받아본 일이 없었다.

7세때 그는 부모와 함께 平北中江鎭으로 移住하였으며 그후 滿洲의 臨江縣 臨江(당시 이름 帽兒山, 八道溝에 가서 각각 小學校를 다녔다. 11세때 그는 다시 平壤에 돌아와 외조부인 康敦煜의 집에 살면서 그가 경영하던 彰德學校에 다녔다.

그의 외가는 長老敎系統의 기독교인이었고, 부친은 기독교계통인 평양 崇實中學校 2학년 중퇴경력자이다. 이러한 家庭에서 자란 김일성을 「絶世의 愛國者」로 만드는 것이 북한의 김일성 傳記들이다.

略傳 52는 「로씨야社會主義 10月革命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은 金亨稷」이란 허구를 가져와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저촉되는 金亨稷의 일체의 經歷을 숨기고 있다.

또 略傳은 일제와 투쟁한 투사로 金亨稷을 묘사하기 위하여 3. 1운동 후에 그를 일부러 「감옥」에 들게 하는 虛構까지 만들었다.

略傳은 또 김일성의 부친인 金亨稷이 1928년에 36세로 죽었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후에 26년에 32세로 죽었다고 고쳐졌다. 김일성은 자기 부친이 언제 죽었는가조차 52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略歷 69는 효성이 이렇게도 없는 김일성의 家系를 날조하기 위하여 그 증조부터 외가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유례없는 革命的 家庭」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또 사상적으로 宗教的이며 民族的인 가정을 急進的이며 共産的인 가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주변 인물들의 경력을 왜곡하고 있다.

3. 1920年代와 그 思潮

略傳 52

조선은 日本帝國主義의 식민지로 봉건제도의 잔재가 농후하고 경제적으로 낙후한 식민지 농업국가였다. 식민지조선에는 資本主義的, 封建的, 半封建的, 植民地的, 帝國主義-警察統治의 압박이 결합되어 있었다.

공장과 제조소들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극히 처참하였다. 노동시간은 보통 12시간이었으며, 방직공장과 같은 직장들에서는 14시간까지 되었다. 여성들과 아동들의 노동에 대한 착취는 더욱 심하였다. 임금은 매우 낮으며 노동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들도 없었다. 그리하여 공장과 제조소들은 노동자들의 생지옥으로 되어 있었다.

농민들의 처지도 노동자들의 처지보다 더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 농민들은 지주와 일본 강도들의 각종 형태의 가혹한 착취와 가렴주구로 말미암아 최후한방울의 기름까지 착취당하였고 흉작과 기아에서 항상 신음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파탄과 몰락에 빠져 정든 고향을 등지고 품팔이터를 찾아 해내해외로 유랑하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을 경제적으로만 압박하고 착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고 압박하였다. 그들은 야만적 軍國主義-警察統治 방법으로 조선 인민을 통치하였으며, 조선 인민에게 민족적인 우수한 모든 것들을 박탈 掠取하였으며,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경찰망과 감옥망으로 엮어 놓았다.

관공서와 재판소 및 기타들에서의 公用語는 물론 일본말이었고 학교에서도

모국어의 교육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적과 신문을 모국어로 출판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제국주의 략탈자들은 우리 민족문화의 일체 발현을 압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인민에 대한 死刑執行吏였으며 철천의 원쑤이었다.

위대한 레닌은 1920년에 조선에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 략탈자들의 식민지 정책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제반 기술적 최신 방법과 순전한 아세아적 拷問을 결합시킨 미증유의 야수성으로 강탈당하고 있는 조선을 더 강탈하기 위하여 일본은 전쟁을 할 것이다 ... 조선은 帝政時代의 모든 최신식기술완성과 순전한 아세아식 고문제도와 미증유의 야수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조국에 대한 일본제국주의 략탈자들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와 조선 인민에게 대한 그들의 야만적 압박과 착취는 少年時代의 김일성 장군에게 反日鬪爭의 숭고한 애국심을 발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벌써 20年代에 이르러 조선에는 비록 기형적이지만 식민지 략탈과 착취를 목적인 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 철도와 공장과 제조소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는 첫 로동계급의 대열이 결성되어 解放鬪爭의 무대에 先進階級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에서 위대한 社會主義 10月革命 승리의 砲聲이 식민지 동방의 잠을 깨우자 맑스-레닌주의 革命思想은 조선에 침투되어 급히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중심지들에서는 선진로동자들과 진보적인테리들 속에서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 研究小組들이 조직되었다. 운동의 다음 단계에 이르러 맑스-레닌주의는 小組形態로부터 勞動運動과 農民運動의 領域에 진출하여 그에 목적의식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점차적으로 民族解放運動의 전략전술의 기초로 되게 됨에 따라 大衆運動은 순전한 경제적 요구로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일본략탈자들만 반대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야합한 조선 봉건들과 부르주아들을 반대하여서도 진행되었다.

로동자, 농민의 대중적 진출과 함께 學生運動, 婦女運動도 광범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모든 사변들도 역시 少年時代의 김일성 장군의 세계관 형성에 거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革命的 家庭環境,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에게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압박, 러시아에서 위대한 社會主義 10月革命의 승리와 조선에로 맑스-레닌주의의 선진사상의 침투 등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은 벌써 少年시대에 김일성 장군의 장래 세계관형성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略歷 69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께서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한편 조국땅우에 나라 잃은 비분과 고통이 차고넘친 환경에서 험한 풍랑과 시련을 겪으시면서 성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거족적 반일항쟁이었던 3. 1봉기에서 애국적정열을 키우셨으며, 아버님에 대한 일제경찰의 거듭되는 체포만행에서 원쑤격멸의 투지를 키우셨으며, 아버님의 불굴의 혁명활동의 영향을 받으시면서 남달리 일

적부터 반일애국주의사상과 혁명적계급의식을 강하게 키워나가실수 있게 되었다.

1920年代 중엽 간고한 시련을 겪고 있던 조선혁명은 탁월한 首領의 출현을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제기하고 있었다.

탁월한 령도자가 없었던 탓으로 자체의 심중한 약점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들의 야수적탄압 앞에서 쓰러린 실패를 면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예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위대한 전환의 새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解說

略傳 52는 순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입장에서 1920年代를 서술하고 있다. 러시아社會主義革命이 이 나라에 영향을 주어 勞動者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되고 진보적인텔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보급시키는 小組들을 만들어 나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日本帝國主義가 자행한 殖民地彈壓에 대한 레닌의 기록은 참고할 만하다. 아뭏든 이러한 억압과 압박 속에서 우리 나라에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침투되어 갔고 민족주의운동과는 참여한 대립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한쪽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略傳 69는 김일성이 러시아社會主義革命과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역사적사실을 歪曲하였다. 사실은 그는 기독교신자들인 부모와 外家の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었다. 그들은 基督教信者들이었던 만큼 필연적으로 反共的일 수 밖에 없었다.

김일성의 가정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던 金亨稷조차 기독교계통이었다.

그가 사망한 원인이 共產主義者 青年에 의한 테러때문이었다고 밝힌 證言者가 있을 정도로 그는 공산주의와는 인연이 없었다.

김일성의 가정환경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有神論的 環境이었던 것이다.

略傳 52는 그래도 1920年代와 그 時代思潮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관점에 따라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略歷 69에서 크게 변한다.

略歷에서는 김일성을 金亨稷의 「不屈의 革命活動의 影響」을 받고 「남달리 일찍부터 反日愛國思想과 革命的階級意識을 강하게 키워나간」 少年으로 둔갑시켰다.

거기서는 우선 金亨稷이 러시아社會主義革命의 影響을 받은 共產主義者였다고 事實을 歪曲하고 이러한 아버지의 훈도를 받은 결과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로 되었다고 暗示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반일애국주의사상」을 덧붙인 것은 金亨稷이 본래 安昌浩계통의 朝鮮國民會에 있었던 것을 일반화, 모방화한 결과일 것이다.

同志 82는 略歷의 虛構를 극대화시켰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한 朝鮮共產主義運動을 「초기공산주의운동」이라 규정하고 민족주의 계통이 벌린 「민족해방운동」과 함께 아예 이 운동들을 김일성으로 하여금 「극복」하게 한 것이다.

「同志」는 1925年 겨우 나이가 14세밖에 안되었던 김일성이 滿洲를 건너간 사실을 두고 그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닌」 조선혁명의 「首領」이라고까지 추켜세웠다.

4. 金日成의 「初期革命活動」

略傳 52

김일성 장군은 14세의 소년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박해와 추궁에 의하여 中國으로 망명하여 간 아버지를 따라 鴨綠江을 건너 中國東北으로 갔다. 그는 東北에 가서 吉林 毓文中學에¹⁾ 입학하였다.

중학교 在學당시인 1926년에 김일성 장군은 共產青年同盟²⁾에 加入하였다. 그는 벌써 學生運動의 선두에 서서 진보적청년들을 非合法組織으로 있는 共產青年同盟에 집결시킴에 헌신 분투하였다. 이때로부터 그의 혁명적 활동은 시작되었다.

김일성 장군은 학생들 속에서 共產青年同盟事業을 전개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선전한 혐의로 중국반동군벌들에게 체포되어 1927년부터 1928년까지 吉林監獄에 투옥되어³⁾ 옥중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동군벌들의 탄압과 박해와 투옥은 16세의 青年革命者의⁴⁾ 역센 투지를 꺾지 못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출옥된 후 많은 그의 동지들과 진보적선생들의 주선에 의하여 간신히 다시 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되어 1928년에 중학을卒

1) 金日成은 1927年 8월에 吉林毓文中學校 2학년에 轉學하였다.(評傳 104面以下)

2) 1926年 당시 吉林에는 「공산청년동맹」이란 없었다.(上揭書. 144面以下)

3) 1927년부터 28년까지는 김일성은 吉林毓文中學校 학생이었으며 투옥된 일은 없었다.(上揭書. 104面以下)

4) 김일성의 16세때는 1927年인데 그 당시 그는 毓文中學校에 轉學할 前後였다. 이 무렵 그가 馬賊떼와 어울렸다는 所聞이 있을 정도로 그의 생활은 어지러웠다.(上揭書. 90面以下)

業⁵⁾하게 되었다.

중학을 졸업한 후 그는 共產靑年 東滿特別區 秘書⁶⁾ 비밀리에 활동하였는 바 벌써 그때에 그는 東滿靑年의 가장 先鋒的이며, 革命的인 우수한 靑年指導 일꾼들 중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김일성 장군은 1931년에 共產黨에 入黨하였다.⁷⁾ 이 때로부터 그의 革命的活動에는 새 시기가 시작되었다.

略歷 69

김일성동지께서는 열네살 나시던 해에 일제와 싸워 나라를 독립시키고야 말겠다는 불타는 념원과 굳은 결심을 가슴에 품으시고 아버님께서 혁명투쟁을 하시는 중국동북지방으로 가시었다.

1926年 6月 5일⁸⁾ 한평생을 祖國光復을 위한 투쟁에 바쳐오신 金亨稷선생께서는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었다. 아버님의 서거는 김일성동지께 강력한 사상적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뼈가 부서지고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崇高한 뜻을 받들어 혁명투쟁에 몸바쳐

5) 김일성은 1929年 5월에 毓文中學校 3학년을 中退한 후 다시 復學한 일은 없었다.(上揭書, 212面以下)

6) 中學을 중퇴한 29年 5月이후 그는 東滿이 아니라 南滿으로 가서 反共團體 國民府의 산하단체인 南滿韓人靑年總同盟의 同盟員으로 되었다.(上揭書, 232面以下)

7) 1931年 김일성은 國民府脫退派인 李鍾洛의 朝鮮革命軍을 最終的으로 脫退하고 하르빈에 갔다가 撫松으로 돌아왔다. 이 무렵 그가 中共에 接觸한 일은 있기는 하였으나 入黨할만큼 中共組織活動을 한 일은 없었다. 그가 입당한 흔적은 없다.(評傳(續) 381面以下).

8) 金亨稷이 26年 6월에 죽었다는 말은 略傳 52에서 28年 36세로 죽었다는 記述을 시정한 것이다. 26年 6月 死亡說이 옳다.(評傳 84面以下)

나서리라 굳게 맹세하시였다.

1926年 여름⁹⁾ 김일성동지께서는 樺甸縣에 있는 《華成義塾》에 입학하시였다.

이 학교는 民族主義者들이 獨立軍幹部養成을 목적으로 세운 학교였다.

민족주의사상으로 일관된 《華成義塾》에서의 교육내용은 새것을 지향하시는 김일성동지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밀리에 사회주의적 서적들을 탐독하시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을 체득하게 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年 가을 非合法的 革命組織인 打倒帝國主義同盟(략칭 ㅌ·ㄷ)을 결성하시였다.¹⁰⁾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동맹의 목적에 대하여 오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ㅌ·ㄷ》의 목적은 장차 조선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당면하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인 목적과 당면한 투쟁임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장 정확하게 규정한 맑스-레닌주의적 鬪爭綱領이었다.

실로 打倒帝國主義同盟의 결성은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었다.

9) 김일성은 26年 여름이 아니라 봄에 樺甸縣에 있었던 華成義塾에 입학하고 金亨稷이 죽은 26年 6월에 퇴학하였다(評傳 73面). 또 이 문장은 26年 毓文中學校 입학이란 略傳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10) 26年 6월에 華成義塾에서 퇴학한 김일성이 이 해 가을에 ㅌ·ㄷ(ㅌ·드라고 읽는다)를 結成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ㅌ·ㄷ 설정은 略傳에서 共產主義青年團에 加入하였다는 主張을 辯明하기 위하여 새롭게 捏造한 虛構이다.

이때부터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그이께서는 혁명적 청년학생운동의 지도자로 등장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적 공산주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하며 打倒帝國主義同盟의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큰뜻을 품으시고 결연히 《華成義塾》을 中退하시였다.¹¹⁾

1926年 겨울 김일성동지께서는 撫松에서 청소년들을 망라하여 그들을 반일애국주의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훈련할 목적밑에 새날少年同盟을 조직하시였으며 이 동맹의 신문 《새날》을 발간하시였다.¹²⁾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年 봄에¹³⁾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吉林으로 옮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吉林毓文中學校에 다니시면서 비밀리에 共產黨宣言, 資本論¹⁴⁾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저작들과 革命的 文學作品들을 열심히 탐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광범히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11) 華成義塾 中退는 26年 6月の 일이고 가을의 일은 아니다.

12) 김일성이 새날少年同盟을 조직한 것은 그가 南滿韓人青年總同盟員이 된 19年の 일이며 이 해 음력 설달로 추정되고 있다.(上揭書, 255面)

13) 1927年 봄에 김일성은 吉林이 아니라 瀋陽에서 淸中學校에 다니고 있었다.(上揭書, 104面以下)

14) 資本論의 中國語 번역본은 1930年에 上海에서 처음나왔다. 당시 吉林에서 共產黨宣言을 입수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가 1930年 이후가 아니라 1927年에 이러한 서적들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事實을 무시한 제멋대로의 主張이다(上揭書, 130面以下).

1927年 여름 打倒帝國主義同盟의 명칭을 反帝青年同盟으로¹⁵⁾ 고치시고 여기에 각지에서 모여온 선진적 청년학생들을 망라시키시었다. 反帝青年同盟은 대중적 성격을 가진 청년학생들의 非合法的 革命組織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같이 선진적 청년학생들을 결속하시어 그 조직을 확대하시는 한편 그중 핵심적인 청년학생들로써 1927年 여름 朝鮮共產主義青年同盟¹⁶⁾을 결성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광범한 청소년들을 교양훈련하기 위하여 1927年 봄에는 합법적인 청소년단체로서 朝鮮人旅吉少年會를¹⁷⁾ 조직하시었으며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朝鮮人旅吉學友會를 朝鮮人留吉學友會로 改編하시고¹⁸⁾ 이를 지도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28年 여름 학교내 反動敎員들을 반대하는 同盟休學투쟁¹⁹⁾을 조직하시어 승리한 경험에 토대하여 그해 가을 일제가 만주강점을 목적으로 시작한 吉會鐵道 吉林—會寧敷設을 반대하는 吉林市 청년학생들의

15) 1928年の 코민테른 제 6 차대회 이후에 생긴 各國 共產黨의 산하대중단체 反帝同盟의 이름을 모방한 「反帝青年同盟」을 제 6 차대회 이전인 27년에 결성하였다고 한 것은 황당한 허구라할 수 있다.(上揭書. 137面以下).

16) 虛構로 생긴 「反帝青年同盟」의 핵심들이 만들었다는 「共靑」도 물론 허구이다. 이런 조직들은 역시 虛構에 지나지 않는 托·士의 「後繼組織」으로 설정된 架空創作物들이다 (上揭書. 154面以下).

17) 김일성이 反共團體인 國民府의 吉林少年會會長을 맡은 것은 1929年 5月 이전이다. 27年 봄에 그는 吉林에는 없었다.(上揭書 110面以下).

18) 조선인旅吉學友會는 留吉學友會로 개편되었으나 改編한 인물은 김일성이 아니었다. (上揭書. 115面).

19) 吉林에서 同盟休學이 일어난 움직임은 있었으나 不發로 끝났다. 이 同盟休學의 主謀者는 中國人學生으로 김일성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았다(上揭書. 193面以下).

적극적인 反日示威²⁰⁾ 日本商品排斥鬭爭을 조직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반일청년학생운동이 세차게 전개되자 일제는 1929年 가을 中國反動軍閥을 매수하고 부추기여 조선인 반일운동자들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이때 김일성동지께서도 동지들과 함께 반동경찰에 체포되시여 吉林監獄에 투옥되시였다.²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를 전후하여 세차례에 걸쳐 놈들에게 검거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길림감옥의 철창속에서도 혁명조직들을 계속 지도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혀 나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年 봄 刑期를 마치시고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시였다.²²⁾

同志 8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선행한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지였으며 1926年 10月 17일²³⁾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인 打倒帝國主義同盟을 결성하시고 조선혁명의 당면과

20) 吉會線(吉林-會寧間) 鐵道敷設反對鬭爭은 중국인이 지도한 것이다. 김일성이 여기에 참가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上揭書, 179面以下).

21) 김일성이 1929년부터 30년까지 吉林監獄에 投獄된 사실은 없다(上揭書, 245面以下). 또 이 記述은 略傳52에서 27년부터 28년까지 투옥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번복한 것이기도 하다.

22) 1930年 봄 김일성은 吉林監獄이 아니라 南滿에서 國民府系統의 青年運動에 참가하고 있었다(上揭書, 260面以下).

23) 架空組織인 T·C의 「결성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歷史捏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再建되지 않았던 당시, 撫松小學校에 臨時로 配置되었던 朝鮮族班에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北韓에서도 最近 傳記에서는 그가 撫松小學校를 卒業했다고는 쓰지 않고 있다.

正義府가 創設된 이듬해인 1926年 3月, 修學期間이 1年 6個月인 華成義塾이 開校하였다. 樺甸縣官街에 崔東旻가 設立한 것인데 당시 正義府人士로 되어 있었던 金亨稷은 金日成을 이 學校에 入學시켰다. 華成義塾은 民族主義 系統의 中堅幹部를 양성할 目的을 가진 一種의 軍官學校였다.

26年 6月 金亨稷이 死亡하였다. 그 原因이 韓人共產青年에 의한 暗殺이라고 있는 證言者가 있는 것을 보면 그는 反共主義者로 指目된 인물이었다.

金亨稷의 사망으로 金日성의 修學은 中斷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그후 撫松縣城에 얼마간 있게 되었다. 李命英教授는 金日성이 朱馬骨이라는 馬賊떼에 한때 들어간 일이 있었고 또 穆氏가 이러한 그를 구제하여 그를 養子로 삼고 奉天의 平壤中學校에 入學시켜주었다고 證言에 기초한 主張을 하고 있다. (4人的 金日成)

이 穆氏의 이름은 穆漢章(무한장)으로 金日성의 傳記類에 가끔 등장하는 인물이다. 金日성이 吉林毓文中學校 2學年에 轉學한 것은 1927年 여름이다. 그는 여기서 正義府, 國民府에 關係하고 있었는데, 29년에는 그 傘下團體인 吉林少年會 會長을 맡게 되었다.

毓文初級中學校 卒業을 한달 앞둔 1929年 5月 上旬에 「朝鮮共產青年會」란 組織이 結成되었다. 그는 다른 正義府系統 青年들과 이 共靑에 入會하였다.

그러나 이 共靑幹部들은 結成된지 10日만에 日本總領事館警察에 檢舉되었다. 당시 金聖柱란 이름이었던 金日成은 요행히 검거에서 벗어났다. 그는 吉林

省城을 빠져나와 수개월후에 國民府의 本據地였던 南滿興京縣에 나타났다.

거기서 그는 國民府傘下團體였던 南滿韓人青年總同盟의 平盟員으로 되어 金赫, 車光洙아래서 일하였다. 1930年初 그는 桂永春과 같이 撫松에 돌아와 거기에서 國民府系統의 새날少年同盟을 조직하였다.

1930年 3月 그는 國民府의 女性, 農民, 青年들의 團體가 統合되어 東省朝鮮人農民總同盟이 되었을 때 撫松安圖 地方同盟組織要員이 되었다. 그후 얼마안가서 그는 安圖地方의 農民同盟을 國民府傘下에로 망라하기 위하여 吉林을 거쳐 敦化까지 갔다.

그러나 그는 敦化로부터 南下하여 安圖縣으로 가지 않고 30年 5月中旬 敦化縣西北에 있는 長春縣카툼으로 갔다. 이 때 그는 正義府, 國民府를 脫退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김일성은 1930年 5月까지 共產主義者가 아니라 車光洙系統의 反共主義者였고 共產主義文獻도 거의 읽은 일이 없었다. 그는 이때까지 父親과 그 친구들의 影響밑에 있었다.

김일성의 傳記敍述에서 청소년시절, 특히 1930年 이전은 허구와 왜곡이 극심하다. 그는 원래부터 共產主義者가 아니었을 뿐 만 아니라, 朝共과도 中共과도 거의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해방후 「타고난 共產主義者」로 행세하여야 비로소 행세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주위에는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기라성같이 널려있었던 것이다.

略傳 52는 첫 傳記였는데 여기서 김일성은 청소년시절의 자기를 「철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며 「불굴의 共產鬪士」로 僞裝하였다.

특히 그가 共產青年 東滿特別區秘書로 假裝한 것은 가관이다. 1930년까지 그는 東滿에는 있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東滿이 아니라 南滿에 있었고 共產主義와 對決하는 反共青年이었다. 그는 共靑秘書란 先任的 위치에 있을 만한 人物이 아니라 南韓靑總의 同盟員에 지나지 않았다.

略傳 52는 反共青年을 共靑指導者로 탈바꿈시킨 公式傳記이다. 그런데 略歷 69에 이르러서는 다시 새로운 김일성을 만들어 내었다. 略歷은 略傳의 주장을 전혀 다르게 번복한 것이다.

略歷에서 김일성은 자신이 1926年, 朝鮮共產主義運動이나 中國共產主義運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打倒帝國主義同盟」(트·디)이란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트·디는 「共產主義的인 組織」으로 그가 獨自的으로 만들었고 「朝鮮革命」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1926年 가을로 트·디가 捏造된 후 이 捏造된 트·디의 후계조직인 「反帝青年同盟」과 「朝鮮共產主義青年同盟」이란 架空組織들이 만들어졌다.

傳記는 이 가공조직들을 김일성이 움직이는 형태로 수없이 「鬭爭」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略傳以後 김일성 傳記는 완전히 픽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가공조직들은 同志 82에 이르자 각각 그 결성날짜까지 정해지게 되었다.

同志에서는 특히 김일성의 命名問題가 상세하게 쓰여지게 되었다. 그가 일찍부터 〈金日成〉이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강조된 것이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진정 普天堡를 습격한 김일성인가의 여부가 여러 학자들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傳記들의 敘述方法의 변천은 이 점을 研究하는데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5. 9.18滿洲事變 前後

略傳52

이 시기는 朝鮮民族解放鬪爭史에 있어서 새 전환기를 열어 놓기 시작한 시기였다.

1925년에 창건된 朝鮮共產黨¹⁾은 민족해방운동의 급속한 발전에 추동력을 주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민폭동들이 폭발되었다.

1928년 元山 勞動者 總罷業, 1930년 釜山 紡織勞動者 罷業, 그 뒤를 이은 新興炭鑛 勞動者들의 罷業, 平壤 勞動者들의 罷業, 端川, 漁大津, 明川, 全北農民暴動과 같은 대중적, 혁명적 진출들이 그 실례들이었다.

그러나 朝鮮共產黨은 그 시기에 일본락탈자들과 또는 그들과 협력한 조선봉건들과 부르주아들을 반대하는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진실로 혁명적이며, 불세워끼적인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일본 경찰들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와 그 당시 共產黨의 核心으로 되었던 소부르주아 인테리들의 동요는 공산당의 대렬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1928년에 朝鮮共產黨으로 하여금 조직적인 역량으로 자기의 존재를 끊기게 하였다.

그러나 견실한 共產主義者들은²⁾ 3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발전을 가지게 된 人民的 民族解放運動의 선두에 계속하여 남아 있었다.

30년대에 이르러 운동의 특징은 투쟁의 낡은 형태, 즉 소극적형태로부터 새

1) 여기서는 朴憲永등이 創立한 朝鮮共產黨의 役割을 일단은 인정하고 있다.

2) 여기서는 金日成과 같은 抗日빨치산 參加者들, 즉 中共東滿黨出身者들을 暗示하고 있다.

로운 적극적 형태, 무장빨찌산투쟁의 형태로³⁾ 넘어간 것이다. 해내 해외의 많은 지방들에서 건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 로동자들과 농민들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항일빨찌산 대열이 결성되었다. 이 빨찌산투쟁의 선두에는 김일성 장군이⁴⁾서 있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전체 조선인민은 거대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김일성 將軍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略歷69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여름 카룬에 가시어 이곳에서 共靑 및 反帝靑年 同盟指導成員들의 회의를⁵⁾ 소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⁶⁾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격은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革命이라는 것을 천명하시고 그 동력과 대상

3) 韓民族의 武裝鬭爭은 韓日合併前後의 義兵鬭爭, 1920年代 民族主義團體들의 武裝鬭爭, 1930年代 朝鮮革命軍등의 武裝鬭爭, 1940年代 光復軍의 武裝鬭爭 등 다양하다. 이러한 武裝鬭爭을 1920年代까지와 30年代 이후로 나누어 20年代까지는 消極的形態의 鬭爭이라고 規定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武裝빨치산鬭爭이란 김일성이 中共遊擊隊에 들어가서 한 非民族的이며 非主體的인 투쟁을 말한다. 그들은 朝鮮이 아니라 中國을 위하여 싸웠다.

4) 김일성은 中共系抗日빨치산鬭爭에는 34년에 뒤늦게 참가하였다(評傳(續)389面以下)그리고 「김일성장군」이란 해방후 생긴 呼稱이다.

5) 김일성은 1930年 여름에는 少年探險隊(少年團)지도자였을 뿐이다. 그러한 김일성으로는 카룬會議를 소집할 能力이 있을 수 없었다. 실지로 그러한 會議도 존재하지 않았다(評傳 281面以下)

6) 카룬地方에는 李鍾洛이란 國民府의 朝鮮革命軍을 脫退한 人物이 있었다. 그가 김일성을 脫退派 朝鮮革命軍에 입대시켰다. 따라서 이무렵 그 어떤 「路線과 方針」을 제시한 人物이 있었다면 그는 김일성이 아니라 李鍾洛이었다.(評傳 329以下)

에 대하여 과학적인 규정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反帝反封建民主主義에 있어서 기본동력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소자산계급이며 민족부르조아지와도 연합할 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의 대상은 일본제국주의 및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라고 밝히시고 우리의 혁명과업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며 우리나라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무장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 -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다.⁷⁾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독창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천명하시였을뿐만 아니라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조선인민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조직동원할데 대한 반일 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다.⁸⁾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朝鮮共產黨 創建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⁹⁾

당시 종파분자들은 《령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黨創

7) 抗日武裝鬭爭路線은 中共의 路線이다. 李鍾洛은 마르크스-레닌主義는 몰랐으나 권층을 많이 가진 暴力輩였다. 김일성은 이 暴力輩의 手下가 된 것을 이렇게 외곡하였다(評傳 315面以下)

8) 中共의 反日民族統一戰線路線은 1933年 1月の 中共中央의 書翰이 發表된 이후이다. 김일성이 「카룬會議」를 주장하고 있는 1930년에는 그러한 發想自體가 없었다(評傳(續) 204面以下).

9) 1928年 朝鮮共產黨이 組織으로서의 존재를 끝마친 이후, ML派, 火曜派, 서울上海派등이 再建運動을 벌리고 있었으나 1930年 김일성은 이러한 運動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그는 30年 6月 무렵 그저 민족주의계통이었던 카룬의 進明學校 少年團지도원이었을 뿐이었다(評傳 344面以下).

建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가끔 《당재건》간판을 내걸고 당을 창건한다고 서둘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분자들의 이러한 채동을 극복하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충분히 갖춘 기초우에서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를 위해서는 투쟁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 출신의 정수분자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우고 그 대렬을 확대하여 黨創建을 위한 조직적 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종파주의자와 左右傾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이께서는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政治事業을 강화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워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朝鮮共產黨을 창건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당시의 혁명정세와 1920년 대 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분석총화하시고 혁명적 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고 발전시킨 현명한 방침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여름 伊通縣孤榆樹에서 共靑 및 反帝靑年同盟의 핵심들로서 朝鮮革命軍을 결성하시었다¹⁰⁾

朝鮮革命軍은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이었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朝鮮革命軍의 결성은 무장대오의 핵심적 골간의 육성과 정치 및 군사적 준비 그리고 광범한 반일 애국력량의 결속을 통한 대중적지반

10) 國民府脫退派 朝鮮革命軍을 結成한 것은 李鍾洛이었다.(評傳 337面以下)

의 축성 등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갖추에 있어서와 抗日遊擊隊를 창건함에 있어서 거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정확한 조치였다.

이 시기부터 동지들과 혁명군중은 그이를 김일성동지라고 부르게 되었다¹¹⁾ (이전까지는 김성주동지로 불려왔음). 처음에는 조선인민을 어둠속에서 해방의 새벽길로 이끄시는 새별이 되어달라는 뜻에서 《한 일》자와 《별 성》자를 쓰는 일성(一星)동지 또는 한별동지라고 불려오다가 것처럼 위대한 민족의 령도자를 어찌 새별에다만 비기라 하여 조선의 밝은 태양이 되어달라는 념원에서 다시 《날 일》자와 《이룰 성》자를 쓰는 일성(日成)동지로 고쳐부르게 되었다.¹²⁾

同志8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고부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였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역사적인 카툰會議에서 主體思想의 原理를 천명하시고 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방침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主體思想을 創始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11) 1930年 9月 김일성이 李鍾洛의 朝鮮革命軍 군인으로서 長春西郊인 懷德縣五家子에 배치된 이후 그곳에 있었던 三成學校 敎員 崔衡宇가 그에게 一星이란 別號를 지어주었다. 이것이 金一星이란 이름의 시초이다(李命英著, 「四人의 金日成」 265面)

12) 金日成은 金一星과 別個人物이다. 金日成은 普天堡를 襲擊한 人物인데 第6師長이였으며 그후 死亡하였다.(評傳(續) 407面以下) 金一星이 金日成을 詐稱하게된 것은 1930年代 後半부터인 것으로 추측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 후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하고 험난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초 간고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몸소 키우신 참신한 세세대의 청년공산주의 핵심들로 우리나라에서의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묶으시였으며¹³⁾ 이를 모체로 하여 각지에 기층 당조직을 내오고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여 그것을 확대해나가지였다. 주체형의 첫 당조직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 주체형의 당조직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당조직을 내오신후 1930년 7월6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 무장조직인 朝鮮革命軍을 結成하시고 그의 정치군사활동을 조직 지도하시면서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여 나가시였다.

解說

1930年 5月 김일성이 간 長春縣카륜에는 吉林省城西北에 있는 約30戶가량의 韓人農村이 있었다. 賈家屯이라는 이 곳은 4年制의 進明學校가 있어서 約30名의 生徒가 공부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이 學校의 校長 李成林 밑에서 少年探險隊를 指導하였다.

이 카륜賈家屯과 長春西郊에 있는 伊通縣孤榆樹란 約300戶의 韓人農村에서는 28年부터 李鍾洛이 樂山일꾼組合을 만들고 그 勢力을 扶植하고 있었다. 李鍾洛은 國民府系統이며 南韓靑總幹部였으나 一種의 暴力輩였다.

그는 1929년에는 國民府의 軍隊에서 小隊長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해 12月,

13) 「주체적인 첫 당조직」이란 共產黨을 김일성이 스스로 創建하였다고 捏造하기 위하여 1982년에 만들어진 表現이다.(評傳 304 面以下)

이 軍隊가 朝鮮革命軍이란 名稱으로 바꾸어졌을 무렵부터 國民府에 不滿을 품고 1930年 4월에 朝鮮革命軍을 脫退하였다. 탈퇴당시 그는 拳銃20자루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靑年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다.

李鍾洛은 1930年 7月初 김일성을 그의 근거지인 孤榆樹에 불러서 國民府脫退派 朝鮮革命軍에 參士로 入隊시켰다. 9월에 李鍾洛은 이 脫退派 朝鮮革命軍의 名稱을 朝鮮革命軍 吉江指揮部라 바꾸고 長春西郊인 懷德縣五家子로 進出하였다. 五家子는 약 300戶가량의 韓人農村이었는데 李鍾洛은 김일성을 여기에 朝鮮革命軍人으로 配置한 것이다.

김일성은 五家子에서 拳銃을 휘두르면서 農民을 收奪하였다. 그런데 이곳에는 三成學校가 있어서 崔衡宇가 敎員을 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崔衡宇로부터 一星이란 別號를 얻게 되었는데 그후 그는 金一星으로 行世하였다.

1930年 11月中旬 金一星은 李鍾洛의 命令에 따라 北滿韓人總聯合會의 首領 鄭信을 拉致하고 그를 連行하는 途中에 목졸라 죽였다. 李鍾洛은 鄭信을 拉致하여 오라는 命令만 내렸지 그를 絞殺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殺人으로 中日官憲에게 체포당할 것은 두려워한 李鍾洛은 吉林근방에서 鐵路로 하르빈으로 도주하였다. 그는 거기서 朝鮮革命軍 吉江指揮部를 朝鮮革命軍司令部로 改稱하고 延命하려다 31年 1月 日本警察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李鍾洛의 朝鮮革命軍은 끝장이 난 것이다.

한편 鄭信을 絞殺한 김일성은 五家子에서 逃避해 있다가 31年 1月 李鍾洛이 체포되자 하르빈으로 갔다. 그는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南下하여 撫松縣으로 내려갔다.

撫松縣城은 30年初 김일성이 國民府系統의 새날少年同盟을 組織한 곳이었

고, 또 父親이 26년에 死亡하였던 곳 이므로 거기에는 그의 親知들도 있었다. 마침내 그는 舊새날少年同盟員들을 끌어모아 여기서 武裝作黨노릇을 하기 시작하였다.

馬賊과 같은 非行을 김일성이 하고 있다는 소문이 南滿의 國民府에 알려지자 通化縣에 있었던 梁世奉은 朝鮮革命軍의 高東雷小隊 10名을 撫松에 派遣하여 김일성을 懲戒토록 하였다. 高東雷小隊는 32年初 撫松縣城에 到着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高東雷小隊를 襲擊하여 全滅시켰다. 김일성 그루옴은 高東雷등의 拳銃을 빼앗아서 安圖로 도망 하였다. 김일성 自身은 安圖縣富爾河(푸르허)로 가서 거기에서 1個月半 潛伏하고 있었다.

滿洲事變前後의 김일성의 行跡은 이상과 같다. 그는 이 기간 共產主義者는 아니었다.

略傳52는 마르크스主義者가 아니었던 김일성을 「견실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여 김일성 一黨이 30年代부터 抗日遊擊隊를 이끌고 싸웠다고 쓰고 있다.

略傳은 여기에서 두가지 重大한 外곡을 하고 있다. 하나는 中共東滿 및 南滿黨이 영도한 항일무장투쟁을 마치 韓人共產主義者들이 영도한 것 같이 外곡하여 그 「先頭」에 김일성을 앉힌 일이다.

외곡의 또 하나는 普天堡襲擊 金日成의 이름을 복한 김일성이 盜用한 것이다. 그는 별호가 金一星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말로 「김일성」이라고 읽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普天堡戰鬪 후 金日成인 것 같이 行세하였다. (「金日成의 秘書室長」, 1989, 고봉기, 천마刊, 12面)

略歷69는 이러한 外곡에 토대하여 國民府를 탈퇴한 脫退派 朝鮮革命軍을

거느리고 있었던 李鍾洛의 行實을 김일성 자신이 한 것으로 다시 외곡하였다.

李鍾洛이나 김일성은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몰랐는데 略歷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의 입장에서 「조선혁명」의 戰略과 戰術을 창작하게 하고 있다. 「조선혁명의 동력과 대상」 설정, 항일무장투쟁로선, 反日民族統一戰線路線, 朝鮮共產黨 創建路線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路線들은 전부 中共이나 朝共再建派의 路線을 가로채서 새롭게 창작한 날조물인 것이다.

김일성은 李鍾洛이 만든 脫退派朝鮮革命軍까지 자기가 結成하였다고 외곡하였다.

同志82는 이러한 날조물들이 「主體思想」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다시 외곡하였다.

그런데 30年 당시 김일성이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는 말은 그 당시 그가 마르크스主義者도 民族主義者도 아닌 단순한 暴力輩에 불과하였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그는 1930年 11月 民族主義者 鄭信을 殺害한 테러리스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6. 金日成이 한 抗日武裝鬭爭「構想」

略傳52

이 시기는 強盜的 일본 제국주의가 中國東北에 무력침범을 개시하던 시기였다. 1931년 9월 18일 日本帝國主義 掠奪者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中國東北에 야수적 무력 침범을 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쓰딸린大元帥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中國에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손으로 일으킨 ‘地方的 突發事件’을 교활하게 리용하여 강도와 같이 滿洲에 군대를 침입시켰다. 日本軍隊는 滿洲를 완전히 점령하고 동시에 北中國의 점령과 朝鮮에 대한 공격의 유리한 진지를 정비하였다... 이리하여 極東에서는 파시스트化한 日本帝國主義者들 때문에 戰爭의 第一發源地가 이루어졌다. (쓰딸린 「朝鮮 공산당 (불쇄위끼) 략사」, 모스크바版, 478-479페이지)

日帝의 東北侵犯과 함께 東北各地에서는 일제의 무력침범을 반대하는 대중적 반일운동이 폭발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김일성 장군은 토동자, 농민을 핵심으로¹⁾한 각계각층 반일력량을 규합하여 朝中兩國人民의 공동의 적, 일본 제국주의 략탈자들을 반대하여 양국인민의 전투적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양양된 대중적 반일운동의 력량을 武裝鬭爭으로 조직 동원하여야 되리라는 것을 각오하고, 당시 東北一帶에서 전개된 광범한 대중들의 반일폭동들을 革命鬭爭의 최고형태인 武裝

1) 滿洲事變 後 김일성은 撫松의 韓人少年들을 규합하여 武裝作黨노릇을 하였을 뿐으로 勞動者, 農民을 규합한 일은 전혀 없었다.

鬪爭에²⁾ 조직하는 일을 령도하였다.

略歷69

김일성동지께서는 1931년초에 지리적으로 보나 주민구성으로 보아 유리한 조건을 갖춘 豆滿江沿岸一帶를 중심으로 하여 武裝鬪爭을 조직전개할것을 계획하시고 활동무대를³⁾이 지대로 옮기시었다.

1931년 9월에 日帝는 드디어 滿洲를 침공하였으며 저들의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인민 특히는 혁명력량에 대한 반동공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朝鮮革命軍을 결성하시고 그 활동을 지도하신 경험과 무장투쟁의 준비사업에서 이룩하신 성과에 기초하여 1931년 11월 明月溝會議⁴⁾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전개할데 대한 구체적인 方針을 제시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遊擊戰을 抗日武裝鬪爭의 基本形式으로 규정하시고⁵⁾ 常備的인 革命武力인 抗日遊擊隊를 창건할 것을 명시하시었다.

同志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수 있는 준비사업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서고 있던

2) 김일성의 武裝作黨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立脚한 革命鬪爭이 아니었다 (權力の 歷史 306面以下).

3) 김일성이 豆滿江沿岸이라 할 수 있는 安圖縣에서 본격적으로 活動한 것은 1932年初이다(評傳(續) 103面以下).

4) 1931年 11月の 延吉縣明月溝會議는 中共東滿特委書記 童長榮이 指導하였는데 당시 中共黨員이 아니었던 김일성은 여기에 參加할 自格이 없었다(評傳(續) 39面以下).

5) 抗日武裝鬪爭의 基本形式을 遊擊戰으로 定한 것은 中共이었다. 김일성은 당시 拳銃을 몇자루 가지고 주로 中國人 地主들을 털고 있었을 뿐이었다 (評傳 315面以下).

1931년 9월, 일제는 中國東北地方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1931년 12월 明月溝會議⁶⁾를 소집하시고 력사적인 연설 《일제를 반대하는 武裝鬪爭을 조직전개할 데 대하여》에서⁷⁾ 이미 제시하신 로선에 따라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시급히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敎示하시였다.

《……遊擊戰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武裝鬪爭을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遊擊戰은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도 적에게 커다란 政治 軍事的 打擊을 줄 수 있고,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능히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을 소멸할 수 있는 무장투쟁 방법입니다.》(《김일성 저작집》 1권 31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遊擊戰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방침은 植民地 民族解放運動의 주되는 투쟁형식을 새롭게 규정한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解說

北韓 김일성은 中共滿洲省委가 滿洲事變後 展開한 全滿의 中共系抗日武裝鬪爭과는 1934년까지 거의 關係가 없었다. 따라서 그의 抗日武裝鬪爭은 滿洲事變後는 당분간 反滿抗日軍의 그것이었다.

略傳52는 이러한 事實를 외곡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者인 김일성이 「노동자, 농민」을 규합하여 日帝를 반대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 또 略歷69는 이무

6) 1931년 겨울에 있었던 中共東滿黨의 明月溝會議는 陽曆으로는 12月, 陰曆으로는 11月로 된다.

7) 이 演說은 1931년 12月이 아니라 1972년에 날조된 御用學者들의 創作物에 지나지 않는다(評傳(續)322面)

련의 中共의 業績들을 절취하여 中共東滿特委의 武裝鬪爭路線 策定을 김일성의 「業績」으로 돌리고 중공의 遊擊戰術마저 김일성이 책정한 것으로 하였다.

同志 82는 이렇게 하여 날조한 「武裝鬪爭」을 위하여 일부러 만들어낸 「김일성의 明月溝演說」까지 「引用」하게 되었다.

7. 「抗日遊擊隊」組織

略傳52

김일성 장군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노동자, 농민, 선진애국청년들로 많지 못한 武裝遊擊隊의 첫 대오를 결성하고¹⁾ 그를 통솔하여 日帝軍隊와 警察들과 도처에서 과감한 奇襲作戰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투들에서 김일성 장군은 언제나 대오의 선두에 서서 자기의 영웅성과 용감성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 헌신성의 모범으로 자기 부대를 승리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東北一帶와 국내도처에 점점 더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국내 국외에 존재하였던 개별적 무장부대와 애국투사들과 先進靑年들은 장군의 주위에 점점 더 광범히 집결되어 빨찌산部隊의 대오를²⁾ 강화하였다.

장군은 매일같이 자기 부대를 통솔하고 도처에서 적에 대한 奇襲作戰을 실시함으로써 적들의 技術器材와 有生力量에 막대한 損失을 주었으며 적들의 무기를 로획하여³⁾ 확대하여 가는 자기 부대를 무장시켰다.

- 1) 御用傳記作家들은 1952年 무렵에는 김일성武裝隊란것이 어떤것이였는지 名稱이 무엇이였는지 조차 알지 못하여 애매한 表現을 하고 있다.
- 2) 東北一帶의 武裝隊伍들은 中共滿洲省委가 形成하여 간 中共遊擊隊 두리에 뭉쳐져 나갔다. 中共部隊가 아니었던 김일성部隊 두리에 뭉친 것은 아니었다.(評傳(續) 57面以下)
- 3) 武器奪取鬭爭도 中共의 鬭爭이였다(評傳(續) 69面以下)

계속 부단한 戰鬪行程에서 부대는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단결되었으며, 군사적으로 조직되고 훈련되었다. 그리하여 부대의 전투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共産黨員은 김일성 장군의 항일빨찌산부대의 核心으로 되었으며, 각 부대에는 黨團體들과 共靑團體들이 조직되어 부대의 강철 같은 군사 규율과 매개 빨찌산들의 애국주의와 전투력을 제고시킴에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들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았으며, 대중과 긴밀한 관계 하에서 자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중과의 긴밀한 관계는⁴⁾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력량의 원천으로 되었으며 不敗의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

김일성 장군은 광범한 인민 대중속에 「反帝同盟」, 「靑年義勇軍」, 「農民協會」, 「農民自衛隊」, 「婦女團體」, 「生産遊擊隊」, 「反日會」등 광범한 輪廓團體들을⁵⁾ 조직하고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항일빨찌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령도 하에서 도처에서 과감하게 전개되는 빨찌산 투쟁의 장성에 놀란 日本帝國主義者들은 야수적 탄압 정책과 소위 「討伐作戰」으로써 빨찌산 운동을 진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일방으로는 대병력을 집중하여 전반적 「討伐作戰」을 실시하며, 타방으로는 국내 도처에 警察網들과 探偵網들을 분포하여 김일성 장군과 관계를 가진 국내의 비밀단체들과 인사들을 탐색체포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이 외에도 악독한 日本帝國主義者들은 김일성 장군의 武裝部隊를 외부로, 내부로 와해시키기 위하여 도처에서 그의 歸順工作을 실시하며, 간첩들을 부

4) 中共遊擊隊는 韓人農民을 大衆의지반으로 하여 成長하였다(評傳(續) 46面以下)

5) 中共組織은 韓人農民들 속에 뿌리박았다(上揭書, 46面以下)

대에 파견하며, 타방으로는 김일성 장군을 체포하기 위하여 전국 각처와 동북 일대에 배라와 宣布文을 비행기로 散布하며, 막대한 금액을 소위 懸賞金으로 내거는 비렬한 방법까지도 적용하였다.

그러나 발악에 넘친 적들의 각종 수단과 방법들도 광범한 인민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인민대중의 지지와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부대 내에서 강력한 黨政治事業으로 훈련되고 부단한 戰鬪行程에서 단련된 김일성 장군의 빨찌산 부대의 강철같은 대오를 와해시키지 못하였다.

略歷69

김일성동지께서는 明月溝會議후 우선 조선혁명운동의 주도적력량으로 될 항일 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시였다.

항일유격대오를 조직하며 그 활동을 개시하기까지는 처음부터 많은 난관이 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주권도 없고 민족군대의 토대도 없으며 온 나라가 일제의 폭압망으로 뒤덮히고 적들의 野獸的 彈壓이 감행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무장대오를 편성하며 무기를 갖추는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사람에 대한 反日部隊의 적대적행동이 또한 엄중한 장애로 되였다...

항일유격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하여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군중들에 대한 反日部隊들의 적대적행동을 저지시키고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정황에서 오직 혁명을 위하여 한 몸의 위협을 무릅쓰시고 反日部隊司令部와 직접 담판하심으로써 완고한 反共思想과 민족배타주의

사상에⁶⁾물젓어 포악한 행동을 하고 있던 그들을 인내성있게 설복하시어 마침내 反日共同鬪爭을 전개하는데 성공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닥치는 온갖 장애를 물리치시고 1932년 4월 25일 장기간에 걸쳐 육성하신 朝鮮革命軍 성원들과 共靑 및 反帝靑年同盟員들을 핵심적 골간으로 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무력인 抗日遊擊隊를 창건하시였다.⁷⁾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 전개하심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반일 민족통일전선운동, 조선공산당 창건을 위한 사업 등 전반적 조선혁명을 강력히 발전시킬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의 근본적 리익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 숙망을 전면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민족해방의 과업과 사회혁명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위대한 투쟁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을...거족적인 反日抗爭으로 불러일으켰다.

同志82

明月溝會議를 계기로 우리나라 반일 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인 무장투쟁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明月溝會議후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 전개하시어, 1932년 4월25일 조선인민의

6) 中共系統이 아니었던 김일성 그루웁은 1932年5月 安圖縣救國軍의 副司令을 만나 거기에 入隊할 것을 지원했으나 거부당하였다(上揭書, 113面以下)

7) 1932年 4月무렵 김일성은 高東雷小隊 暗殺犯人들로 구성된 그루웁을 형성하여 安圖縣 小沙河에 있었다. 이 그루웁은 安圖의 反日部隊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共產主義는 信捧하지 않고 있었다. (上揭書, 113面以下)

첫 주체적 혁명무력인 反日人民遊擊隊를⁸⁾ 창건하시였다. 反日人民遊擊隊가 창건됨으로써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류인 무장투쟁을 직접 담당하고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당창건준비사업과 反日民族統一戰線運動을 비롯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힘차게 추진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⁹⁾

반대한 군사적 및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포악한 일제를 반대하여 우리 인민이 벌린 抗日武裝鬭爭은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혁명적 전개력, 숭고한 인품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조직 전개될 수 있는 영웅적인 투쟁이었다.

혁명적 군중의 지지성원밖에는 아무런 국가적후방도 正規軍의 支援도 없는 엄혹한 조건에서 포악한 일제침략자들과 맞서싸워야 하였던 항일무장투쟁의 앞길에는 처음부터 난관이 겹쌓였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많은 시련의 고비들과 혈로들을 헤치시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지었다.

解說

撫松에서 高東雷小隊 10名을 全滅시킨 後 김일성은 安圖縣富爾河(푸르허)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한달반 가량 潛伏하고 있었다. 그후 32年 3月頃에 그는 그의 동료 數名과 함께 小沙河에 나타났다. 安圖縣 小沙河에는 그의 모친 康盤石이 있었는데 모친의 家藏什物을 팔아가면서 小그룹을 지령하고 있는 형편이

8) 김일성이 形成한 小그룹에 「反日人民遊擊隊」라는 隊名이 지어진 것은 32年의 東滿에서 아니라 1980年代이후의 平壤에서이다(上揭書 69面以下).

9) 朝鮮共產黨再建運動은 1930年에 終息되어 있었다. 또 中共의 反日民族統一戰線運動은 1933年初부터 진지하게 追求되기 시작하였다. 1932年에 이런 「運動」을 設定한 것은 하나의 歪曲으로된다. 김일성은 당시 朝鮮革命을 念頭に 둔 立場에서 있지 않았었다.

었다.

당시 小沙河의 北쪽 大醬江에는 中共安圖縣區委員會가 있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그쪽에는 간 흔적이 없다. 그와 반대로 김일성은 南쪽 安圖縣城에 있었던 中國人 反日部隊 于司令을 찾아가서 入隊를 志願하였다. 그러나 于司令은 김일성을 상대도 하지않았다.

略傳52는 이러한 事實을 외곡하여 김일성이 마치 공산유격대를 결성한 것 같이 만들어놓고 갖가지 날조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重複을 피하여 인용하지 않았으나 略歷69는 反日部隊의 存在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자기가 人隊를 지원한 于司令部隊를 두고 그가 이 部隊에게 「反日共同鬪爭」을 하자고 제의한 것 같이 외곡하였다. 김일성의 그루움은 「反日遊擊隊」라 할만한 隊伍는 아니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傳記에서 그렇게 이름짓고 1932年 4月 25日에 이 隊伍가 결성되었다고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름짓고 날짜를 조작한 것은 中共遊擊隊의 實績을 本格的으로 가로채기 위한 책동의 一環이었다.

同志82는 이 김일성그루움을 「反日人民遊擊隊」라고 改稱하고있다. 이번에는 자기 隊伍가 마르크스·레닌主義 軍대가 아니라 「主體的」인 軍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略歷69를 다시 외곡한 것이다. 이 일은 과거 그가 마르크스·레닌主義的 그루움을 거느리고 있지 않았던 過去를 어느정도 실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8. 遊擊根據地

略傳52

1932년에 이르러 장군의 유격부대는 계속하여 더욱 장성 강화되었으며 長白山脈 일대와 松花江 일대에 遊擊根據地—解放地區¹⁾를 창설 확대하는 빨찌산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것은 유격대의 대오를 강화하며, 遊擊運動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함에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거지가 없이 각지에 流動하면서 각지에 散在하며 잡다하게 분산되어 소규모적으로 반일 투쟁을 전개하던 小部隊들과 애국적 혁명분자들은 김일성 장군의 遊擊地區²⁾를 찾아 集結하였다.

이 외에도 유격지구의 창설은 혁명적 군중을 무장으로 훈련하며 수 많은 군사 정치 간부들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양성하며 활동하는 유격부대들에 강고한 후방을 보장하여 주며, 전투에서 피곤한 부대들을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휴식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지어 주었다.

유격지구의 土地는 농민들에게 無償으로 分配되었으며, 政權도 인민의 손으로 건립되었다. 유격지구들에는 學校, 病院, 通信機關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복창과 무기수리공장, 폭발탄, 탄환 및 기타 爆發物製造所들이 있었다.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 속에서 出處를 알지 못하여 화제거리로 되어 있었던 유명한 「延吉爆彈」³⁾이 바로 이 遊擊根據地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1) 遊擊根據地 創設은 김일성이 아니라 中共滿洲省委의 業績이다.(評傳(續) 181面以下).

2) 「김일성장군의 유격지구」란 1934年 8月까지는 없었다(上揭書 389面).

3) 延吉爆彈은 1932年 中공 和龍縣遊擊隊에서 발명된 다이내마이트爆彈이다. 이 爆彈의 製造와 김일성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었다.

略傳69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후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의 발전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문제의 하나인 遊擊根據地를 창설하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敵我間의 力量關係와 무장투쟁의 모든 조건들을 타산하신데 기초하여 조선의 北部國境一帶인 豆滿江沿岸一帶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할 방침⁴⁾을 제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혁명군중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전투를 진행하여 인민탄압에 발광하는 적들을 제압하면서 근거지를 창설하여나갔다. 그리하여 불과 몇달동안에 두만강 연안 일대에는 적들의 통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광대한 解放地區가 형성되였다. 여기에는 일제의 파썸적탄압에 항거하여 나선 로동자, 농민, 선진적인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집결되였다.

창설된 유격근거지들에서는 그를 확대강화하매 낡은 통치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革命的 秩序를 확립하는 투쟁이 전개되였다.

또한 事大主義와 教條主義에 물젖은 宗派分子들과 左傾機會主義者들은 우리나라 혁명의 성격과 당면한 과업을 무시하고 근거지내에 썬베트形態의 정권을 세울것을 고집하면서 당장 사회주의적시책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遊擊根據地內에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宗派分子들과 事大主義者들이 자주적인 립장을 잃어버리

4) 이러한 方針은 中共中央의 1933年1月書翰에 基礎한 東滿特委의 方針이었다.(上揭書 39面以下).

고 남이 쏘베트政權을 수립한다고 하여 그것을 통채로 따다가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는 教條主義的, 左傾機會主義的 策動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시고 조선혁명의 反帝反封建 民主主義的 性格과 民族解放의 당면임무에 가장 알맞는 독창적인 人民革命政府路線을 천명하시었다...⁵⁾

인민혁명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勞農同盟에 기초하여 모든 反帝反封建的 階層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한 정권으로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社會的 解放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권형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정확한 人民革命政府路線을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떨쳐나선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쏘베트形態의 정권을 세울것을 고집하던 左傾的偏向은 철저히 극복되고 完全遊擊根據地에는 人民革命政府가 수립되였다...⁵⁾

同志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遊擊隊伍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확대강화하시는 한편 두만강연안의 넓은지역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주체적인 人民政權 建設路線에 기초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였으며 諸般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실시하시였다. 유격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반일인민유격대의 軍事戰略基地, 後方基地가 튼튼히 마련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擔保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5) 김일성은 1933年 당시 소비에트形態의 政權을 人民革命政府로 바꾸는 것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反滿抗日軍이었다.

解説

김일성은 1932年 4月 25日 「反日人民遊擊隊」를 창건하였다고 傳記들에서 宣傳하고 있다.

그러나 32年初 撫松에서 高東雷小隊 慘殺事件을 일으킨 김일성은 警察의 추적을 뿌리치고 安圖縣富爾河에 가서 숨었다가 32年 3月頃 安圖縣小沙河에 나타났다. 그곳에는 그의 母親 康盤石이 살고 있었다.

김일성은 수명의 공범자와 여기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행동하는 潛伏生活을 하고 있었는데 5월에 마침 형성되어 가던 安圖縣救國軍을 찾아 安圖縣城으로 갔다. 거기서 于司令을 만나 이 救國軍에 入隊할 것을 신청하였지만 中國人들은 數名 김일성 그루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小沙河에 물러간 김일성패들은 드디어 南滿通化에 있는 梁世奉의 朝鮮革命軍에 항복하러 갔다. 6월에 그들은 梁世奉을 만나 그 軍門에 항복하고 軍務에 從事하고 있었으나 다시 여기서 도망하여 柳河, 濛江을 헤매다가 9월에 安圖縣兩江口로 돌아왔다.

于司令의 安圖縣救國軍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던 王德林救國軍의 前方司令 吳義成은 당시 寧安縣에 있었다. 김일성은 그를 찾아 10월에 兩江口를 떠나 寧安으로 갔다.

吳義成은 11월에 汪清縣羅子溝로 이동하였으므로 김일성 그루움은 또 寧安縣으로부터 汪清縣北部地方으로 옮겼다. 그들은 吳義成과 만나 王德林救國軍에 入隊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33年 1月 日帝의 間島派遣隊가 汪清地方의 反滿抗日軍을 소탕하는 바람에 吳義成救國軍은 寧安方面으로 도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탓으로

金日成그루옵은 이번에도 吳義成을 만나지 못하고 東寧縣老黑山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그후 그는 老黑山에 숨어 있었다가 다시 汪清縣北으로 되돌아 왔다. 거기서 김일성은 곧 縣南 豆滿江 北岸에 있는 涼水泉子 근방으로 移動하여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 1933年 4月 4日 그들은 그곳 馬賊 老來好와 涼水泉子를 襲擊하고 있다.

이상의 행적을 보면 김일성은 32년부터 33年 前半까지 중공의 遊擊根據地에는 발을 붙이지 않고 중공과 사상이 다른 朝鮮革命軍이나 中國人救國軍을 찾아 다녔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資本主義 軍隊에 정착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당분간 정치없이 東滿과 南滿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만 하였다.

遊擊根據地를 만들고 거기를 據點삼아 30年代前半까지 日滿軍警과 抗日武裝鬪爭을 벌인 것은 中共東滿特委傘下의 中共組織이었다. 그들이 활동하고 있던 北間道에는 韓人農民이 80%정도 있었고, 이 농민들은 中日官憲과 地主, 高利貸의 2중3중의 착취와 압박으로 1930年代初에는 적색군중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北間道の 山間僻地에 遊擊根據地를 마련하였는데 中共東滿特委는 여기에 소비트政權을 세우고 遊擊隊를 주둔시켜 日滿軍警과 싸웠다.

人民革命政府는 中共東滿特委가 中共中央의 1933年 1月 書翰의 정신에 따라 형성하여 나간 것으로 소비트政權이나 人民革命政府는 당시 中共隊員도 아니었던 김일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略傳52는 김일성이 중공의 遊擊根據地 創設 業績을 자신이 한 것으로 외곡하였는데 「長白山脈一帶와 松花江一帶」라고 마치 全滿洲에 걸쳐 김일성의 유

격근거지가 건설되어 나간 것 같이 꾸몄다.

1933年 무렵 김일성은 反日部隊의 一支隊로서 豆滿江沿岸인 涼水泉子부근에 10명전후의 隊員을 거느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과장은 略歷69에서 약간 시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人民革命政府路線」을 설명하면서 「宗派分子」, 「事大主義者」를 비판하여 해방후 北韓政權 유지과정에서 생긴 종파숙청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同志82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反日人民遊擊隊」의 업적 같이 꾸며 한층 더 허황한 小說로 만들고 있다.

9. 遊擊鬭爭—1930年代 前半

略傳

1933년 봄에 각 유격근거지와 해방지구들에는 朝中兩國 인민의 혁명적 地方主權機關들이 수립되었는바 이 주권기관들은 軍政聯合으로 行政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김일성 장군의 빨찌산 투쟁은 벌써 大聯合部隊¹⁾로 장성 강화되어 도처에서 성과적 전투를 이룩하였다.

1934년에 이르러 김일성 장군은 東滿反日遊擊隊와 南滿反日遊擊隊를 통합하여 朝鮮人民革命軍을²⁾ 창설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35년 5월 5일에는 反日民族統一戰線體인 「祖國光復會」³⁾를 조직하고 그의 회장으로 추천되었다.

이 일련의 조치들은 정치적으로는 朝中兩國 인민 간의 統一戰線을 강화하며, 反日武裝鬭爭을 대중운동과 결합시키며, 군사적으로는 분산된 소규모적 투쟁 형태로부터 기동적인 대규모적 투쟁 형태에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우리 民族解放鬭爭史에 있어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事變들이었다.

1) 1933년에 형성된 「大聯合部隊」란 中共東滿特委가 領導하는 中國工農紅軍第32軍東滿遊擊隊로서 北間島의 延吉, 和龍, 汪清, 琿春4縣의 抗日遊擊隊가 聯合한 部隊란 것이 實狀이다(評傳(續) 57面以下) 김일성은 이 遊擊隊와는 관계가 없었다.

2) 1934년 3月 中共東滿遊擊隊는 東北人民革命軍第二軍獨立師가 되었다.

1934년에 東滿과 南滿의 中共遊擊隊가 統合된 일은 없었고 「朝鮮人民革命軍」이 創設된 일도 없었으며 김일성이 東北人民革命軍 第2軍을 創設하는데 관계한 일도 없었다. (上揭書, 255面以下)

3) 中共이 그 傘下團體로 만든 「在滿韓人祖國光復會」는 1936年 6月 10日에 組織되었고 그 發起人은 吳成崙(金光)등 南滿省委에 소속된 韓인들이었다.(現代史資料 30. 日本이 스투스書房刊. 316面)

김일성이 祖國光復會를 만든 일은 없으며 따라서 會長이 된 일도 없었다.

略歷69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청년공작원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⁴⁾ 노동자, 농민, 청년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지 않고 《秘密保障》이란 구실밑에 혁명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左傾的 偏向과, 무원칙하게 혁명조직을 개방하려는 右傾的 偏向 등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비판하시고 혁명조직을 급속히 확대강화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6월 한몫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反日部隊司令部와 共同戰線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담하게 談判을⁵⁾ 진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9월 반일부대들과 연합하여 대규모적인 東寧縣城 戰鬪를⁶⁾ 승리적으로 진행하심으로써 反帝共同戰線路線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시위하였으며, 일제와의 투쟁에서 심히 동요하던 反日部隊들을 고무추동하고 그들과의 共同戰線을 공고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를 반석같이 다지면서 이를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튼튼히 보위하시였으며, 유격근거지를 거점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힘있게 확대 발전시키시였다.

유격대가 조직되어 투쟁을 시작하던 초기만 하여도 유격투쟁에 대하여 그

4) 김일성은 1933년이 아니라 34年 3월에 中共汪清縣委의 共靑과 접촉한 일이 있었다. 그 이후 그는 中共에 더욱 기울어지게 된다.(評傳(續) 202面 以下)

그러나 당시 反滿抗日軍이었던 그는 「革命組職」에 대하여 意見を 낼 처지가 아니었다.

5) 김일성은 1933年 6月이 아니라 이 해 8월에 王德林救國軍의 姜義成과 汪清縣羅子溝에서 만났다. 이때 그는 이 反日部隊에 入隊하기를 원한 모양이지만 吳義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評傳(續) 219面以下)

6) 1933年 9月의 東寧縣城進攻戰鬪에서 김일성은 共同戰線의 一方인 中共遊擊隊쪽이 아니라 다른 一方인 吳義成 系統의 反滿抗日軍쪽에 있었다.(上揭書 235面以下)

누가 내놓은 유격전술이나 누가 써놓은 유격활동의 군사교범⁷⁾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체의 력량을 보존하면서 적을 최대한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유격전의 基本原則으로 삼으시고 적이 집중하여 공격하여 올때에는 유격대는 분산하여 적의 배후를 도처에서 공격하여 소멸하며, 적이 분산되었을 때에는 유격대의 집중된 력량으로 적을 들이쳐 소멸하는 靈活한 戰術을 창조하시여 이를 實戰에 능숙하게 적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4년 3월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抗日遊擊隊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朝鮮人民革命軍⁸⁾ 편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장성강화된 인민혁명군부대들을 지휘하시며 羅子溝戰鬪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都市進攻戰鬪들과 매복, 습격전투 등 수많은 전투들을 진행하심으로써 적들에게 련이어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편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적의 통치구역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시였다. 특히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수많이 파견하시였다.

무장공격과 근거지 봉쇄정책만으로는 항일무장투쟁의 거세찬 불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제는 혁명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재능들이 조작한 《民生團》이라는⁹⁾ 反革命的 間諜團體에 망라된 주구들을 유격근거지에

7) 中共에서는 「東滿遊擊隊 工作大綱」이란 遊擊戰術을 쓴 冊을 벌써 1931년에 내고 있었다. (現代史資料 30. 69面以下). 더욱이 遊擊戰術 자체는 김일성이 創案한 것이 아니라 中共의 戰術이었다.

8) 1934年 3월에 結成된 것은 中共의 東北人民革命軍獨立師였는데, 김일성은 이 獨立師를 「朝鮮人民革命軍」이라고 외곡하고 있다.

9) 民生團은 1932년에 延吉의 日本憲兵隊가 조종하여 만든 反共團體였으나 同年에 解散되었다. 日本憲兵隊는 그후 그 이름만을 계속 利用하여 中共組織에서 間諜活動을 벌이게 하였다.(評傳(續) 299面以下)

잠입시켰다.

일제놈들은 《民生團》을 통하여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을 리간시키며 또 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혁명력량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책동하였으나 작성된 근거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그 초기에 분쇄되었다...

그러나 大國主義者들과 宗派分子들의 左傾機會主義的인 무모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反《民生團》鬭爭은¹⁰⁾ 극좌적으로 진행되어 엄청난 후과를 가져왔다.

혁명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었고 권세와 지위욕에만 눈이 어두웠던 大國主義者들과 宗派分子, 事大主義者들은 일제의 교활한 리간정책에 롱락당하여 反《民生團》투쟁을 극좌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민족해방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저애하였으며,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에 커다란 금이 생기게 하였다...김일성동지께서는...1935년 봄에 다홍왜(大荒歲)회의와¹¹⁾ 腰營溝會議¹²⁾를 소집하시고 大國主義者들과 宗派分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反《民生團》투쟁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左傾排他主義者들과 宗派分子들이 일제의 교활한 민족리간정책에 넘어가서 敵我를 혼동하고 혁명대렬을 파괴하는 참을수 없는 범죄행동을 날카롭게 규탄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력량과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수호하여 완강히 투쟁하시였다.

10) 1932年 9月 中共東滿特委는 日帝의 간첩 民生團을 摘發하였다. 그 이후 中共反民生團 鬭爭이 進行되어 갔으나, 나중에는 日帝의 間諜이 아닌 韓人共產主義者가 무슨 「誤謬」를 범하면 「民生團」이란 딱지를 붙여서 肅清하는 極左冒險主義가 橫行하게 되었다.(上揭書, 307面以下)

11) 大荒歲에서 열린 東滿黨會議에 김일성이 參加한 흔적은 없다(上揭書, 343面以下).

12) 腰營溝會議에 참가한 김일성은 그 本名이 金日成으로 현재 北韓의 김일성(당시 金一星)과는 다른 人物이다 (上揭書 343面以下).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여름 朝鮮人民革命軍 주력부대를 인솔하시고 北滿에 進出하시어¹³⁾ 1936년 1월까지의 기간에 寧安, 額穆一帶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서 大機動作戰을 전개하심으로써 련이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朝鮮人民革命軍의 전투적 위력을 널리 시위하시였다.

同志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구를 공고히 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 가시면서 抗日武裝鬪爭을 국내어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국내에서의 革命運動 發展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여러차례 국내에 진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3년 3월 11일 反日人民遊擊隊의 한 부대를 친솔하시고 함경북도 온성일대에 나오시어 왕재산會議¹⁴⁾ 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어로 확대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國內進出과 력사적인 왕재산會議는 朝鮮革命의 主體를 철저히 세우는데서와, 우리 인민의 反日 民族解放鬪爭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혁명의 主體的 力量을 튼튼히 꾸려나가는 한편 反日聯合戰線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형성하며 그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1933년 6월 羅子溝談判과 1933년 9월 東寧縣城戰鬪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

13) 北滿에 進出한 김일성은 金日成이며 金一星은 아니다.(上揭書, 370面以下)

14) 왕재산 會議는 1972년부터 捏造되기 시작한 가공會議인데 中共東滿特委의 汪清會議의 代替物이다. (上揭書, 211面)

서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反日 聯合戰線路線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 인민유격대가 간고한 武裝鬪爭을 통하여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나게 되자, 1934년 3월 그를 朝鮮人民革命軍으로 개편하시고¹⁵⁾ 근거지방위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면서 습격, 매복 전투를 비롯하여 대소규모의 都市進攻戰鬪 등 수많은 전투와 작전들을 조직 진행하시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抗日武裝鬪爭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은 反《民生團》鬪爭을 악용한 左傾排他主義者들과 宗派事大主義者들의 파괴 암살책동을 짓부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속에서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다홍외會議과 腰營溝會議에서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으로 끌고간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주의자들의 反革命策動을 폭로분쇄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주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의 반일 민족해방운동을 主體의 旗幟따라 보다 더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봄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새로운 정세와 무장투쟁 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격구를 해산하고 인민혁명군 부대들을 朝鮮과 南北滿의 광활한 지대에 진출시키시어 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벌리도록 하시였다.

우리나라 反日 民族解放鬪爭을 전국적 범위에서 일대 양양으로 이끄는 것은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제기되였다.

15) 「朝鮮人民革命軍」이란 中共의 東北人民革命軍 第二軍獨立師를 김일성의 것이라고 歪曲한 것이다(上揭書, 255面以下).

解説

北間島の汪清縣南에 있었던 김일성 그루옴이 中共遊擊隊와 接觸하게 된 것은 그들이 羅子溝에 가서 33年 9월에 吳義成과 만난 후였다. 이때도 吳義成은 김일성 그루옴을 救國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10월에 있었던 東寧縣城進功戰鬪에 김일성 그루옴을 참가시켰다. 이 戰鬪에서는 中共遊擊隊인 汪清遊擊隊와 혼춘遊擊隊 도합 50名정도가 吳義成의 指揮下에 들어서 싸웠다. 이 遊擊隊員들은 거의 韓人이었다.

中共中央은 1933年 1月書翰을 보내어 中共滿洲省委에게 反日民族統一戰線工作으로 非共產主義系統인 反滿抗日軍을 中共軍에 包攝하도록 指示하고 있었다. 中共汪清縣委員會는 이 指示를 6월에 接受하고 反滿抗日軍이나 馬賊과 統一戰線工作을 하고 있었다.

김일성 그루옴은 吳義成救國軍의 주변에 있는 撫松의 舊새날少年同盟員이 核心으로 된 隊伍였다. 이 대오에는 韓人이 압도적이었으므로 中共遊擊隊와 우리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東寧縣城戰鬪後 約10個月의 包攝工作끝에 中共汪清遊擊隊는 드디어 김일성을 中隊長으로 하여 그 그루옴을 包攝하였다. 日本側 記錄은 1934年 8月 이 그루옴을 「合流匪」라 記錄하면서 그들의 中共遊擊隊 入隊를 確認하고 있다.

김일성은 35年 7月에는 혼춘遊擊隊에 소속되어 36年 1月까지 거기에 있었고 그후 北滿으로 올라가 다시 安圖, 撫松方面으로 南下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北韓 김일성(당시 이름 金一星)을 汪清遊擊隊에 包攝한 最高責任者는 「金日成」이었다는 事實이다.

그는 당시 東北人民革命軍 第二軍獨立師의 第三團, 즉 汪清遊擊隊의 政治委員이었다. 이 人物에 대한 기록은 32年 7월부터 보이는데 純全한 韓人中共遊擊隊員으로 그 人名漢字가 「金日成」이라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30年代에 있어서의 北韓 김일성의 행적은 한마디로 共產主義者로 一貫한 행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革命傳統을 위하여 1930年代前半의 김일성을 共產主義者로 탈바꿈시키려면 中共의 業績을 대폭 가로채고 그것을 歪曲, 誇張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東滿의 中共黨과 抗日遊擊隊에 관한 여러가지 行蹟들은 거의 모두 김일성에게 결부시켜 그 業績을 가로채고 있다.

略傳52에서는 1933년에 창설된 中共東滿遊擊隊를 김일성이 창설한 「聯合部隊」로 외곡하였다.

또 1935년에 東北人民革命軍 第一軍(南滿地方)과 第二軍(東滿)의 部隊들이 會同한 사실을 외곡하여 이것을 34년에 있었던 일처럼 변조하고 「朝鮮人民革命軍」을 김일성이 만든 것으로 하였다. 이 일은 거꾸로 1934年 무렵의 東北人民革命軍에 대하여 解放直後の 김일성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暗示하고 있기도 한다.

김일성의 「祖國光復會」도 中共의 業績인 在滿韓人祖國光復會를 가져와서 自己業績으로 삼은 것인데 그 成立年度를 36년이 아닌 35年이라고 함으로써 祖國光復會 결성문제에 관한 김일성의 無知를 탄로시키고 있다.

略歷69에서는 史實에 있어서의 略傳의 이러한 초보적 誤謬를 일부 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反滿抗日軍이던 김일성을 共產主義者로 묘사하기 위하여 34年 汪清地方의 共靑員과 만난 일을 33년에 가져오고 吳義成과 만난 일을

마치 본인이 中共側에 있어서 한 일과 같이 묘사하는 외곡행위를 일삼고 있다.

反滿抗日軍의 작은규모의 小部隊에 불과하였던 그의 隊伍는 중공이 反民生團鬪爭을 가장 치열하게 벌리고 있던 때인 1934年 後半에 中共遊擊隊에 들어갔다. 김일성의 이러한 經歷上的 弱點과 그의 테러리스트로서의 자질은 反民生團鬪爭에서 그를 中國人黨員들측에 들게하였다. 그는 韓人共產主義者를 박해하는데 오히려 가담한 人物인 것이다.(評傳(續) 399面以下)

略歷69에서는 그러한 그가 大荒崴會議와 腰營溝會議를 「지도」하고 反民生團鬪爭을 韓人共產主義者의 입장에서 終熄시켰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들 會議에서 反民生團鬪爭을 약간 옳은 方向으로 잡은 것은 당시의 東滿特委書記였던 中國人 위증민이었다. 김일성은 당시 汪淸遊擊隊의 일개 中隊長으로 이러한 회의에 參加할 자격조차 없었다.

同志82는 略歷이 못다한 날조를 완성시켰다. 여기서는 「왕재산會議」란 가공 회의를 날조하여 중공의 「汪淸會議」와 대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10. 祖國光復會

略傳52

김일성 장군이 30년대의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경제적, 정치적 및 무장적 투쟁을 어떻게 결부시키시었으며, 인민 각계각층의 統一戰線에 기초하여 빨찌산 투쟁을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어떻게 깊이 뿌리 박았으며, 우리 나라의 장래전망과 지향을 어떻게 천명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그가 작성한 祖國光復會 綱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祖國光復會 綱領에는

「조선 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反日統一戰線을 실현함으로써 強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朝鮮人民政府를 수립할 것」^{1) 2)}

「일본 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기를 해체하고... 인민의 무장력으로 조선인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軍隊를 조직할 것」³⁾

「일본 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⁴⁾

「일본 및 그 주구들의 인민에 대한 채권, 각종 세금, 전매제도를 취소하고 대중 생활을 개선하며, 민족적 工農商業을 장애없이 발전시킬 것」⁵⁾

「언론, 출판, 사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戰取하고 왜놈의 공포정책 실현과 봉건사상 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政治犯을 석방할 것」⁶⁾

「양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등 차별없는 일률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⁷⁾

「노예로동과 노예교육의 철폐, 강제군사복무 및 청소년에 대한 軍事教育을 반대하며, 우리 말과 글로써 교육하며, 의무적인 免費教育을 실시할 것」⁸⁾

「8시간로동제 실시, 로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 실시, 실업근로대중의 구제」⁹⁾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연합하며, 우리 民族解放運動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同志的 親善을 유지할 것」¹⁰⁾ 등 기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김일성 장군이 작성한 祖國光復會 綱領은 맑스-레닌주의 이론과 그의 전략전술을 30년대의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부합되게 적용하여 작성한 선진적, 혁명적 강령이었으며, 혁명의 장래 전망과 목적을 명백히 천명한 강령이었다.

이와 같이 장군이 제기한 정확한 統一戰線 政策과 조선 인민의 이해에 알맞는 정치로선은 祖國光復會의 組織을 날로 확대 강화시켰으며, 그의 영향은 인민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어 조직된지 불과 수개월 동안에 20餘萬의 군중을 그 산하에 포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국광복회의 조직망은 東北에서는 물론이고 鴨綠江, 豆滿江 연안인 甲山, 好仁, 新賀波, 茂山, 鏡城, 新義州, 厚昌, 新興, 豐山, 端川 등 국경지대들을 위시하여 국내 깊이 咸興, 興南, 元山, 城津, 鐵原 등 공장지대에까지 분포되어 혁명적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수십만명의 애국 인사들을 망라하였다.

略歷69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南湖頭會議¹¹⁾을 소집하시고 새로운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해 5월에 있는 東崗會議에서¹²⁾ 그를 더욱 구체

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우리나라 북부국경 일대에 진출시켜 적들에게 보다 심대한 타격을 주며 白頭山一帶에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창설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깊이에 武裝鬪爭을 확대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더욱 고무추동하며 조선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이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조선혁명에서 주체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으며 大國主義와 事大主義, 教條主義가 극복되고 조선혁명은 새로운 일대 양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경험에 기초하여 1936년 5월 5일에¹³⁾ 우리 나라에서 첫 反日 民族統一戰線 組織體인 祖國光復會를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祖國光復會 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祖國光復會를 창건하시고 손수 작성하신 祖國光復會 10大綱領과 그 創立宣言 및 規約을¹⁴⁾ 발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작성하신 祖國光復會 10大綱領은 다음과 같다.

(前略)

2. 在滿朝鮮人들은 朝中民族의 친밀한 련함으로써 일본 및 그 주구 <滿洲國>을 전복하고 중국령토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民族自治를 실행할 것.

3. 일본군대, 헌병, 경찰 및 그 주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진정하게 싸울 수 있는 革命軍隊를 조직할 것.

(中略)

6.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¹⁵⁾ 戰取하고 왜놈의 공포정책 실현과 봉건사상 장려를 반대하며 일체 정치범을 석방할 것.

(中略)

9. 8시간로동제실시, 로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로동법안의 확정,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로동자의 보험법을 실시하며 실업하고 있는 근로대중을 구제할 것

(其他 省略)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反日 民族統一戰線路線에 기초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연하게 수행하여야 할 실천적인 투쟁방도를 과학적으로 제시한 綱領的文獻으로서 각계각층 인민들을 반일투쟁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행동의 지침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후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鴨綠江연안으로 진출하시며¹⁶⁾ 白頭山 근거지의 창설을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력한 군사활동으로 적들에게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를 북돋아주시는 한편, 백두산근거지에 의거하며 祖國光復會 조직망을 적극적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시던 첫시기부터 맑스-레닌主義黨 창건을 위한 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시였다.

同志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南湖頭會議에서 朝鮮人民革命軍 주력부대를 국경지대로 진출시키고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도 확대하며 反

日 民族統一戰線運動과 黨創建準備事業을 전국적범위에서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우리나라 反日 民族解放運動을 일대 양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 방침이였으며, 전국적 판도에서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강령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南湖頭會議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국경지대로 진군하시는 간고한 로정에서 인민혁명군 부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祖國光復會 창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추진시켜 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 5일 祖國光復會를 창건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강령인 《祖國光復會 10大綱領》을 발표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국내외의 모든 반일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운 우리나라에서의 첫 포괄적인 反日民族統一戰線組織이였으며 강력한 地下革命組織이였다.

祖國光復會가 창건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광범한 애국력량을 더욱 굳게 묶어세워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릴 수 있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온 민족의 염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의 기치아래 우리 인민을 조국광복의 성전으로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은 민족적 독립과 존엄의 상징이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祖國光復會를 창건하신후 백두산 서북부와 서남부 일대의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수많은 군사활동들을 몸소 조직지휘하시면서 새로운 전략적 기지인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였다.

白頭山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국경일대에 抗日武裝鬪爭을 중심으로 하여 당

창건준비사업과 反日 民族統一戰線運動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기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白頭山근거지에 의거하여 군사 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反日民族統一戰線運動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黨創建 준비사업을 현명하게 조직 령도하시여 人民革命軍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각 지방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黨委員會¹⁷⁾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움직이는 정연한 당지도체계를 세우시었다. 그리하여 비록 黨中央은 선포하지 않았지만 朝鮮人民革命軍 黨委員會를 통하여 조선혁명 전반에 대한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黨創建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解說

김일성은 1936年 2月 寧安縣 南湖頭會議에 出席하였다. 이 會議는 中隊長級 以上이 出席할 수 있었으므로 그는 「金日成」과 같이 參加하였다. 그후 그들은 安圖, 撫松地方으로 南下하였다.

36年 3月 「金日成」은 東北人民革命軍 第2軍이 東北抗日聯軍 第2軍으로 改編되는 安圖縣迷魂陣會議에서 第2軍 第3師長이 되었다. 그는 7月 金川縣 河里에서 第2軍, 第2軍이 統合되어 東北抗日聯軍 第2路軍이 되었을 때 第6師長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河里會議에는 出席하지 않았다.

그는 河里會議 前에 祖國光復會 10大綱領이 作成되고 이것을 撫松, 長白地方에서 宣傳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을 積極的으로 推進하였다. 이 때문에 祖國

光復會가 結成되어감에 따라 第6師長「金日成」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北韓의 김일성(당시의 金一星)은 36年 3月の 迷魂陣會議에는 참가하지 못한 모양이다. 그는 迷魂陣을 거쳐 撫松縣馬鞍山에 내려가, 여기서 反民生團事件으로 말미암아 「民生團嫌疑者」로 몰린 韓人隊員들로 하나의 中隊를 형성하였다. 이 中隊는 36年 5月の 撫松縣 東崗會議以後 「金日成」의 第3師 第7團에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祖國光復會와는 관계가 희박하였다.

略傳52에 실려 있는 변조된 祖國光復會 10大綱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조된 것은 第9條일 것이다. 在滿韓人祖國光復會 綱領에서는 日本과 싸우는 條目으로 되어 있는데 變造版은 해방된 현실에 맞추어 勞動問題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는 草案을 잘 다듬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變造로 그치고 있다. 다만 第6條는 思想, 出版의 自由가 變造版에 덧붙여졌다.

略歷69는 祖國光復會 問題 이외에 東滿遊擊隊가 南滿과 北滿으로 흩어지는데 큰 계기가 되었던 中共의 1936年 2月 寧安縣 南湖頭會議를 새로이 가져오고 이 會議 開催를 김일성이 하였다고 歪曲하였다.

10大綱領에서는 第6條에서 「思想의 自由」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 1960年代後半부터 북한에서는 「黨의 唯一思想體系 確立」 책동이 벌어져 김일성의 思想으로만 생각하도록 되어 民衆의 思想의 自由는 완전히 빼앗겼다.

同志82는 10大綱領을 「조선혁명의 주체적강령」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綱領은 코민테른 第7次大會에서 연설한 王明이 제시한 國防政府 10大行政方針을 약간씩 변경하여 여기에 韓人自治를 삽입한 것으로서, 당시의 中共路線에 충실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引用되고 있는 祖國光復會綱領은 中共의 在滿韓人祖國光復會 綱領을 개찬한 變造版 綱領이다. 이 變造版 綱領과 對照하기 위하여 아래에 在滿韓人祖國光復會 綱領(草案)을 引用하였다.(以下 現代史資料30, 316面)

- 1) 「第一, 韓國의 民族, 團體, 個人을 不別하고 國內國外를 不論하여 一齊히 團結하고, 強盜 倭놈과의 강한 鬭爭으로 祖國의 獨立과 解放을 完成할 것」
- 2) 第二條는 略傳에는 省略되고 있다. 그러나 이 略傳52를 日本에서 번역한 번역자는 變造版 第二條를 일부러 번역문에 插入하고 있으므로 이를 아래에 引用한다.

「(二) 朝中兩民族은 緊密한 連合으로 日本帝國主義와 그 傀儡 「滿州國」을 전복하고 中國人民이 自身の 손으로 選擇한 革命政府를 創設하고, 中國領土內에 居住하는 朝鮮人民에게 眞正한 自治를 實行하게 할 것」

이에 대한 在滿韓人 祖國光復會 綱領은 다음과 같다.

「第二. 倭놈의 植民地統治下에서 宣傳하는 僞滿의 自治를 堅決히 反對하고 中韓民族의 緻密한 連合으로 共同의 敵 日本의 統治를 打倒하며 在滿韓人의 眞正한 自治를 實行할 것」

- 3) 「第三, 倭놈과 中韓走狗의 財產 및 武裝을 奪取하고 在滿韓人의 自治와 祖國光復을 위하여 끝까지 決戰하는 各種 武裝隊를 組織할 것」
- 4) 「第四, 倭놈과 中韓走狗의 모든 財產(土地도 包含)을 沒收하고 反日經費로 使用하며 一部分으로써 大韓人失業者를 救濟할 것」
- 5) 「第五, 一切의 苛斂雜稅를 廢止하고 倭놈의 經濟獨占政策에 反對하고 工農事業을 發展시키며 工農商 青年婦女 및 一切 勞農群衆의 實際生活을 개선할 것」
- 6) 「第六, 言論, 集會, 結社, 各種反日鬭爭의 自由를 實行할 것」
- 7) 「第七, 倭놈의 植民地奴隸教育에 反對하고 免費教育을 實施하며 民族文化의 高揚을 위하여 特別히 平民學校를 設置할 것」
- 8) 「第八, 倭놈의 韓人에 대한 一切 兵役義務制度를 廢止하고 反革命的, 反蘇聯中國革命進攻軍의 戰爭參加를 反對할 것」
- 9) 「第九, 日本의 모든 法令, 逮捕, 禁狗, 屠殺등의 白色恐怖政策에 反對하고 모든 政治犯人을 釋放할 것」
- 10) 「第十, 韓國民族에 대하여 不等待遇를 하는 民族과 緻密히 連合하고 同時에 韓國獨立運動에 대하여 善意로 中立을 지키는 國家民族과 友誼의 關係를 유지할 것」
- 11) 南湖頭會議은 中共의 東北人民革命軍 第二軍이 北滿과 南滿에 移動할 것을 決定한 中共의 重要會議로서 東滿特委書記 위중민이 主管하였다.(東北抗日聯軍第二軍, 곽료원 등 著, 1987年, 黑龍江人民出版社刊, 118面)

- 12) 東崗會議도 東北抗日連軍 第二軍 軍長 王德泰가 主管한 會議였다.(上揭書, 123面)
- 13) 略歷69는 略傳52의 祖國光復會 結成날짜를 1936年 5月 5日로 고쳤다.
- 14) 在滿韓人祖國光復會의 創立宣言은 吳成崙, 嚴洙明, 李相俊이 그 發起人이다. 따라서 規約도 그들이 만들었다.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證據는 보이지 않는다.
- 15) 略歷69에서는 略傳52에 등장시킨 變造版 10大綱領 第六條의 「思想의 自由」를 삭제하였다.
- 16) 鴨綠江沿岸 長白根據地로 進出한 것은 1936年 7月에 東北抗日聯軍 第6師長이 된 金日成(普天堡襲擊)이다.
現在 北韓에 있는 김일성(金一星)도 同一行動은 하지 않았으나 36年에 安圖, 撫松까지 오고 거기서 金日成部隊와 合流하여 長白으로 進出하였다.
- 17) 당시 6師長 金日成이 이끌고 있었던 隊伍는 中共유격대였고 中國共產黨이 이끌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黨創建」도 당시 長白과 北部朝鮮의 祖國光復會에 建設되어나간 中共黨細胞들을 외곡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朝鮮人民革命軍 黨委員會도 中共東北抗日聯軍 第7師의 黨組織을 외곡하고 있다.

11. 普天堡襲擊

略傳52.

1937년 6월 4일, 김일성 장군은 친히 朝鮮人民革命軍의 1부대를 인솔하고 고국의 땅을 향하여 鴨綠江을 건너 普天堡에서 전투를 전개하며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普天堡에서의 朝鮮人民革命軍의 총소리는 일제의 가혹한 군사 경찰 통치 하에서 억압받고 신음하던 조국 강토의 압담한 침묵을 깨뜨렸으며,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強固한 後方」이라고 자랑하던 일본강탈자들을 전멸케 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고국 진군과 普天堡戰鬪에 대한 소식은 번개처럼 전국 각지 방방곡곡으로 들리어 갔다.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동포 형제자매들은 일제경찰들의 눈을 피하여 가면서 서로 끌어안고 감격과 기쁨에 찬 눈물을 흘리었다. 전국 인민의 시선은 普天堡事件에¹⁾ 집중되었다. 普天堡의 총소리는 조선인민은 죽지않고 살아 있으며, 民族解放運動의 세력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普天堡의 총소리는 조선인민들에게 解放에 대한 새 힘을 주었으며,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김일성 빨찌산 부대의 普天堡戰鬪는 甲山工作委員會와의²⁾ 긴밀한 련계³⁾ 하

-
- 1) 普天堡戰鬪은 東抗日聯軍第1路軍第二軍第6師의 北朝鮮遠征隊가 감행한 것이다. 師長 金日成은 韓人이었으나 中共軍의 襲擊이었다.
 - 2) 甲山工作委員會란 1935年初부터 朴達, 朴金喆등이 組織하였던 地方 共產主義者들의 地下組織이었다. 金日成의 指示에 의하여 37年 1月 朝鮮民族解放同盟으로 改稱되었는바 祖國光復會의 國內組織이었다.
 - 3) 甲山工作委員會는 普天堡襲擊에 70여명을 動員하여 北朝鮮遠征隊의 放火, 掠奪, 物品運搬을 도와주었다. (惠山事件判決書).

에서 진행되었다.

甲山工作委員會는 김일성장군 부대와 계속 不切한 連結을 취하면서 咸南, 咸北 일대에서 장구한 기간을 걸쳐 맹렬한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 甲山工作委員會는 김일성 장군이 령도한 수다한 국내조직체 중의 한개 레에 불과하다.

略歷69

김일성동지께서는 朝鮮革命을 일대양양으로 불려일으키기 위하여 국내 깊이에 무장투쟁의 범위를 확대하시였다.

1937년 6월 4일 김일성동지께서는 朝鮮人民革命軍의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적의 전략상 요충지인 普天堡로 진격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적들이 《金城鐵壁》이라고 큰소리를 치던 국경경비선을 돌파하고 普天堡를 들이쳐 일제의 통치 기관들을 소탕하고 원수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들뜨였다.

同志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일대양양으로 불려일으키기 위하여 국내깊이에 무장투쟁의 범위를 넓혀나가지였으며 1937년 6월에는 朝鮮人民革命軍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적의 전략상 요충지의 하나였던 普天堡를 공격하시여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曙光을 안겨주시였다.

解說

普天堡는 당시 朝鮮人 284戶, 日本人 26戶, 中國人 2戶가 거주하던 자그마한 國境 聚落이었는데 場이 서서 물품거래가 왕성한 편이었다.

普天堡戰鬪는 第6師長 金日成이 部下들과 같이 감행한 戰鬪였다. 그러나 그

들 約90名이 한 것은 주로 越冬을 위한 掠奪行爲로서 「조국광복의 曙光」을 안겨주었다는 同志82의 評價는 過大評價이다. 金日成部隊는 韓人共產主義者들이 많았지만 中共遊擊隊員으로서 中國革命에 이바지하는 中共組職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普天堡에서 뿌린 베라에는 「在滿韓人反日大衆에게 檄함」이라는 것도 들어 있었는데, 이것으로도 그들이 「朝鮮의 解放」을 위하여 普天堡를 습격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惠山事件判決書)

지금 한국에서는 普天堡襲擊 金日成이 北韓 김일성과 동일 인물인지의 여부가 問題로 되어 있다. 結論을 먼저 말하면 北韓 김일성은 아니다. 그 理由를 다시 여기에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普天堡襲擊 金日成은 1932年 7월에 延吉縣依蘭溝區遊擊隊員으로서 日本記錄에 등장한다. 당시의 人的事項은 「年齡 30歲, 本籍 또는 住所 汪清, 人物特徵 普通」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같은 32年 7月 北韓 김일성은 延吉縣보다 훨씬 南쪽에 있는 南滿의 濛江縣에 있었고 그의 滿洲住所는 撫松이나 安圖였으며, 나이는 당시 21歲였다. 그는 1930年 9月부터 11月 사이에 金一星이란 別號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兩人的 人名漢字도 서로 다르다.

金日成은 中共東滿特委의 初創期 遊擊隊에 있었으므로 中共黨員이었다. 그는 32年 11月 汪清遊擊大隊를 創設한 功으로 大隊政治委員이 되었고, 34年 5月에는 東北人民革命軍 第2軍 第2獨立師 第3團의 政治委員이 되었다.

그후 36年 3월에 東北人民革命軍 第2軍이 東北抗日聯軍으로 改編되었을 때 金日成은 그 第2軍 第3師長이 되었으며, 36年 7월에 第1, 第2軍이 合同하여 第一路軍이 되었을 때 第6師長이 되었다가 37年 6월에 普天堡를 襲擊하

였다. 李命英教授의 金日成列傳에 실려 있는 日本人證言者의 증언에 의하면 普天堡를 습격하였을 때의 金日成의 나이는 37歲였다. 이는 32年 7월에 30歲라고 한 日本記錄과 거의 一致한다.

한편 현재 北韓에 있는 金一星(金一星)은 32年 겨울에 汪清縣으로 가서 33年 1월에는 그 동쪽 東寧縣으로 갔다가 다시 汪清縣에 돌아와 그곳에서 反滿抗日軍으로 행세하였다.

33年 가을부터 中共東滿特委의 反日民族統一戰線工作으로 점차적으로 左傾化되며 1934年 8月 金日成이 聯隊政治委員으로 있던 東北人民革命軍 第2軍 第3團 즉 汪清聯隊에 1中隊長으로 포섭되었다.

1935년에 金一星은 汪清聯隊로부터 훈춘聯隊에 配置轉換되었다. 그는 36年 1월에 北滿으로 갔는데, 그후 다시 金日成이 거느리는 第3師와 第6師의 傘下部隊의 中堅幹部가 된 모양이다.

이상과 같이 金日成은 金一星과는 완전히 다른 人物이다. 普天堡는 현재 북한에 있는 당시 이름 金一星이 아닌 別個의 人物 즉 金日成이 襲擊하였다.

이 金日成은 1937年 11月 13日 撫松縣 揚木亭子에서 戰死한 것으로 보인다. (『滿州國軍』1970年 日本, 蘭星會刊, 371面以下)

12. 遊擊鬭爭—1930年代 後半

略傳52

김일성 장군은 각종 조직을 통하여 국내운동을 지도하면서 일제 「관동군」, 「조선군」 및 「만주군」과의 가련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실례로 수다한 전투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전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936년의 撫松縣戰鬪, 1937년의 十三道溝전투, 1938년 3월 安圖지방에서 일군 1개련대를 신고 가는 군용열차 습격전투¹⁾, 同月 安圖縣 영경구에서 일제군대 및 만주 괴뢰군대와의 大戰鬪²⁾, 그해 여름에 安圖縣大沙河에서 일제군대 2개련대와의 치열한 격전³⁾, 1939년 3월 豆滿江 對岸인 馬鹿溝警察本部 襲擊戰鬪⁴⁾, 同年 5월 咸南 對岸인 半裁溝進攻전투, 그 후 계속된 安圖縣二道溝에서 일제 군대와 만주 괴뢰대부대와 3일간 계속된 격전 등이 그 실례들이다.

이 외에도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1938년 豆滿江 류역에서 진행된 전투들이다.

이 시기에 조선의 부르췌아 신문들과 일본 신문들은 장군의 빨찌산 부대를 「성과있게」 토벌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와의 전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조선 인민들에게 주는 정치적 영

1) 1938년 3월에는 이런 戰鬪는 없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의 혁명력사 년대표」—이하 「金日成年表」로 줄임 82面 및 「滿洲國軍」360面).

2) 同月에는 이런 戰鬪는 없었다(「金日成年表」 同面, 「滿洲國軍」 同面).

3) 38年 여름에는 이런 戰鬪는 없었다. (上揭書, 85面). 다만 이 무렵에 김일성部隊가 安圖方面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4) 39年 3월에는 이런 戰鬪는 없었다. (「金日成年表」 90面)

향을 두려워하여 일제는 1942년 이후부터는 김일성 장군의 유격대에 대한 기사를 일체 금지하였다.⁵⁾ 이 시기 1931년 9월부터 1936년 6월까지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전투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數字를 발표하였다.

전투회수 23,928회, 일제군경살상 4,321명, 일제군경들이 포로된 수 18,114명, 유격대에게 노획당한 무기 3,179점(노리다께 미쯔오-則武三雄著,「鴨綠江」35페이지).⁶⁾

이것은 물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승리」를 과장하면서 장군부대의 성과적 전투결과를 의식적으로 축소하여 발표한 수자들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장군이 지도하는 유격대들의 활동이 얼마나 격렬하였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김일성 장군의 유격부대와 조선인민 속에서의 그의 영향의 장성에 더욱 불안을 느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일방으로는 무력을 증원하여 발악적인 소위 토벌작전을 강화하였으며, 타방으로는 유격대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기 위하여 소위 집단부락정책을 실시하고 경제봉쇄, 「民生團」(후에는 協和會로 개칭) 등 반혁명적 단체를 조직하여 유격대의 내부를 와해시키며, 그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무력적 탄압과 간교한 술책도 김일성 장군이 령도하는 빨찌산 투쟁을 진압하지 못하였으며, 와해시키지 못하였다.

5) 「東亞日報」 「朝鮮日報」 등은 이미 日帝에 의하여 1940年 8월에 廢刊措置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이후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新聞에 報導될 리가 없었다(韓國共產主義運動史 5. 金俊燁, 金昌順著. 1986年 淸溪研究所 刊, 70面).

6) 日本人 則武三雄의 이 統計는 滿洲事變後 1936年까지의 舊東北軍閥, 救國軍과 같은 反滿抗日軍, 馬賊(以上, 中國人)과 中共遊擊隊가 日本軍警과 싸운 結果이다. 北韓에서는 金日成이 한 戰鬪回數가 아닌 이러한 戰鬪들을 金日成빨찌산이 한 것으로 歪曲하였다.

略歷69

오래동안 대륙침략을 준비해온 일제는 1937년 7월 끝내 中日戰爭을 도발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과 략탈을 더욱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

1937년 겨울에 들어서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달려드는 적들을 감쪽같이 따돌리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집중적인 冬期政治軍事學習을⁷⁾조직 지도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8년 11월 南排子會議에서⁸⁾ 그간의 활동을 총화하시고 투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적들의 악랄한 반동공세를 주동적으로 짓부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어로 이끄시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1938년말~1939년 봄에 걸쳐 적들의 발악적인 공격을 격파하면서 우리나라 북부국경 일대로 다시 진출하는 간고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지휘하시었다.

1939년 5월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 茂山地區進攻作戰을 전개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친솔하시고 백두산 동북부지대로 돌연히 이동하시여 정치군사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시자 적들은 대혼란에 빠

7) 이 때 북한 김일성(金一星)은 濛江縣 마냥거우密營에 숨어 있었다. 같은 時期인 1937年 11月 13日 第6師長 金日成은 撫松縣楊木亭子에서 戰死하였다(「滿洲國軍」昭和45年. 日本 蘭星社刊, 371面)

8) 1938年 11月 25日의 濛江縣(南排子)會議는 東北抗日聯軍 第一路軍長 楊靖宇가 第6師長을 第一路軍 第二方面軍長으로 任命한 會議였다.(第二軍, 174,5面 6師長은 1937年 11月에 撫松縣 楊木亭子에서 죽었으므로, 이 때부터 南排子 會議가 있었던 38年 11月까지의 1年동안에 金一星이 金日成을 칭하였을 可能性이 크다. 이것은 筆者의 하나의 推測이다.

져 허둥지둥하다가 서둘러 《討伐司令部》를 설치하고《東南部治安肅正工作》을⁹⁾ 단행한다고 무려 수십만에 달하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봉쇄》와 《포위작전》으로 발악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흥계를 간파하시고 이를 제때에 봉쇄하기 위하여 미리 부대의 移動順次를 설정하신후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서가 아니라 白頭山을 중심으로 광활한 지대를 무단히 류동하면서 적을 완전히 피동에 빠뜨려놓고 섬멸하는 대부대 선회작전을 전개하시였다.

同志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자 朝鮮人民革命軍의 적극적인 군사활동과 적배후 교란작전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여 日帝에게 강력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과 모든 애국적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힘을 기울이시였으며, 1937년 11월 10일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¹⁰⁾를 발표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주체적인 革命路線과 戰略戰術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朝鮮革命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자주적 립장과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가지도록 하시

9) 日帝의 「東南部治安肅正工作」은 김일성만을 對象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 工作에서 中共의 많은 東北抗日聯軍 幹部들은 대량적으로 戰死하고 逮捕되었으나 김일성은 요행스럽게도 逃走할 수가 있었다.

10)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가 37年 11월에 發表되었다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다 보면 이 글의 作者는 37年 11月 13日에 戰死한 第6師長 金日成(北韓 김일성이 아님)이었을 可能性이크다.

였다.

항일무장투쟁이 급속히 확대되던 시기에 左傾冒險主義者들에 의하여 강요된 《熱河遠征》의 후과로 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熱河遠征》의 좌경모험주의적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 대처한 주동적인 대책을 제때에 취하시였으며, 1938년 11월에는 南排子會議를 소집하시고 朝鮮革命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主力部隊를 친솔하시고 우리나라 북부국경일대에도 다시 진출하는 100여일간의 잔고한 고난의 행군을 지휘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끝마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5월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또다시 鴨綠江을 건너시여 茂山地區 진공작전을 벌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茂山地區 진공작전을 普天堡戰鬥와 함께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작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茂山地區 진공작전을 승리적으로 진행하신후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백두산동북부으로 진출하시여 대부대 선회작전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抗日革命鬪爭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언제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世界革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에 서시여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무장으로 소련을 옹호하시였으며,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 하심으로써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解説

普天堡를 襲撃한 第6師長 金日成은 1937年 11月 13日 撫松縣楊木亭子에서 戰死하였다.

이 時期 북한의 김일성(金一星)은 濛江縣長塘溝密營에 숨어 있었다. 金日成이 戰死한 후 1938年 3月까지 「김일성부대」의 消息이 없어진 것을 보면 37年 11月 중순부터 38年 3月까지에 북한의 金一星이 臨時的으로 第6師를 거느리게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 그는 38年 11月 第1路軍 第2方面軍長이 되므로 이 무렵까지 그는 第1路軍 總指揮 楊靖宇와 副指揮 魏拯民의 承認을 얻어 第6師長의 자리를 굳혔을 것이다.

북한 김일성의 人名漢字는 金一星이었다. 그러나 日滿軍警이 여전히 「김일성」을 戰死한 第6師長의 人名漢字인 「金日成」으로 使用하고 있었으므로 1938年 무렵에 어느덧 第1路軍에서는 북한의 김일성도 「金日成」으로 表記하기 시작한 것 같다. 북한의 金一星을 金日成으로 表記한 例는 코민테른 駐在 中共代表團에게 보낸 魏拯民의 書信(「思想彙報, 第25號」1940年 12月號)에서 볼 수 있다(韓國共產主義運動史. 5卷, 74面).

북한의 김일성 傳記들은 1937年の 撫松縣楊木亭子戰鬪를 一切 서술하지 않는다. 또 中共文獻도 마찬가지다. 이리하여 그들은 第6師長 金日成의 戰死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略傳52는 북한 김일성이 하지 아니한 戰鬪들을 나열하였고 심지어는 滿洲

事變 以後 1936年까지 蔣介石總統이나 王明, 毛澤東系統을 가리지 않고 中國人이 들고 일어나 日滿軍警과 싸운 戰鬥에 관한 日本記錄은 모두 金日成빨찌산의 戰鬥로 돌렸다.

略歷69에서는 이러한 허황된 記述은 하지 않았으나 楊靖宇가 主催한 濛江縣南排子會議를 김일성이 한 것 같이 歪曲하였다. 同志82는 이 南排子會議에서 第1路軍의 熱河遠征을 左傾冒險主義라고 김일성이 비판한 것 같이 쓰고 있다. 그가 熱河遠征을 비판한 것 같으면 中國혁명에 그가 參與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同志82는 그가 「조선혁명」을 양양에로 끌어올릴 方針을 세웠다고 외곡하고 있는 것이다.

13. 抗日武裝鬭爭의 歷史的 意義

略傳52

김일성 장군 빨찌산 부대의 불패의 력량은

첫째로 그가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었고 부대내에 강철같은 조직체인 공산당 조직체들과 領導의 唯一性이 확보되었으며, 부대의 규율이 엄격히 준수된 거기에 있다.

둘째로 장군이 령도하는 빨찌산 부대는 인민들을 위한 인민의 武裝力으로 인민으로부터 두터운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와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한 거기에 있다.

김일성 장군은 그 누구보다도 인민과의 굳은 련계가 없이는, 또 이 련계의 부단한 강화가 없이는 투쟁에서 승리를 바랄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자기의 부대를 인민과의 련계의 정신으로 항상 교양하였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대중조직은 유격대의 지반이다」라는 구호들은 당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유격대원들이 부르짖은 중요한 구호들이었다. 셋째로 김일성 장군의 빨찌산 부대의 불패의 력량은 그가 맑스-레닌주의를 鬭爭의 指針으로 삼았으며, 위대한 조선의 승리에서 자기의 확고부동한 승리의 신심을 얻은 거기에 있다. 가렬한 전투 중에서도 장군은 항상 맑스-레닌주의 古典들을 열심히 연구하였으며, 부대의 맑스-레닌주의적 思想敎養에 대하여 어느 한 때도 잊은 때가 없었다. 아무리 험한 행군에도 교양서적

을 전문적으로 지고 다니는 대원들이 있었고 격렬한 전투와 전투 사이에도 교양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계속하였다.

장군은 부대내의 敎養事業과 함께 인민대중 속에서도 꾸준히 思想政治事業을 전개하였다.

장군은 일제 통치의 조건하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비합법적 신문, 소책자, 격문들의 출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火田民」 「三一月刊」 등 祖國光復會의 機關紙와 「레닌主義의 基本」, 「朝鮮共產主義者의 任務」, 「同志여 團結 하라!」 「社會主義 大意」 「社會主義란 무엇인가?」 「國際뉴스」, 「革命歌曲集」 기타 강령, 규약 등 수다한 격문들과 소책자들을 출판하였다.

이 시기의 장군의 론문들은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이론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원들과 혁명적 로동자, 농민 및 빨찌산들을 교양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장군은 곤란이 극심할 때마다 위대한 소련의 성과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었으며 그에서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장군은 「十月革命과 朝鮮人民들의 民族解放鬪爭」이라는 자기의 저서에 쓰기를 「일본 식민지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힘에 겨운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의 위대한 隣邦인 소련의 성과들은 언제든지 朝鮮人民에게 기대와 전투적 정신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였다.

장군은 사회주의 국가 소련과의 관계를 더 한층 튼튼히 하며 革命的 國際主義思想에 튼튼히 립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옹호하는 투쟁은 진정한 국제주의자들과 혁명투사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라는 것을 전체 당원들과 빨찌산들에게 항상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소베트 同盟을

용호하자!」「쏘련을 신전하자!」등 구호는 항상 政治事業의 기본구호 중의 하나로 되었다.

이와 같이 김일성 장군의 항일 빨찌산투쟁은 우리 民族解放鬪爭史에 있어서 거대한 歷史的 意義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이 투쟁이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게 적용한 데 있으며, 이 투쟁이 국제프로레타리아 혁명운동과 식민지 및 반식민지 국가들에서 民族解放運動과 國際的 連帶性을 가진 거기에 있다.

둘째로 이 운동이 일제를 반대하는 朝鮮人民의 民族解放鬪爭에 있어서 운동의 소극적 형태로부터 적극적 형태, 즉 무장유격투쟁의 형태로 넘어간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음에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전개된 거기에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는 가장 횡포하였다.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애국적이며, 민족적인 우수한 모든 것들을 폭압, 박탈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우수한 대표자들을 투옥, 학살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암담하고 죽어간듯 하였다. 이전에 소위 民族運動의 先驅者로 자칭하던 民族主義者들과 「愛國志士」들과 「流行式 맑스주의자들」중에서 그 절대 다수는 「內鮮一體」「皇民化運動」의 선구자로 되었으며, 일부는 일제의 탄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여 일제에 투항하여 소위 전향하였으며, 일부는 處世主義者로, 개인향락의 市井輩로 변화되었다. 오직 투옥되지 않고 남아 있는 극소수의 애국자들만이 지하에 남아서 革命運動을 계속하였으나, 그들의 운동

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조성된 특수정세에 의하여 대중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反日鬪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꺾기한 김일성 장군의 빨찌산 투쟁은 우리 民族解放鬪爭史에¹⁾ 있어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세째로, 김일성 장군의 항일 빨찌산 투쟁의 역사적 의의는 그가 자기의 혁명적 활동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理論을 지침으로²⁾ 삼았으며,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희망의 시선을 위대한 소련에 돌리고 그에서 힘의 원천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얻은 거기에 있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 장군은 다음과 같이 썼다.

「東方에서 혁명의 길을 가르쳐 준 쓰말린 同志의 영명한 로작들은 영웅적 투쟁으로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을 무장시켰으며, 인민의 역량과 그의 승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고무하여 주었다.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시선을 사회주의 국가에로 돌리었으며, 결국 이 희망은 실현되었다. 1945년 8월에 강대한 소비에트 軍隊는 日本 關東軍을 격멸하고 우리 조선을 해방시키었다.」³⁾(「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과 조선 인민의 해방투쟁」).

- 1) 東北抗日聯軍은 中共 軍隊였다. 따라서 이 軍隊의 鬪爭을 韓民族의 解放鬪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自身의 指針으로 삼은 것은 그가 中共遊擊隊에 편입된 1934년부터일 것이다. 그 以前에는 그는 中國 國民黨系統이나 韓人民族主義系統에 있었고 理論的으로는 一貫한 것이 없었다.
- 3) 김일성은 52年 무렵에는 朝鮮의 解放을 소비에트 軍隊가 가져왔다고 공공연히 쓰고 있었다.

略歷69

省略

同志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星霜에 걸치는 영웅적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인민앞에 새생활창조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革命傳統을⁴⁾ 이룩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로 하여 우리 인민은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으며 당, 정권, 무력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튼튼한 밑천을 가지고 새 조국, 새 사회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게 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동방에서 제국주의 식민지체계에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 놓고 국제파시즘의 아세아 《突擊隊》를 격멸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위대한 사상가의 叡智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탁월한 정치가의 령도력과 결출한 령장의 령군술로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조직 領導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온겨레가 그처럼 바라던 祖國의 光復을 안아오신 민족재생의 구성이시다.

解說

略傳52에서는 1940年代前半에서 한 김일성의 活動을 일단 뒤에 미루고

4) 김일성이 만든 「革命傳統」은 주로 中共의 業績을 가로채서 거기에 자신의 偽造된 경력을 덧붙인 것이다.

1930年代까지의 그의 活動에 대해서 그 「勝利의 要因」과 「歷史的 意義」를 찾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김일성의 1940年代前半의 活動을 마치 책의 附錄 같이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는 文章配列이다. 김일성의 行蹟을 보면 이 기간 그는 소련 沿海州에 있었고 소위 「抗日武裝鬪爭」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略傳이 찾고 있는 「勝利의 要因」중 첫째 문장은 김일성의 抗日武裝隊伍가 「高尚한 愛國主義思想으로 武裝」된 隊伍였던 것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1930年代 前半은 그 行蹟이 매우 복잡하다. 國民脫退派인 李鍾洛, 朝鮮革命軍, 舊새날少年同盟員들로 結成한 金日成그루음 등에 있을 때 그는 그나마 韓人組職에 들거나 이를 이끌거나 하고 있었으나, 1932년부터는 蔣介石系統의 反滿抗日軍인 吳義成이나 于司令의 주변에서 小部隊를 거느리고 있었다. 中國系統에 있었을 때는 愛國이라도 中國을 위한 愛國 이었다고 보아야 김일성의 行動을 理解할수가 있다. 그는 中共遊擊隊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일도 中國共產黨에 소속되어 中國革命을 希望하는 愛國이었고 韓人으로서의 朝鮮解放과 獨立志向은 第2次的이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김일성은 1930年代에 있어서 思想的으로는 右로부터 極左로 넘어 가면서 그 思考와 行動을 中國의 獨立과 革命에 따라 세운 인물이다. 이 점은 앞으로 더욱 追究되어야 할 문제로 될 것이다.

要因의 둘째문장에서는 김일성의 빨찌산部隊가 「人民을 위한 人民的 武裝力」이었기 때문이라고 勝利의 要因을 잡고 있다.

그러나 東滿과 南滿의 山間僻地를 누비면서 그곳 韓人貧農村을 습격하여 軍糧과 衣類를 掠奪하는 方法으로 隊伍를 지탱한 抗日遊擊隊는 그 主觀的意圖가

人民을 위한데 있었다 하더라도 客觀的으로는 馬賊과 다름이 없었다.

中共遊擊隊가 1940年代 滿洲로부터 소련으로 도망간 큰 要因의 하나가 大衆的基盤을 잃어버린데 있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人民들로부터 離脫되어 더 이상 隊伍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滿洲를 脫出하였다.

略傳은 승리의 셋째 要因을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정통하여 이를 指針으로 삼았다는데에 찾고 있다. 또 그는 소련에 큰 기대를 건 것으로 되고 있다.

사실을 따지면 당시 滿洲의 抗日武裝鬪爭을 指導한 것은 延安에 있었던 毛澤東이 아니라 모스크바에 있었던 王明, 康生이었다. 그들은 極左冒險主義路線을 펴고 滿洲의 항일무장투쟁을 항상 「쑸베트同盟 옹호」에 결부시키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中共遊擊隊員이었던 김일성이 소련에 큰 기대를 걸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王明의 極左冒險主義路線을 수용하였다는 一面을 생각할 때 毛澤東이 主導하는 당시 中國革命에서는 오히려 宗派的인 것이었다.

또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精通한 것 같이 쓰고 있는 것은 誇張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는 1960年代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否定하고 「主體思想」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北韓에서 「온 사회를 主體思想化」하는데 힘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抗日武裝鬪爭時期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느냐가 문제가 된다.

抗日武裝鬪爭時期에 발간되었다는 「火田民」, 「三一月刊」, 「朝鮮共產主義者의

任務」등은 김일성이 創刊하거나 執筆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그가 論文을 썼다는 사실을 客觀적으로 確認할 수 없다. 그는 당시 遊擊隊員으로 소부대를 거느린 人物에 불과 하였으므로 理論家가 될 준비기간 같은 것은 가질 수 없었다. 以上을 再整理하여 빨찌산隊員이었던 김일성이 解放後까지 살아남은 要因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는 中共遊擊隊에 들어간 후 韓人으로서의 愛國主義가 아니라 中國少數民族인 朝鮮族으로서의 中國에 대한 愛國精神을 가지고 中國革命에 獻身하였다.

당시는 中國人共產黨員이 韓人共產主義者에게 「民生團」 즉 日帝의 間諜이란 딱지를 붙여서 肅清하는 「反民生團事件」이 極左적으로 進行되고 있었다. 김일성이 여기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가 韓人으로서의 愛國主義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김일성은 자기와 자기 部隊의 生活을 위하여서는 掠奪, 人質, 脅迫 등을 서슴치 않았다. 人民을 위한 것이 아니라 自己에게 人民을 服從하게 한 것이 그가 살아남은 要因이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김일성 통치방식과 일치한다.

셋째로, 김일성은 中共遊擊隊에 들어가기 以前에 벌써 자기 思考方式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1930年, 李鍾洛의 朝鮮革命軍에 들어가 그의 暴力主義의 影響을 입어 「자기나 자기 세력에 反對하는 者는 容納하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形成되었다. 1930年 11月 김일성은 民族主義者인 鄭信을 暗殺함으로써 이 테러리즘을 實證하였다.

1934年 이후 김일성은 王明極左冒險主義路線下에 있는 中共東滿黨의 遊擊

隊에 들어감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極端的 形態인 스탈린主義를 익혔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1930年 무렵에 形成한 「思想」 즉 테러리즘 위에 粉飾用으로 使用된 「理論과 方法」이었다.

遊擊鬪爭에서 김일성이 살아남은 것은 日滿軍警을 巧妙하게 避할 수 있었던 能力과 함께 投降하거나 投降할 기미를 보이는 自己隊伍의 隊員을 미리부터 적발하여 加차없이 제거한데 있었다. 그때문에 中共遊擊隊의 幹部들을 거의 전부 죽이거나 체포 하였던 日滿軍警도 김일성만은 놓쳤던 것이다.

略傳에서는 다음으로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이 가지는 歷史的의義를 지적하고 있다. 이 의의를 分析하여 보자.

略傳은 첫째로, 金日成의 鬪爭이 人民大衆에 뿌리를 박은 것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現實에 적용시킨 것이며, 國際共產主義運動과 결부된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歷史的 意義는 中共遊擊隊에서 民族精神이 허물어진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主義者의 탈을 쓰고 北韓에 나타났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마르크스主義者가 아니고 나름에 그가 스스로 命名한 바와 같은 「主體思想家」였다.

그는 北韓의 全歷史를 肅清으로 얼룩지게 한 유례없는 暴力至上主義者이며 極端的 主觀主義者였다. 그의 出現은 韓民族의 悲劇이었다.

略傳은 둘째로, 反日鬪爭을 武裝鬪爭으로 發展시켰는데 그의 存在意義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民族主義系統의 抗日武裝鬪爭은 1930年代 中盤까지 南滿에 存在하였고 그들은 民族的 主體를 지키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다. 反面에 김일성의 抗日武裝鬪爭은 1940年까지 東南滿에서 進行되었으나 民族的 主體

를 상실한 中共組織에서의 鬭爭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해방전 存在樣式의 특징은 解放後 그의 抗日武裝鬭爭을 완전히 외곡 날조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으로 金日成을 내몰았다. 北韓歷史의 不正義性은 김일성의 不正義한 存在樣式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略傳은 셋째로, 抗日빨치산투쟁시기 김일성이 「위대한 소련에서 그의 힘의 源泉과 勝利에 대한 信心을 찾은데 歷史的意義가 있다」고 썼다.

이것은 1952年 당시 北韓의 소련에 대한 事大主義 表現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이 스탈린主義者인 것은 지금도 그가 北韓을 超스탈린主義國家로 만들고 있는데서 證明된다.

同志82는 略傳이 씌어진 時期보다 30年後의 김일성 傳記이다. 이 期間에 抗日武裝鬭爭에 대한 評價는 완전히 달라졌다.

本文을 보면 여기에는 김일성을 北韓의 最高地位에 올려준 소련이나, 그를 遊擊隊에 넣어 키운 中共에 대한 感謝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철두철미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祖國光復을 遂行한 英雄으로 되어있다.

14. 1940年代 前半의 金日成

略傳52

1940-45년 경에 이르러 장군의 빨찌산 투쟁은 수다한 少組로 분리되어 경찰서, 철도, 군수창고, 수비대들을 불의에 습격하는 奇襲戰術¹⁾ 넘어갔다. 이 襲擊組들은 도처에서 경찰서들을 습격하며, 도로와 교량을 파괴하며, 수비대를 습격하며, 군용열차들을 전복시키며, 군수창고들을 방화하며, 반역자들을 처단하면서 日帝強盜들을 전멸케 하였다.

1945년 8월 9일 위대한 소련군대가 對日戰爭에 참가하여 日帝를 반대하는 전투를 개시하자, 장군의 습격조들은 급히 집결하여 억제할 수 없는 새 힘으로써 소비에트 군대와 함께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제를 격멸하는 전투에 참가하였다.²⁾

정예를 자랑하던 日帝 關東軍이 위대한 소비에트 군대에 의하여 격멸되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조국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자, 15개 星霜의 장구한 기간을 걸쳐 항일 빨찌산 투쟁을 전개하여 온 김일성 장군은 부대를 데리고 해방된 조선인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고국에 개선하였다.³⁾

1) 여기에서는 김일성이 소련 沿海州로 도망간 史實을 숨기고 있다. 小組活動은 沿海州로부터 滿洲로 侵入하는 活動이었다.

2) 여기서 「將軍의 襲擊組」라고 되어있는 것은 中國人 周保中이 隊長으로 있던 東北抗日聯軍教導隊로서 김일성도 이에 所屬되어 있었다. 따라서 對日戰爭에 教導隊 隊員을 協力하게 한 것은 김일성이 아니라 周保中이었다. 그러나 周保中도 김일성도 日帝를 격멸하는 戰爭에 참가하지는 못하고 9月初旬까지 하바로호스 郊外의 教導隊 北野營에 머물러 있었다. 스탈린이 待機하도록 命令하였기 때문이다(周保中將軍傳, 1988. 解放軍出版社, 477面)

3) 김일성은 解放된지 한달쯤 지난 1945年 9月 19日 教導隊의 韓人共產主義者와 元山港에 上陸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의 指揮下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蘇聯軍의 指揮下에 있었고 民衆의 환영을 받는 「凱旋」이 아니라 비밀리에 北韓各地에 介散配置되었다.(北朝鮮王朝成立秘史. 日語版. 120面)

고국에 개선한 김일성 장군은 조선인민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해방된 조국의 민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略歷69

1940년에 들어서면서 김일성동지는 조국의 해방과 항일무장투쟁의 중국적 승리를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⁴⁾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8월 소할바령(小哈爾巴嶺)會議에서⁵⁾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역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결정적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외정세의 추이와 전망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멀지 않아 일제를 포함한 파쇼국가들이 패망하고 朝鮮革命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세발전에 대처하여 革命의 前途를 예견하시고 많은 정치 군사간부들을 양성하며 한편으로는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변경하고 地下鬪爭을 強化하여 일제 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전인민적 봉기를 준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회의이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수십개의 小部隊와 小組로 편성하여 각지에 파견하시고 그들의 활동을 지휘하시였다.

1945년 8월 9일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祖國解放의 聖戰에 총동원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4) 김일성이 「祖國의 解放과 抗日武裝鬪爭의 終局的勝利를 위한 方針」을 提示한 일은 없다. 그는 1940年 8月 10日 敦化縣 小哈爾巴嶺에서 회의를 열어 「祖國光復의 大事變을 準備있게 맞이할데 대하여」란 報告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報告는 1970年代에 創作된 낱조물이다. 그러나 그가 이무렵 소련으로 도망갈 構想을 한 것은 사실이다.

5) 小哈爾巴嶺會議의 實在 어부는 疑問時되고 있다.(上揭書, 100面以下)

朝鮮人民革命軍 각 부대들은 羅津, 淸津으로 南陽과 雄基 方面으로 각각 진격하여 여러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人民들의 투쟁과 배합하여 저항하는 日帝의 關東軍과 朝鮮駐屯軍을 도처에서 격멸 소탕 하였다.⁶⁾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15星霜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祖國은 근 40년에 걸친 일제의 통치기반에서 解放되었다.

同志82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 앞에는 祖國光復의 大事變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할 새로운 역사적 과업이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8월에 소집하신 역사적인 소할바령會議에서 조국 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넘어갈데 대한 새로운 鬪爭方針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령량을 최대한으로 보존 축적하고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게 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소할바령會議를 계기로 抗日武裝鬪爭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의 군사 정치활동을 현명하게 조직 령도하시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항일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묶어 세우시고 광활한 지역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끊임없는 군사적타격

6) 소련군에 所屬되어 羅津, 淸津등으로 進擊한 部隊는 오케얀스카야에 있었던 教導隊 南野營 部隊였다. 그들은 하바로호스크 郊外의 北野營에 있었던 김일성의 命命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을 가하시는 한편 朝鮮人民革命軍 隊伍를 간부화하기 위한 군정훈련을 적극 밀고나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3년 9월에 발표하신 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⁷⁾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主體型的 共產主義 革命家로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지였다. 조국광복의 革命的 大事變이 박두함에 따라 일제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 준비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우리 인민은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장래 朝鮮의 大統領》으로, 《獨立 후의 朝鮮의 最高指導者》로 《大元帥》로 높이 우러르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전인민적 항쟁으로 적극 호응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조국해방을 위한 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부대들에 最後攻擊命令을 내리시였으며, 대일전쟁에 참가한 소련군대와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8월 15일 마침내 강도 일제를 꺼꾸러뜨리고 祖國을 解放하시였다.

解説

北韓의 歷史책에는 김일성이 소련으로 도주했다는 말이 없다. 그러나 日本 記錄에 의하면 1940年 12월에 그는 沿海州로 脫出하였다.

-
- 7) 「朝鮮革命家들은 朝鮮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論文은 1943년이 아니라 1970年 前後에 捏造된 創作物이다.
 - 8) 當時 김일성은 소련 沿海州 하마로호스크에 있었던 東北抗日聯軍 教導隊의 일개 大隊長으로 있었을 뿐이어서 解放된 朝鮮에는 10月 中旬까지 그 存在가 알려지지 않았다. 10월中旬에 平壤에 나타났을때는 市民들은 모두 뜻밖인 反應을 보였다.

이때 소련측과 미리 連絡을 하지 않았던 탓으로 김일성은 「보코시코브」의 監獄에 갇혀있다. 그후 東北抗日聯軍 第2路軍의 周保中이 김일성의 身分을 확인하여 풀려났으나 그후에도 「하바로호스크」에 연행되어 소련측의 취조를 받았다고 한다.(特務彙報, 1942年, 第4號)

그런데 이 김일성은 中國人 周報中이 그 身分을 밝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측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遊擊隊 幹部에게는 없었던 매우 특이한 일이다. 37年 11月 普天堡 襲擊 金日成이 죽은 후 北韓 김일성(金一星)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事件이 抗日聯軍의 一部 幹部나 소련측에 잘 알려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여기에서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하바로호스크」의 東北抗日聯軍 教導隊에서 상당히 認定을 받게 된 모양이다. 그 이유는 그가 소련 國家安全委員會(KGB)遠東方面 責任者인 슬로킨 少將의 祕密情報員이 되어 教導隊의 내부사정을 全部 KGB에게 密告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呂政의 手記, 1990年 4月 22日 東亞日報)

그 결과 그는 第1大隊長이 되었는데 이것은 族團政治指導員이 있던 崔庸健을 빼면 金策과 같은 다른 韓人幹部들과 거의 맞먹는 地位였다.(北朝鮮王朝成立秘史. 111面).

이 教導旅團時代는 김일성이 北韓에 등장하는 直接的인 跳躍台가 되었다.

略傳52는 沿海州로 김일성이 망명한 사실을 감추기는 하였으나, 그외에는 비교적 사실에 맞게 쓰고 있다. 45年 8月 9일에 「쏘련군대」가 對日抗戰을 했 다든가 日帝關東軍이 「쏘베트軍隊」에 격멸되었다든가 하는 점은 歷史的 史實

을 어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김일성이 「凱旋」하였다고 썼다. 이 歷史歪曲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외곡으로 발전한다. 지금 平壤에 「凱旋門」이 서 있는것도 그 結果인 것이다. 略歷69는 中共幹部가 小部隊活動으로 넘어가게 한 中共會議 대신에 김일성이 小部隊活動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小哈爾巴嶺會議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最大의 歪曲은 스탈린이 1945年 8月 9日에 한 對日抗戰을 略歷에서는 김일성이 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조선인민혁명군」이 關東軍과 朝鮮駐屯軍을 격멸한 것 같이 만든 점이다. 이 傳記부터는 「朝鮮의 解放과 獨立」에 관한 스탈린과 소련軍隊의 역할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同志82에 이르러서는 김일성이 對日抗戰을 하기 전인 43년에 「勞作敎示」가 있었다고 사실을 捏造하고 있다. 또 당시의 스탈린大元帥 대신에 김일성을 「大元帥」로 만드는 捏造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北韓은 소련이 아니라 김일성이 「解放」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第 2 篇〉

15. 解放—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略傳52

김일성 장군은 조선인민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이 일제 통치 하에서 해방된 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위대한 제반 민주개혁들의 제창자이며¹⁾ 직접적 지도자이다. 그의 명철한 지혜와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조직적 기능은 조국의 부흥 발전과 자유 행복을 위한 광범한 조선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력량을 령도하고 있다.

위대한 소련軍隊의 武力에 의하여²⁾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직후 朝鮮勞動黨의 前身黨인 共產黨 北朝鮮分局³⁾을 創設할 때에 김일성 장군은 조선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전체 朝鮮人民과 共產黨 앞에 제기되는 중요 임무로 규정하였고, 그 실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當面課業을⁴⁾ 제기하였다.

- 1) 광범한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을 전개하며, 애국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력량을 집결하여 우리 민족의 완전 자주독립을 보장하는 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을 建立하기에 노력할 것
- 2) 민주주의 건국사업에 제일 장애물인 일본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국제 파시스트주구들을 청산하며,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을 순리롭게 할 것.

1) 諸般民主改革은 소련 「民政」이 만든 設計圖에 따라 김일성이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의 權限으로 實施하였다.

2) 여기서 北韓의 解放이 소련軍隊의 武力에 의한 것이라고 是認하고 있다.

3) 여기서 朝鮮勞動黨의 前身黨을 제대로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라고 是認하고 있다.

4) 1945年 10월에 열린 北朝鮮五道黨代表 및 熱誠者大會에서 採擇된 黨의 基本政治路線 (朝鮮通史(下)1958年. 韓國版, 296面)

3) 전 조선의 통일적인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 각 지방에 인민의 진정한 인민정권인 人民委員會를 조직하며, 민주주의적 모든 개혁을 실시하며, 인민의 생활을 향상하며, 일제가 파괴하고 간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며, 철도운수를 회복하며,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의 기본 토대를 닦을 것

4) 이와 같은 任務와 課業을 달성하기 위하여 共產黨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당 주위에 광대한 군중을 단결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 군중을 조직하는 사회단체들을 강력히 추진할 것

이 과업을 실천하는 첫 대책으로 共產黨은 당세를 강화하며, 대중을 戰取하는 광대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근로대중 속에서 우수한 先進分子들을 흡수하여 불과 몇달 동안에 수백명에 불과하던 당원들을 수천명에까지 장성시키었으며, 광대한 군중 단체들을 조직하여 당 주위에 수십만의 군중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國 外相會議 決定이 발표되자, 국내의 세력배치는 愛國的 民主勢力과 賣國的 反動勢力의 두 진영으로 현격히 분리되었다. 南朝鮮에 진주한 미군의 지시를 받는 반동세력은⁵⁾ 모스크바 3國 外相會議 결정을 반대하여 진출하였다.

전세는 벌써 명백하여가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에 美軍의 進駐로⁶⁾ 말미암아 조선문제의 해결은 용이하게 되지 아니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남조선에 美軍의 進駐로 말미암아 또는 그들의 조종 하에있는 親日派, 民族叛逆者들의 발악으로 말미암아 朝鮮問題가 쉽게 해결되지 않

5) 여기서의 不純熱力을 「反動」이라 規定하였다.

6) 소련軍의 進駐를 言及하지 않고 美軍進駐만 言及하는 北韓의 常套의 文章法.

우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위대한 쏘베트軍隊가 進駐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北朝鮮에서 만이라도 모스크바 3國 外相會議 결정에 예견된 우리 조국의 民主化에 대한 문제를 실천하고 北朝鮮을 우리조국의 강력한 民主基地로⁷⁾ 전변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2월 8일에 北朝鮮 各 民主政黨, 社會團體들은 북조선 중앙인민 정권기관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創設하고 그의 委員長으로 김일성 장군을 선거하였다.

同志82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며 조국에 개선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생활에서 일찌기 없었던 民族의 大慶事였다. 이때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主體思想을 혁명과 건설,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 구현하기 위한 자랑스런 새 역사가 창조되기 시작하였다. 民主와 反動간의 대립이 첨예하였던 해방직후의 암흑한 정세는 인민들에게 올바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밝혀주고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세워,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동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7) 民主基地創設路線은 소련 「民政」이 김일성을 朝鮮共產黨 代表 및 熱誠者大會에 出席하도록 한 45年 10月10일에 벌써 決定되어 있었던 路線이다. 45年 12月27일에 있었던 모스크바 3相會議決定보다 2個月半以上이나 以前에 決定되고 있었다.
(金日成著作集 I. 309面)

통찰하시고 1945년 8월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에서⁸⁾ 새 民主朝鮮 建設路線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이 성취됨으로써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鬭爭課業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켜야하며 조선인민 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50페이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민주조선 건설로선을 내놓으시면서, 이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당명한 建黨, 建國, 建軍의 3大課業을 提示하시었다.

3大課業을 관철하여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0월에 발표하신 고전적 로작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에서⁹⁾ 우리가 건설하는 새 민주조선은 進步的 民主主義에 기초하고있는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이라는것을 밝히시었다.

자유롭고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로선을 명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黨을 창건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쌓으신 튼튼한 組織思想的 基礎에 의

8) 이 演說은 45年 8月 20日에 한 것으로 되어있다(上揭書, 250面). 그러나 이 때 김일성은 아직 沿海州 하바로호스크에서 東北抗日聯軍 教導隊를 統率하고 있는 中國人 周保中の 指揮下에 있었다. 이러한 演說이 있었다는 근거는 薄弱하다. (周保中將軍傳. 88年 中國解放軍出版社刊. 477面)

9) 이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는 45年 10月 3日에 한 「강의」로 되어있다(金日成著作集 I. 280).그러나 그는 10月 14日 「김일성將軍 환영 平壤市 群衆大會」가 있을 때까지 群衆앞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이러한 演說은 하였다는 객관적 證據도 없다.

거하여 1945년 10월10일 우리 黨을 創建하시였다.¹⁰⁾ 우리 黨의 創建은 일찌기 《트·드》의 기발밑에 우리 黨의 첫 뿌리를¹¹⁾ 마련하시고 항일혁명의 간고한 나날 주체적인 혁명적 黨 건설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위 黨이 창건됨으로써 조선 로동계급과 인민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하는 김일성동지의 黨, 주체형의 새로운 혁명적 黨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주체적인 인민정권 건설로선을 해방된 새로운 조건에 구현하시여, 1946년 2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勞農同盟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統一戰線에 의거하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세우시였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人民政權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정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黨과 정권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면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몸소 창건하신 朝鮮人民革命軍을 정규적 혁명무력인 朝鮮人民軍으로 강화발전 시키시여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자주독립국가의 武力的 基礎를 튼튼히 마련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建黨, 建國, 建軍의 력사적 위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심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가 빛나게

10) 김일성은 1945년 10월 10日 朝鮮共產黨을 創建한 것이 아니라 朴憲永이 서울에서 再建한 朝鮮共產黨의 以北五道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 參加하였을 뿐이었다. 이大會에서는 金鎔範이 黨秘書가 되었다.

11) 《트·드》는 「主體型的 黨」을 들먹이기 위하여 解放前에 설정된 架空組織

해결되었다.

解説

해방후 김일성이 北韓에 처음 나타난 곳은 1945年 9月 19日의 元山港이었다. 그후 그는 平壤에 가서 平壤市 衛戍司令部의 司令官 모르딘少佐 아래서 補佐官을 하였다.

소련 沿海州에 있었을 때 김일성은 周保中の 旅長인 東北抗日聯軍 教導隊에서 第1大隊長을 하고 있었다. 45年 8月 中下旬과 9月初에 걸쳐서 이 教導隊幹部들과 成員들은 大部分 滿洲에 活動하며 그들의 故鄉이나 거주지였던 各都市에서 소련軍衛戍司令部의 副責任者가 되어 建黨, 建政, 建軍工作에 參加하였다 (周保中將軍傳. 477面)

따라서 김일성이 平壤市 衛戍司令部의 副責任者가 된 것은 그의 故鄉이 平壤인 것으로 보아 지극히 당연하다. 또 그가 建黨, 建政, 建軍工作에 參加한 것도 소련軍이 東北抗日聯軍教導隊 出身 中共黨員들을 名地에 配置시키면서 맡긴 工作과 同一하다.

김일성이 45年 10月 10日의 朴憲永系統 朝鮮共產黨 以北五道責任者會議에 參席한 것도 소련軍과 東北抗日聯軍教導隊의 建黨工作을 위하여 參席한 것이며 46年 2月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委員長이 된 것도 建政工作의 結果이다. 소련과 중국의 앞잡이로서의 建黨, 建國工作이었던 것이다.

北韓에 돌아온 教導隊出身 幹部中에서 유독 김일성만 平壤出身이었다는 사실은 金日成의 登場과 北韓의 運命을 決定한 重要한 要因이었다. 그는 또 歸國 때는 朝鮮工作團의 團長을 맡고 있기도 하였다. (東亞日報. 1990年 4月 22日字, 呂政의 手記).

김일성이 平壤에 나타난 후 그는 蘇聯軍의 指揮下에 있었고 나중에는 蘇聯 「民政」의 指揮를 맡았다. 소련 「民政」은 建黨, 建政, 建軍의 모든 作業을 도맡아 하고 김일성에게는 그들이 작성한 演說 原稿만 읽게 하였다. 소련語로 된 原稿를 韓國語로 번역한 것은 소련파의 田東赫이었다.(北朝鮮王朝成立秘史)

김일성은 이 시기에 蘇聯 「民政」의 傀儡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略傳52는 이러한 史實을 그대로 部分的으로 드러 내놓고 있다. 解放이 소련 軍隊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3國外相會議에서 김일성이 贊託으로 되었다든가 하고 있는 것은 그 例로 된다.

그런데 同志82에 이르러서는 「主體의 나라」를 세운 것은 김일성의 「主體思想」에 의한 것이라고 史實을 외곡하였다.

이 傳記에서는 김일성이 祖國光復을 성취하고 凱旋한 人物로 되어있다. 그는 凱旋한 후 「主體思想」을 구현하여 나갔으며, 8·15解放 直後부터 一連의 演說을 자기가 하고 建黨, 建國, 建軍課業을 遂行했다는 것이다. 소련군과 教導隊의 方針을 「김일성의 方針」으로 외곡한 것이다.

김일성은 45年 10月, 朴憲永이 해방직후에 서울에서 再建한 朝鮮共產黨의 以北組織인 以北五道責任者會議에 참석하여 「朴憲永 萬歲」를 불렀다. 그러나 同志82에서 김일성은 朝鮮共產黨 創建者로 둔갑하여 버렸다. 그러면서 그가 「創建」한 解放後의 朝鮮共產黨은 1925년에 創建된 朝鮮共產黨이 아니라 26年으로 설정된 打例帝國主義同盟(ト・ト)을 「歷史의 뿌리」로 한 것으로 되었다.

뿐만아니라 46년에 소련 「民政」이 세워준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도 「抗日武裝鬪爭時期에 김일성이 提示한 人民政權 建設路線」이 구현된 것이라고 외곡하였다.

抗日武裝鬪爭時期인 1933年 1月 中共中央은 종래의 소비에政權 形態를 고치고 人民革命政府로 하자는 人民革命政府路線을 明示한 書翰을 中共滿洲省委員會에 내놓았었다. 이것이 이른바 人民政權 建設路線인데 北韓은 이 中共路線을 김일성路線으로 외곡하여버린 것이다.

1947年 2월에 建軍된 朝鮮人民軍도 同志82는 解放前의 朝鮮人民革命軍을 強化 發展시킨 것으로 외곡하였다. 그러나 「朝鮮人民革命軍」이란 1936年 이후 「東北抗日聯軍 第2軍」의 別稱이었다. 여기에서도 軍隊의 正統性을 歪曲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김일성은 解放 直後의 소련 「民政」의 역할과 解放前의 中共의 역할을 완전히 자신의 역할로 뜯어고쳤다. 反主體的이었던 北韓의 建黨, 建政, 建軍을 敘述上에서만 「主體的」으로 외곡하여 버린것이다. 建國 始初의 이러한 歷史歪曲은 나중에 北韓歷史 全體를 외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6. 土地改革 등

略傳 52.

김일성 장군에 의하여 지도된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제도를 공고히 하며, 그를 일층 민주화하며, 민주주의적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민족산업을 복구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물질적 형편을 개선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며, 민족문화와 예술을 부흥 발전시키며,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3國外相會議 결정에 기초한 통일적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자기의 선차적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열렬한 지지하에서 재반 民主改革들을 성과있게 실시하였는 바, 이 改革은 북반부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였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조선인민의 반역자이며, 미제의 주구인 李承晚 徒黨들의 경찰제도가 수립된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민주과업들이 단 한가지도 실현될 수 없었다.

북조선에서 실시된 민주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하나는 土地改革이였다.

1946년 3월 5일 북조선 臨時人民委員會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일본 식민지 략탈자들과 민족 반역자들과 조선인 地主들의 소유의 모든 土地나 教會 및 寺院 所有의 일부 토지가 沒收되어 토지 없는 농민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되었고, 따라서 小作制度가 금지되였다. 이와 동시에 지주들에게 대한 농민들의 負債는 無效로 되었으며, 日本人, 民族反逆者 및 大地主들의 소유였던 주택과 영농시설과 가축과 농기

구들은 몰수되어 농민들에게 無償으로 분여되었다.

土地改革은¹⁾ 거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의의를 가지었다. 이 개혁은 封建的 土地所有制를 완전히 清算하였으며, 농촌에서의 反動的 據點이었던 지주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의 물질적 기반을 일소하였다.

그리하여 농업의 급속한 발전과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반조건들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농민들은 토지의 영원한 主人²⁾으로되어 자기의 땅을 경작하게 되었으며, 대대로 계속되던 封建的, 植民地的 搾取와 빈궁과 기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열성을 제고시켰으며,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였으며, 북조선의 모든 정치, 경제생활을 일신하는데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대대손손이 내려오던 봉건적 기반과 가혹한 착취로부터 해방된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열성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된 결과 파종면적이 해마다 현저히 확장되었으며, 벌써 1949년도 곡물생산량은 전쟁전인 1944년 수확고의 120.9%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공화국 북반부는 「량곡이 부족되던 地帶로부터 량곡의 여유가 있는 地帶로 전환되었다」(김일성)

토지개혁의 뒤를 이어 人民政權과 勞動黨은 김일성 동지의 지도하에서 人民經濟의 決定的 部門인 산업을 복구 발전시킴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었다.

1) 土地改革으로 貧雇農이 2정보씩 땅을 얻고 富農과 非敵對地主들이 2정보씩까지 土地所有를 許容받은 것은 事實이다. 그 結果 土地를 잃은 北韓사람들은 南韓으로 流浪하게 되었고, 南韓의 모순을 격화시켰다.

2) 土地改革으로 땅의 주인이 되었던 農民들은 1958년까지에 國家에게 땅을 도로 빼앗겨 協同農場員이나 國營農場員이 되어 오히려 영원한 雇農으로 轉落하였다.

1946년 8월 10일에 발표된 重要産業 國有化法令에 의하여 산업·운수·통신·은행 등이 국유화되어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었다. 그 결과 경제부문의 지도권이 새로운 정권인 인민정권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경제에서 國家的 部門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는 경제가 계획적 발전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重要産業 國有化 法令은 일용품생산에 個人資本을引入하고 개인의 기업적 창발성을 리용하기 위하여 조선인 소유의 중소기업 기업소들을³⁾ 몰수하지 않았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기 이전에 김일성 장군이 령도하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勞動法令을⁴⁾ 채택하였다(1946년 6월 24일). 同法令은 국영기업소, 국가기관, 개인기업소 및 개인기관의 노동자, 사무원들을 위하여 8시간 및 6시간 노동제를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노동에 의한 동일한 보수제를 설정하였으며, 매주 1회의 유급 휴식일과 매년 1회의 2주일 또는 1개월간의 有給 休暇制를 설정하였으며, 임신부를 위한 휴가와 일시적 또는 상시적 노동능력 상실시의 補助金과 의무적 노동보호와 의료상 무상방조를 설정하였다.

産業國有化와 勞動法令 實施는 북반부에서 산업의 급속한 복구와 발전을 보장하였다. 벌써 1949년에 공화국 북반부의 산업 생산량은 1946년에 비하여 4배로 증가되었으며, 기계생산은 1944년에 비하여 약 1배반으로 증가되었다.

3) 朝鮮人所有의 中小産業 企業所들은 重要産業 國有化法令이 나왔던 46年 8月以後 당분간 國家에 沒收되지 않았으나, 이들도 1958년까지 전부 國家所有로 되었다. 企業의 私有化는 이以後 없어진 것이다.

4) 김일성은 46年 6월에 勞動法令을 채택하여 8時間勞動을 宣布하였으나 동시에 「運動」이란 형태의 剩餘勞動 착취방법을 考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千里馬運動이 그것인데 이로 인하여 8時間勞動制는 有名無實化되었다.

북반부에서는 국가의 經濟的 自主權과 政治的 自主權의 결정적 조건 중의 하나인 자기의 獨自的 產業이 성과있게 창설되었다.

산업, 농업 및 기타 인민경제의 각 부분의 급속한 발전과 아울러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수준도⁵⁾ 급속히 향상되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노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여러 배로 증가되었으며, 생활필수품 가격은 부단히 저하되었다. 노동자, 사무원들의 주택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넓고 아름다운 주택들과 함께 文化會館, 俱樂部, 劇場, 學校들이 수다히 건설되었다.

김일성 장군과 黨과 人民政權은 사회 및 가정 생활에서 세기적으로 노예상태에 있던 女性들에게 심대한 배려를 돌리었다. 그리하여 1946년 7월 30일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男女平等權法令을⁶⁾ 發布하였다. 자기 나라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조선여성들은 정치, 경제 및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인민정권은 人民保健事業에⁷⁾ 큰 주의를 돌렸다. 소련 군대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 북반부의 도시, 노동자 거주구역, 산업기업소 및 農村에 많은 국립병원, 종합병원, 진료소, 약국, 간이진료소들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1949년 초에 벌써 700개소에 달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공원들과 유치원들과 탁아소들이 개설되었다. 1948년에 373만명의 북반부 인민들이 무료로 의료상 방조를 받았다.

5) 物質的·文化的 成果들은 김일성이 挑發한 韓國戰爭으로 완전히 없어졌다.

6) 男女平等法令은 勞動現場에서 하는 勞動의 質과 種類에 男女差別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 實質의 內容이다. 이로 인하여 女性들은 家庭勞動 이외에 8時間 勞動까지 부담하게 되어 男性보다 더 무거운 負擔에 시달리게 되었다.

7) 保健施設들은 韓國戰爭으로 거의 全部 파괴되었다.

과거 일제통치의 악독한 유산인 코레라, 천연두, 티브스 같은 傳染病은 1948년에 이르러 북반부에서 一掃되었으며 결핵, 트라хом 및 기타 疾病의 罹病率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근로자들의 보건을 위하여 인민 정권은 많은 휴양소, 료양소, 정양소들을 건설하였으며, 그 결과 매년 수만명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그곳에서 휴양, 치료 받게 되었다.

북반부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의 령도하에서 人民敎育과 民族文化藝術의 복구 발전에 있어서도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현대의 과학 습득을 보장하여 주는 새 敎科書와 새 綱領을 가지고 모국어로 교수사업이 진행되었다.

1948년에 人民學校 數는 1944년에 비하여 18배로 증가되었으며, 학생수는 17배로 증가되었다. 초급학교 및 中學校 數는 20배로 증가되었다. 각종 技術學校 數는 12배로 증가되었으며, 학생수는 10배로 증가되었다. 解放 以前에 북조선에는 단 한개의 大學도 없었으나 해방 후에는 5년간에 15개의 大學이 개설되었다. 이 외에 1,758개의 成人初等學校 및 中學校와 70개의 通信中學 및 通信大學과 夜間學校가 개설되어 약 1백만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1948년 말까지에 도시와 농촌에 설치된 特設講習所들에서는 2백만명 이상이 글을 배웠다.

우리 조국의 全歷史에 있어서 북반부 청년들은 처음으로 각종 학교에 자유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북반부는 文盲이⁸⁾ 전반적으로 퇴치된 先進的 文化와 科學의 나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戰爭이 시작되기 이전에 북조선에서는 80종의 중앙 및 지방신문 과 수십종

의 잡지들이 발간되었으며, 수천만부의 서적들과 소책자들이 출판되었는 바 그중에는 맑스-레닌주의 古典들과 朝鮮 作家들의 작품들이 수다히 출판되었다. 백여개의 國立圖書館들과 수천개의 도시 및 농촌 구락부들과 수천개의 圖書室들과 民主宣傳室들이 개설되었다.

평양에는 國立藝術劇場, 國立劇場, 舞蹈研究所가 개설되었으며 協奏團, 交響樂團이 조직되었으며 6개소의 映畫館이 개설되었다. 道所在地들과 많은 郡所在地들에도 극장이 개설되었다.

인민 속으로부터 재능있는 演劇俳優들과 오페라歌手들과 音樂家들과 劇作家들과 演出家들이 배출하였다.

새로운 문화예술은 북반부의 주민생활에 있어서 不可分の 要素로 되었다.

국내에서 실시한 이러한 제반 民主改革의 획기적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김일성 장군은 8.15解放 5周年 記念式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 간단한 數字들은 해방 후 5년동안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전개된 장엄한 민주건설사업의 총화를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게 된 것은, 우선 조선 인민이 위대한 朝鮮군대의 武力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朝鮮이 조선인민에게 私心없는 友誼的 援助를 준 까닭이다.」

제반 民主主義的 改革을 실시한 결과 북조선에선 통일적 민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견고한 정치 경제적 토대가 창건되었다.

이것은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한 근로대중의 선봉대인 勞動黨의 지도적 역할

8) 文盲退治는 北韓에서는 1949년에 漢字使用이 금지됨으로써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하에서 확고한 勞農同盟을 토대로 한 人民委員會들이 수행한 업적의 총화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수령이며, 인민정권의 창건자이며, 고무자이며, 로동당의 조직자이며, 지도자인 김일성 장군의 공로인 것이다.

同志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 社會 經濟發展의 合法的的要求와 우리 당과 인민정권 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을 깊이 헤아리시고 전체 인민을 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 과업 수행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서 쌓으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⁹⁾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여 植民地的 및 封建的 社會 經濟關係를 清算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불과 몇달사이에 북반부에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民主改革이 철저히 수행된 결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식민지적, 봉건적 잔재가 청산된 사회,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人民民主主義 制度가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사회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建國思想總動員運動과 增產 經濟運動, 文盲退治運動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 나가시었다.

9) 여기서는 소련 「民政」이 김일성에게 실시하게 한 제반 民主改革을, 抗日武裝鬪爭時期에 김일성이 했다는 「改革」의 經驗에 토대한 것이었다고 歪曲하고 있다.

解説

1946년부터 北韓이 실시한 諸般「民主改革」은 소련「民政」의 指示에 따라서 매우 짧은 기간에「完了」되었다. 수천년을 두고 쌓아올린 韓民族의 傳統的인 習俗이 하루아침에 파괴당하였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農業部門에서는 종래 地主가 담당하고 있었던 農業經營力, 富農中農이 갖고 있었던 農業技術이 없어지고 머슴꾼들이 가지는 고용살이特性이 北韓에 定着하게 되었다.

工業部門에서는 태반이 日本人들이 經營한 것이었고, 그 技術者도 日本人이었으므로 表面上은 모순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產業國有化로 北韓에는 企業家가 없어졌고 게다가 技術, 資本도 사라져서 工業의 發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것도 韓國戰爭으로 日本人이 남긴 工業施設마저 파괴당하여 北韓의 荒廢化를 초래하였다.

男女平等權法令은 종래 무거운 家事勞動을 하고 있었던 女性들에게 새로 8時間勞動의 무거운 勞動을 덧붙여 준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女性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重勞動과 過剩勞動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資本主義가 채 발달되지도 않았던 植民地 朝鮮이었고 그로부터 解放된지 1年밖에 안되었던 이러한 時期에 강행된 제반 民主改革을 封建社會나 植民地社會에서 다소 축적되어 왔던 技術이나 資本을 그나마 없애 버렸고, 종래에 認定되어 왔던 약간의 自由, 民主主義, 人權도 말살하게 되었던 것이다.

1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略傳52.

만일, 해방직후 김일성 장군의 령도하에서 조선인민들이 자기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조국 북반부에 강력한 民主主義¹⁾를 창설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우리 조국의 운명이 어떠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美英帝國主義 武力侵犯者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祖國解放戰爭이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해방 후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국 남반부에 벌어진 정세와 우리 조국에 대한 美帝國主義者들의 략탈적 식민지정책과 무력침범은 위대한 쏘련 군대가 進駐한 유리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북조선에 강력한 민주주의를 축성하고 우리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 김일성 장군의 예견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었다.

美帝國主義者들은 우리 조국에 대한 자기들의 植民地 隸屬化政策을 달성할 목적으로 1946년 3월과 1947년 5월에 개최되었던 제 1 차, 제 2 차 蘇美共同委員會事業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우리 조국에서 분단하는 정책을 공공연히 실시하였다.

그들은 벌써 第 1 次 蘇美共委가 결렬된 후 남조선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反動勢力을 로골적으로 조장하며, 남조선의 民主主義 諸政黨, 社會團體들의 활동을 로골적으로 저해하며, 그들에게 야만적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 北韓勞動黨의 民主基地創設路線은 武力統一路線이었다. 이것은 김일성이 韓國戰爭을挑發한 것으로 證明되었다.

그들은 蘇美共同委員會 事業이 결렬된 후, 蘇·美 兩軍 동시철거와 조선문제의 해결을 조선인민 자체의 수중에 맡기자는 소련정부의 정당한 제의를 거부하고 조선문제를 非法的으로 유엔에 상정시키어, 소위 유엔朝鮮委員會이란 미명하에서 1948년 5월 10일 남조선에 망국적 단독선거를 실시하려고 로골적으로 준비하였다.

우리 조국에는 민족적 분렬의 危機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1948년 4월에 南北朝鮮의 76개의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으로써 력사적인 南北聯席會議가 소집되었다.

김일성 장군은 4월, 南北聯席會議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美帝國主義者들과 그들의 주구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이 「남조선에서 企圖하고 있는 반인민적 망국선거를 보이코트하여 파탄시키는 것은 현재 전체 조선민족 앞에서 나서는 최대의 정치적 과업이다... 진정한 조선의 애국자들은 이 단독선거가 남조선을 불가피적으로 멸망의 구렁에 인도하며, 미국의 植民地 隸屬物로 변화시키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이 단독선거를 보이코트하여야 하겠다. 이 거족적 투쟁에 있어서 전체 조선의 애국자들은 黨別, 宗教別, 政治性 見解의 如何를 不問하고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겠다...

지금 조국의 위기가 닥쳐 온 이 엄중한 시기에 처한 우리가 통일되지 않고, 또는 우리 조국을 분렬할 위기를 배격하지 않고, 우리 조국의 남쪽 半部를 美帝國主義者들의 植民地로 만들려는 기도를 분쇄할 일대 救國對策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全朝鮮人民들과 후손들에게 대하여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반드시 각오하여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4월 南北聯席會議은 외국의 간섭 하에서 진행되는 남조선 단독선거는 기만적 선거이며 허위라는 것을 선전하였으며, 이러한 선거로 수립된 정부를 조선인민은 언제든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여하를 물론하고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명하고 남조선 망국적 단독선거를 보이코트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락탈자들과 그 주구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거족적 보이코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로와 학살, 武力과 欺瞞으로 5월 10일 南朝鮮 單獨選舉를²⁾ 위조하고 李承晩 傀儡政府를 수립하였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 벌어진 사태는 더욱 엄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김일성 장군은 1948년 6월 29일, 南北朝鮮 諸政黨, 社會團體 指導者協議會에서 「남조선 단독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조국통일을 위한 장래 투쟁대책」에 대한 역사적 報告를 진술하였다.

이 역사적 보고에서 김일성 장군은 조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독립을 期하며, 조선인민의 의사와 숙망을 표현하여 그들을 대표하는 全朝鮮 最高立法機關을 수립하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을 실시함으로써 全朝鮮政府를 수립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南北朝鮮 諸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協議會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憲法에 의한 자유선거 실시에 기초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全朝鮮 執法機

2) 北韓은 이미 1946년 2월 8일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란 「政權」을 選舉도 없이 樹立하고 있었다. 또 47년 2월 22일에는 選舉의 결과 北朝鮮人民委員會가 樹立되었다. 이때 韓國은 美軍政下에 있었다. 따라서 單獨選舉는 北韓이 훨씬 먼저 實施하고 있었다.

關인 朝鮮最高人民會議를 창설하고 南北朝鮮의 代表들로서 全朝鮮 中央政府를 수립할 데 대한 역사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1948년 8월 25일에 南北朝鮮을 통한 朝鮮最高人民會議 역사적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의 결과에 우리나라에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³⁾ 宣布되고 共和國 政府가 수립되었으며, 그의 초대 수상으로 김일성 장군이 선거되었다.

1949년에 이르러 남조선에서 정세는 더욱 악화하기 시작하였다. 미제국주의 자들과 그 주구 친일, 민족 반역자들은 남조선에 反動傀儡政府를 수립한 후,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동족상쟁의 內亂을 공공연히 준비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들은 38선 충돌사건을 빈번히 도발시키며, 民主主義 諸政黨, 社會團體들을 지하로 몰아 넣었으며, 우리 조국의 우수한 아들 딸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여 남조선을 기근과 질병, 테로와 학살, 감옥과 고문의 반동 경찰 통치의 생지옥으로 변하게 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1946년 하순 남조선에서 공산당의 합법적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조건 하에서 綱領과 규약상 원칙이 류사한 근로자들의 黨들과 합당하여 南北勞動黨의 두개의 당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北勞黨 1946년 8월, 南勞黨 1946년 11월), 다시 한개의 朝鮮勞動黨으로 合同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6월에 南北朝鮮勞動黨 聯合中央委員會가 소집되어 兩黨聯

3) 1948年 8월에 成立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大韓民國이 成立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서 成立시킨 것 같이 說明되어 있지만, 사실은 47년에 成立된 프로레타리아獨裁政權인 北朝鮮人民委員會의 後繼政權이라는데 있다.

함에 대한 決定을 채택하고 南北朝鮮勞動黨을 朝鮮勞動黨으로 통일시키고 그의 委員長으로 김일성 장군을 선거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긴장된 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애국적 민주력량을 집결하여 강력한 統一戰線을 결성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구국대책을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1949년 6월에 미군의 즉시철거, 國土完整, 祖國의 統一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북조선의 72개의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대회가 소집되어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結成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책에 대한 宣言書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美帝의 략탈자들의 조종 하에 있는 리승만 賣國逆徒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祖國戰線의 제의를 거부하고 38線武裝衝突事件 挑發로써 祖國戰線의 제의에 대답하였다.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1950년 6월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추진제의를 재차하였다. 그러나 리승만 逆徒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추진 제의를 지지하는 자들을 반역자로 인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 제의의 실천도 역시 파탄 시키었다.

1950년 6월 16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우리나라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志望에 근거하여 朝鮮最高人民會議와 南朝鮮國會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려고 재차 提議하였다.⁴⁾

4) 北韓의 이러한 一連의 平和統一政勢가 위장이었던 것은 金日成의 戰爭挑發로 證明되고 있다.

그러나 美帝 략탈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賣國逆徒들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 대신에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조국 북반부에 대한 배신적 武力侵犯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戰時環境으로 들어 가게 되었다.

同志8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북반부에서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이 승리적으로 완수되자 社會主義에로 넘어가는 過渡期 課業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인민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 맞게 더욱 발전시키시어 1947년 2월 北朝鮮人民委員會를⁵⁾ 수립하시었다.

프로레타리아獨裁政權인 北朝鮮人民委員會가 수립됨으로써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시작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과도기 첫시기 경제건설에 깊은 주목을 돌리시고 독창적인 自立的 民族經濟 建設路線을⁶⁾ 관철하시도록 하시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人民經濟計劃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위한 준비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48년 3월 우리 당 제2 차대회를 소집하시고 조국의 自主的 平和統一 方針과 북반부의 革命的 民主基地를 더욱 강화하고 黨隊列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綱領的 課業을 제시하시어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5) 同志 82는 北朝鮮人民委員會가 正式政權이었던 것을 여기에서 실토하였다.

6) 自主的 民族經濟建設이란 發想은 韓國戰爭後인 1950年代 後半부터 생겼다. 同志 82에서는 이것을 歪曲하여 40年代後半에 가져오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회후 民主基地를 強化하기 위한 事業⁷⁾을 현명하게 領도하시는 한편, 남조선에서 괴뢰정권을 조작하려는 미제의 민족분렬 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구국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1948년 4월 역사적인 南北朝鮮 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聯席會議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南北聯席會議의 성과를 공고히 하시면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였으며, 1948년 9월9일 남북조선 전체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唯一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創建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共和國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준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정치·경제·군사적 威力을 백방으로 強化하시는 한편,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合理的인 救國方案들을 주동적으로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 領도하시였다.

解說

北韓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발족한 것은 李承晩 大統領의 大韓民國 樹立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7) 戰爭準備를 말한다.

北韓에서 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創建方針은 이미 1945년부터 있었고 그들의 政權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만든 것은 1946年 2月이었다. 선거에 의한 政權을 만든 것도 1947年 2月의 北朝鮮人民委員會였으므로 大韓民國보다 「建國」時期가 1年半이나 빠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南北聯席會議를 소집하여 大韓民國樹立을 방해하였다.

이 시기의 北韓政權은 蘇聯 스탈린의 傀儡政權이었고 그 指導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 스탈린主義였다. 同志82에서는 이 점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이 정권이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한 政權이었다고 쓰고 있다.

〈第 3 篇〉

18. 韓國戰爭

略傳 52

김일성 장군은 북조선을 배신적으로 侵攻한 美帝의 武力侵犯者들과 그 주구 리승만 賣國徒黨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옹호하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이다.

전쟁이 시작된 첫날부터 김일성 장군은 解放戰爭에 있어서 조선인민들의 무장투쟁의 전체지도를 자기의 양 어깨에 걸머지었다. 그는 전쟁 초기에 창설된 軍事委員會 委員長으로서¹⁾ 국가의 일체 軍事政治事業에 대한 지도의 기능을 자기 수중에 집중하였으며, 또한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으로서 인민군대의 일체 전투작전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戰爭行程은 오직 김일성 장군과 같은 그러한 탁월한 령도자이며, 능숙한 령도자만이 그리고 그와 같은 영명한 군사적 활동가만이 이와 같은 重荷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여 주었다.

美帝 侵略者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열렬한 동정을 일으키고 있다. 이 鬪爭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있는 수억만 아세아 인민 대중들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1) 김일성은 50年 6月 26日에 軍事委員會委員長이 되었다. 또 그는 이 때부터 朝鮮人民軍 最高司令官으로서의 職務를 맡았다.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그를 中華人民共和國과 소련을 반대하는 아세아에서의 미국의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려는 帝國主義者들의²⁾ 打算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朝鮮勞動黨과 자기의 수령 김일성 장군에 의하여 령도되는 조선인민들과 그의 군대의 공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일성 장군은 美帝國主義者들과 이승만 逆徒들의 침략계획을 폭로하였다. 그는 론박할 수 없는 허다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북조선에 대한 미국 군대와 이승만 군대의 침공음모를 재때에 예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원수들에게 그들이 人民共和國을 불의에 공격하여 그를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말고 침략자들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령량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벌써 1948년 2월 8일에 그의 발기와 그의 직접 지도 하에서 조선 령사에서 처음으로 조선인민 자체의 무장력인 朝鮮人民軍이 創軍되었다.

김일성 장군은 조선에서의 美帝의 戰爭目的³⁾을 폭로하면서 「우리 조선인민은 언제든지 北美合衆國 령토의 寸土도 침범한 일이 없으며, 그의 自主權을 추호만치라도 침해한 일도 없다.

우리 조선인민들은 미국인들에게 대하여 어떤 敵對的 關係도 가진 일도 없으며, 北美合衆國의 평화적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침해한 일도 없다.

그런데 美帝國主義者들은 왜 우리 령토에 자기의 군대를 들여 보내며, 우리나라 내정에 軍事的 干涉을 감행하며, 우리 인민들을 살륙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들을 피로 물들이고 있는가?

이것은 世界制霸를 야망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영구

2) 6.26當時 美國은 北韓을 植民地로 만들려는 계산을 하지않았다. 美國은 南韓에서조차 그 軍隊를 撤收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3) 美國은 1949年 6月에 韓國에 軍事顧問團만 남기고 徹收하였다.

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조선인민군과 남녀 빨찌산들과 전체 조선인민들을 원수의 擊滅에로 불러일으키면서 「인류의 력사는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決死的으로 쫓겨간 人民들은 언제든지 승리하였다는 것을 보이여 주었다. 우리 인민들의 사업은 정의의 사업이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 인민들 편에 있을 것이다!」라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인민들에게 고취하여 주었다.

수령의 호소에 呼應하여 조선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쫓겨하였다. 전쟁이 개시되자 공화국 정부의 지도 하에 産業, 運輸 및 農村經理는 자기 사업을 戰時體制로 급속히 개편하였다. 애국적 조선인민들은 무기와 탄약과 식량을 전선에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 자기력량을 동원하였으며, 인민군대에 대한 광범한 援護事業을 조직하였다. 전쟁이 개시되자 數十萬의 청년남녀들은 자발적으로 인민군대에 입대할 것을 歎願하여 전선으로 출동하였으며, 남조선에서는 빨찌산 투쟁이 강화되었다.

흡혈귀적 미 제국주의자들의 武力干涉은 조선 근로자들 속에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타오르게 하였으며, 각계 각층 인민들을 정의의 解放戰爭에 쫓겨시켰다.

同志 82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준비를 다그쳐 오던 美帝國主義者들과 그 앞잡이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方案들을 다 거부하고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不意에 북반부에 대한 武力侵攻을 감행하였다.⁴⁾

4) 김일성이 南韓에 대한 武力侵攻을 不意에 감행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祖國解放戰爭은 자주적인 인민과 제국주의침략자, 혁명군대와 반혁명적 침략군대간의 첨예한 政治 軍事的 對決이었으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다시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이었다.

조국과 인민앞에 커다란 위협이 닥쳐왔던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重荷를 한몸에 지니시고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 口號밑에 全黨, 全民, 全軍을 원썩적멸을 위한 聖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 동원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단계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과 地形條件에 맞는 주체적인 軍事戰略과 戰法을 내놓으시고 몸소 최전선을 찾으시어 인민군대의 중요작전과 전투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면서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써 打勝하게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 1段階에서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한 즉시적이고 전면적인 反攻擊으로 이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서울 解放作戰과 大田解放作戰을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심으로써 남반부 전지역의 30%이상을 해방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解放된 남반부지역에서 실시된 諸般 社會經濟的 改革들은⁵⁾ 남반부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人民民主主義制度의 優越性을 깊이 체득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변하는 군사정치정세를 예리하게 洞察하시

5) 南半部地域에서의, 「改革」들은 人民軍의 너무나 빠른 徹收로 사실상 有名無實하게 되었다.

고 전쟁 第2段階의 준엄한 시기에 적들의 進攻速度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戰略的 後退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正規軍의 大聯合部隊들로 敵後에 第2戰線을 형성할데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여 인민군 주력부대들의 반공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쟁의 일시적 난국은 타개되고 새로운 反攻擊準備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一時的 後退가 끝나고 反攻擊準備가 갖추어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戰線西部와 東部에서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反打擊戰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기초하여 기본전선과 적후 제2전선의 배합으로 전전선에 걸쳐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移轉할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 령도하심으로써 전쟁의 국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적들을 38線 以南까지 驅逐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山嶽戰과 夜間戰을 보다 능숙하게 벌리며 步兵과 砲兵의 협동동작을 잘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적인 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미제침략자들에게 만회할 수 없는 군사 정치적 참패를 안기시였다.

1951년 6월에 이르러 전선은 38도선을 계선으로 하여 기본상 고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 第4段階에서 적극적인 陣地防禦戰을 벌릴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陣地를 坑道化할데 대한 새로운 戰法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砲火力 특히 曲射火力을 증가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

책을 세우시는 것과 함께 襲擊組活動과 移動砲兵中隊活動, 狙擊手組活動, 땅크 사냥군組活動, 비행기사냥군組活動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전법에 기초하여 군사활동을 적극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적들에게 연이어 深大한 타격을 가하시었다.

특히 1,211高地전투를 비롯하여 적들의 《夏期 및 秋期 攻勢》와 《新攻勢》를 격파하기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領軍術과 主體的인 戰法의 위대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解説

韓國戰爭은 「美帝」나 李承晩政權이 아니라 北韓 金日成이 도발하였다. 이 사실은 1950年 6月 26日 그가 한 放送演說 「모든 힘을 戰爭의 勝利를 위하여」에서도 아래와 같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朝鮮人民은 李承晩徒黨을 反對하는 이 戰爭에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과 그 憲法을 死守하여야 하며 南半部に 樹立된 賣國的 傀儡政權을 소탕하고 우리 조국 南半部를 李承晩逆徒의 反動政治에서 解放하며 南半部가 진정한 人民政權인 人民委員會들을 復活시키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기치밑에 祖國統一의 偉業을 完成하여야 하겠습니다.」(金日成著作集 6. 12, 3面)

이것은 누가 읽어보아도 明明白白한 宣戰布告이다. 金日成은 戰爭敎示者이며 同族相殘을 감행한 戰爭犯罪人인 것이다. 그는 美國의 參戰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였다.

略傳 52는 金日成의 이러한 사실을 은폐할 겨를이 없이 쓰인 傳記이다. 따라서 「美帝가 도발한 戰爭」이란 표현은 그 어디에도 씌어 있지 않다. 「北朝鮮

을 背信的으로 侵攻한 美帝」라는 표현으로 國聯軍이 仁川上陸作戰을 開始한 후 38線을 넘은 일을 非難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6月 26日의 解放演說에서 김일성은 「賣國逆賊 李承晚傀儡政權의 軍隊는 6月 25日, 38線全域에 걸쳐 共和國北半部에 대한 全面的 侵攻을 開始하였습니다」라고 하여 開戰의 책임을 李承晚政權에게 轉嫁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자신이 戰爭犯罪者라는 것은 그가 6月 26日 재빨리 軍事委員會委員長으로 就任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랬던 것이 同志 82에서는 「오래전부터 侵略戰爭準備를 다그쳐오던 美帝國主義者들과 그 앞잡이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김일성은 여기에서 戰爭挑發을 「美帝」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점에 대한 指摘만을 하여놓는다.

19. 黨會議들

略傳 52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조선 인민들의 투쟁의 선두에는 김일성 장군에 의하여 령도되는 조선인민의 우수한 분자들로 결속된 朝鮮勞動黨이 나섰다.

1950년 12월에 개최된 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 第3次委員會에서 진술한 「現情勢와 우리 당의 課業」에 대한 報告에서 김일성 장군은 조선인민들의 解放鬪爭에 있어서의 勞動黨의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교시에 따라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人民軍의 力量을 현저히 재정비하고 그를 현대무기로 무장시켰으며, 정치교양사업을 옹기 조직하였다.

그 결과에 人民軍隊는 통일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는 강대한 力量으로 장성 강화되었다.

朝鮮勞動黨의 위력은 그가 맑스·레닌주의 이론과 위대한 레닌·스탈린의 學說을 지침으로 하며 대중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있다. 로동당은 국내의 전체 民主主義的 政黨들과 社會團體들을 결속시키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공고히 하고있다.

김일성 장군은 난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사업에서의 결함을 대담하게 적발하며, 예정한 목표를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나아가라고 黨과 人民에게 呼訴하고 있다.

勞動黨은 수령의 교시를 실현하면서 자기의 모든 組織的 能力과 力量을 동

원하여 그를 전쟁 승리 보장으로 지향시켰다.

노동당은 당 및 군사 규율을 강화하였으며 비겁분자, 당황분자, 우울분자 및 공포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은 思想的 鞏固性和 강철 같은 규율과 당의 행동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지도하에서 당과 정부는 戰爭行程에서 많은 師團들을 급속히 편성하고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고 指揮幹部들을 급속히 양성하며, 後備軍을 養成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軍隊와 艦隊 내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黨은 수만명의 우수한 자기 당원들을 파견함으로써 人民軍을 공고히 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령도 하에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군수생산을 발전시켰으며, 인민군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인민들을 동원하였으며, 원썬들에게 파괴당한 철도와 도로복구사업을 조직하였다. 그 외에도 戰災民들에게 대한 救濟事業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인민군 戰鬥力 強化에 친히 거대한 관심을 돌렸으며, 그의 指揮幹部들의 양성 및 교양사업에 대하여 常時的인 배려를 돌렸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靑少한 人民軍隊는 잘 무장되고, 단련된 강대한 무력으로 장성되었다. 그 결과 오늘 有生力量과 技術에 있어서 數的으로 우세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대와 영국, 토이기, 캐나다, 호주 및 기타의 從屬國家 軍隊들을 용감하게 격파하고 있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인민군은 실지 전투를 통하여 단련되었다. 인민군은 적의 공격을 격퇴하며, 포위망을 돌파하며, 불리한 조건 하에서는 조직적

으로 후퇴할 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의 견고한 방어선을 분쇄하고 그를 공격하며, 진격전을 수행하며 치렬한 反攻擊을 가할 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적을 迂廻包圍하는 신축성있는 전술과 적의 후방에 침투하여 교통로를 차단하고 적의 사령부와 軍需倉庫를 습격하는 빨찌산 전술을 적용할 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의 행정에서 조선인민군은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았으며, 전투력 있는 군대로 되었으며, 質的으로나 數的으로 장성되었다. 人民軍은 數量上으로도 전쟁행정에서 數倍로 증가되었다.

인민군은 현재 상당한 수의 航空部隊, 機甲땅크부대 및 機械化部隊와 그리고 완전히 현대적인 軍備 및 戰鬪技術로서 무장한 砲兵, 工兵 및 기타 兵種들을 가지고 있다.

人民軍의 特性은 그의 고상한 愛國主義精神과 불타는 祖國愛에 있다. 「우리 戰士들의 愛國主義는 용감성과 영웅성의 무진장한 원천」이라고 김일성 장군은 말씀하였다.

朝鮮勞動黨은 조국에 대한 자기들의 聖스러운 임무를 완성할 것을 戰士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朝鮮人民의 다년간에 걸친 解放鬪爭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기초하여 그들을 教養하고 있다.

쓰달린적 軍事科學의 命題를 指針으로 삼으면서 人民軍 最高司令官 김일성 장군은 달성된 성과에 만족하지 말며, 戰鬪技術을 완전히 정통하며, 자기들의 전투기능들을 나날이 제고시키며, 강철같은 군대규율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인민군 戰士들과 指揮官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자기의 명령들을 통하여 最高司令官은 지휘관들과 정치일꾼들이 령도 예술

에 정통하며, 모든 兵種들의 협동 동작을 잘 조직할 줄 알며, 近衛部隊들의 경험을 광범히 습득하게 리용하며, 후방사업을 정밀하게 조직할 필요성을 부단히 강조하였다.

김일성 장군은 적의 후방에서 더욱 대담하고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며, 적의 교통로와 무기고와 군수창고를 파괴할 것을 빨찌산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의 신성한 강토에 침입한 악독한 원썩들의 발 밑에서 불이 일어나게 하자!」고 김일성 장군은 말씀하시였다.

전투에서 試鍊되고 鍛鍊된 最高司令官 김일성 장군의 지도 하에서 人民軍은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끝끝내 고수하고자 할 것이며, 美帝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을 조국 강토에서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同志 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전쟁 전기간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그 어떤 무기나 군사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思想精神狀態에 있다는 主體的인 觀點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혁명 대오를 반석같이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제4차, 제5차 全員會議를 소집하시여 우리 黨을 인민대중을 전쟁승리를 위한 거족적인 싸움으로 조직동원하고 힘차게 이끌어나가는 조직자, 고무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에 발표하신 고전적 로작 《현정세와 當面課業》, 《당의 組織的 思想的 強化는 우리 승리의 기초》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은 黨을 強化하고 당사업에서 主體를 세우며 당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는

데서 綱領的 指針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에서의 승리를 현명하게 조직 령도하시는 한편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시었으며, 전시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심으로써 후방을 철옹성같이 다지시었으며 戰後復舊建設 준비사업을 豫見性있게 추진시켜 나가시었다.

解説

1950年 12月 黨中央委員會 第3次全員會議는 김일성이 戰爭敗北의 책임을 다른 幹部에게 돌리는 始初가 되었다

김일성의 政治顧問 레베제브少將은 이 會議召集을 계획하고 戰爭行程에서 金日成은 잘 했지만 그의 部下들이 잘못하여 敗退했다는 구실을 내세워 敗戰의 責任을 다른 幹部에게 묻도록 하였다.

당시는 100萬 中共軍이 물밀듯이 鴨綠江을 넘어오고 있었다. 中共出身 武亭이 이 會議에서 숙청된 것은 김일성이 그에게 領導權을 빼앗길까 憂慮했기 때문이라 한다.(北韓15年史, 金昌順著, 1961, 知文閣刊. 124面以下.)

韓國戰爭때 있는 黨會議에는 이 以外에 第4次, 第5次 全員會議가 있었다. 第4次 全員會議는 1951年 12월에 열렸는데 蘇聯派의 領袖 許哥而가 「黨의 長成事業에 있어서 關門主義를 취하였다」는 非難을 받게 되었다. 그는 中央黨 副委員長이었는데 南勞黨의 朴憲永과 가까이할 憂慮가 있어서 미리 除去되었다고 한다. 그는 4次全員會議 以後에 自殺(他殺이라는 說도 있다)하였다.

許哥而가 죽고 農民들에게 黨의 關門이 열리게 되자 黨員은 그후 1年동안에 100萬을 넘게 되었다. 이 黨員들은 나중에 김일성의 맹목적 忠誠分子로 된다.

黨中央委員會 第5次全員會議은 1952年 12월에 있었다. 黨組織事業의 強化問題가 主議題였으나 이 會議가 있는 後부터 南勞黨肅清이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100萬黨員들이 모두 網羅되고 있는 細胞會議가 利用되었다.

黨細胞會議에서는 黨思想事業을 벌이도록 되어 있었으며 黨細胞會議에 上級黨으로 부터 流配되어 오는 南勞黨員은 100萬黨員이 그 構成員인 細胞成員에게 끝까지 批判당하여 肅清되어 갔다. 100萬黨員은 南勞黨員들을 積極批判하는 行動을 통하여 「金日成忠誠分子」가 되어간 것이다.

南勞黨肅清은 朴憲永에게 死刑判決이 宣告된 1955年 12月 15일에 終結지어졌다. 그후 金일성은 12月 28日 黨宣傳煽動일꾼 앞에서 「黨思想事業에서 主體」를 세우라고 演說하였다. 이것이 「主體」나 「主權思想」이란 用語의 첫 使用例였던 것이다.

이상 韓國戰爭때 있는 세차례의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은 金일성이 朝鮮勞動黨의 領導權을 장악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會議들이었다. 第3次會議은 延安派의 巨頭 武亭, 第4次會議은 소련側의 巨頭 許哥而, 第5次會議은 南勞黨의 거의 全員이 肅清되는 계기가 되었다.

戰爭이란 북새통 속에서 金일성은 자기의 領導權을 確固하게 굳혀나갔던 것이다.

20. 中蘇와의 關係

略傳 52

우리 조국의 가장 열렬한 애국자이며, 조선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는 김일성 장군은 언제든지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 原則에 충실하였다. 자기의 모든 勞力的 및 革命的 活動과 조국의 복리를 위한 자기의 사업을 통하여 김일성 장군은 오직 國際主義的 旗幟 하에서만 인민들은 祖國과 民族的 利益을 수호할 수 있으며 또한 오직 철두철미한 국제주의적 立場만이 진정으로 애국적인 立場이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자기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들은 모든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진정한 民族的 利益과 革命的 國際的 利益 또는 각개 나라의 勞動階級의 民族的 課業과 세계각국 勞動階級의 國際的 課業의 統一 및 不可分性에 관한 또는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통일에 관한 레닌-스탈린적 學說의 보물고에서 지혜와 용기와 力量을 무진장하게 섭취하고 있다.

國際主義에 충실한 김일성 장군은 우리 인민을 자유로운 인민들의 親善과 同盟과 튼튼한 協助의 精神으로 교양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들의 解放者인 위대한 소련과 그리고 中華人民共和國 및 人民民主主義國家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으로 教養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外來侵略者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고귀한 支援과 援助를 아끼지 않고 있다.

조선인민은 우리 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사심없는

원조를 주고 있는 소련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帝國主義 기반하에 있던 조선인민이 해방된 후에 社會·經濟·文化生活의 각分野에서 비약적 발전을 달성한 것은 오로지 소련의 원조에 의한 것이며, 또 소련의 경험을 섭취한 덕택인 것이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간에는 견고한 親善關係가 존재하고 있다. 이 형제적 친선과 호상협조는 中國革命의 각단계에서의 長久한 革命的 鬪爭과 그리고 특히 공동의 원수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8年間의 抗日鬪爭에서 맺어진 것이다.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과 김일성 장군은 民族的 獨立을 위한 중국인민과 中國共產黨의 투쟁에 대하여 다년간 커다란 원조를 주었으며, 손에 무기를 들고 中國領土에서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國民黨 反動徒輩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解放戰爭시기에 위대한 중국인민과 조선인민 간의 親善關係는 더욱 공고히 되었다. 우리 조국에 대한 美帝干涉者들의 武力侵攻을 반대 항거하면서 강점자들의 침범으로부터 자기 조국을 수호하며, 조선인민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 자기들의 人民志願軍 부대들을 조선에 파견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원조를 주고 있다.

帝國主義 武力干涉者들과의 치열한 투쟁에서 영웅성과 전결성과 완강성을 발휘함으로써 人民軍 戰士들과 中國人 人民支援軍 부대들은 전세계 평화 애호인민들의 존경과 동정과 지지를 쟁취하였다.

이제 무력 간섭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戰爭放火者들을 반대하는 전세계 민주진영의 강력한 투쟁의 일환이며, 식민지 피압박 인민들

의 解放鬪爭의 旗幟이다.

위대한 스탈린의 忠實한 弟子이며, 자기들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의 지도 하에서 朝鮮人民은 자기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리라는 것은 아무 의심할 바 없다.

영웅적 朝鮮人民은 자기들의 수령인 김일성 장군을 견결하게 지지하며, 따라가고 있으며, 그에게 자기들의 운명과 희망을 의탁하고 있으며, 전세계 근로인민들의 위대한 首領이신 스탈린大元帥의 충실하고 견결하고, 현명한 弟子의 한 사람인 그에게 열렬한 사랑과 忠誠을 다하고 있다.

同志 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祖國解放戰爭時期 미제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세계적범위에서 反帝反美鬪爭의 불길을 높이며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의 連帶性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었다.

美帝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正義의 祖國解放戰爭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主體的인 軍事思想과 탁월한 軍事藝術의 빛나는 승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祖國解放戰爭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美帝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美帝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全般的 反帝反美鬪爭을 새로운 양상으로 힘있게 고무 증동하시였다.

이 빛나는 승리로 하여 우리 인민은 美帝를 打勝한 영웅적 인민으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은 한세대의 두 帝國主義 強敵을 물리치신 百戰百勝의 강철의 령장으로, 反帝鬪爭의 勝利의 象徴으

로 인민들의 심장속에 간직되게 되었다.

解説

略傳 52는 中國, 소련 기타 社會主義國家들과의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을 強調하고 있다. 김일성은 소련의 軍事援助와 中國의 「義勇軍」派遣에 대한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注目해야 할 대목은 「위대한 스탈린의 忠實한 弟子」라고 김일성이 自稱하고 있는 점이다. 韓國戰爭이 스탈린과 金日成의 共同陰謀였다는 것이 이 文章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同志 82에 이르러서는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 같은 것은 뒷전에 물러나고 마치 김일성 혼자서 「美帝를 우두머리로 하는 帝國主義 聯合勢力」을 반대하며 鬪爭한 것 같이 되어 버렸다.

韓國戰爭도 停戰이 아니라 「빛나는 勝利」로 評價되고 있으며 「美帝」는 韓國戰爭으로 말미암아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까지 쓰게 되었다.

김일성 찬양은 極度에 달하여 「日帝」와 「美帝」의 두 帝國主義를 김일성 혼자서 打倒하였다고 까지 추켜세우게 된 것이다.